

# The Hyowo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효원영어영문학

Feb. 2022

40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효원영어영문학

제 40 호

2022. 2

---

## 목 차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변증법 .....	김 형 기 / 1
더그 라이트(Doug Wright)의 『나는 나의 아내다』( <i>I Am My Own Wife</i> ) 속 기억을 통한 증언 공간 생성하기 .....	이 보 현 / 19
예외상태 속 공간의 기억—콜슨 화이트헤드의 『니켈 보이즈』 .....	김 정 은 / 45
A study on influences of the language transfer given by the L1 when acquiring the L2 tense system .....	Ren Yang / 69
방송매체에 나타난 신조어 양상 연구 .....	신 순 란 / 95
A Contrastive Study of Semantic Features in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	Le Thi Ngoc Thy / 109
2020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	153
2021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	155

---



##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변증법

김 형 기

### 1. 여는 말

19세기 영문학은 과학의 발달, 신비를 좇는 낭만주의, 인간성에 대한 탐구 등으로 전례 없는 괴물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들로 『프랑켄슈타인』, 『킬박사와 하이드씨』, 『드라큘라』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의 괴물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인격을 갖춘 괴물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대의 괴물과는 다르며 인간의 호기심과 공포심을 자극하며 현대의 SF 판타지, 뱀파이어이물, 다중인격을 다룬 범죄 스릴러 등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는 공포 문학에 대한 분석에서 이전의 괴물들이 단일한 장소에 갇혀 주변부에 머물거나 과거의 유물로서 일단 질서가 회복되면 영원히 침묵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 드라큘라는 ‘역동적’이고 ‘총체적’이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거나 전 세계를 종횡무진 누비며 영원히 살지도 모르고, 세계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가하는 현대의 괴물들이라고 설명한다(84-85). 또한 모레티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 드라큘라를 자본주의가 낳은 두 괴물, 즉 ‘노동자’와 ‘자본가’에 대한 메타포로 읽으며 두 공포문학이 가지는 서술적 차이에 주목한다. 즉 『프랑켄슈타인』은 ‘공포에 대한 묘사(a description of fear)’로서 독자들의 이성애 호소하며 과학, 가족, 전통 등 일련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만드는 반면, 『드라큘라』는 ‘공포스러운 묘사(a frightening description)’로 독자를 기겁하게 만들고 강제로 텍스트 안으로 끌어들이며 꿈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106-107).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프랑켄슈타인』은 독자들에게 괴물의 의미와 그것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사유를 촉발할 수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메리 셸리(Mary Wollstonecraft Shelly, 1794-1951)의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1818)은 근대 괴물 서사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며 소설 속 괴물의 이야기가 소설 자체의 존재감과 묘하게 겹친다. 작품 속 괴물이 신체 조각들을 그러모아 만들어졌듯이 십대 소녀 메리 셸리는 자기 삶의 자투리들, 즉 여행에서 본 풍경, 만났던 사람들과 읽었던 책들에서 받은 영향들을 꿰어맞추어 부분의 합보다 훨씬 훌륭한 소설, 곧 두 세기에 걸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감과 두려움을 안기는 소설을 썼다. 또 작품 속 괴물이 자신의 창조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삶을 지배했듯이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작가 메리 셸리의 문학적 유산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하쿠프 14).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지금까지 다양한 비평이론의 관점에서, 즉 정신분석이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최근에는 포스트휴먼 및 환경비평의 관점에서도 분석되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비평에서는 당대 역사적 맥락에서 급부상한 프롤레타리아 및 노동자 계급을 바라보는 동시대인들의 불안한 시선이 괴물에 투영된 것으로 보거나, 인간과 괴물의 관계를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생산품으로부터 소외되고 오히려 그 생산품의 지배를 받는 현상으로 다루기도 한다. 문화비평에서는 당시 영국사회의 독자층의 확대라는 배경 속에서 독서와 교육에 대한 기대와 불안, 부르주아 가정의 양육, 특히 여성의 가정교육 문제를 다루거나, 소설과 그것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오늘날의 영화들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비평과 문화 비평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괴물의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괴물을 둘러싼 양가적이고 대립하는 관점들을 다룸으로써 괴물의 의미가 단순한 한 가지 대답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괴물이 존재하는가 혹은 부재하는가, 괴물은 탄생하는가 아니면 형성되는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또한 괴물의 다중성, 즉 과학 실험으로 탄생한 괴물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과 사회상, 작가의 의식세계에도 괴물의 그림자가 어긋거리고 있음을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보여주하고자 한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의 의미에 다가가는 일은 마치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이 빙하로 뒤덮인 산정의 오두막에서 혹은 얼음 동굴에서 대면하여<sup>1)</sup> 각

1) 케네스 브래너(Kenneth Branagh) 감독의 영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Mary Shelley's *Frankenstein*)에서 오랜 추격전 끝에 빅터와 괴물이 마침내 만나 산정의 얼음 동굴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빅터와 괴물을 번갈아 클로즈업하며 어느 한쪽을 편들기를 거부하고 양자의 대립을 강조한다. 괴물과 그 창조자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드라마투르기로서 변증법적 접근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듯 냉철한 이성으로 두 가지 대립하는 관점을 모두 고려하는 변증법적 사유를 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Ⅱ. 괴물의 정체 - 부재를 품은 존재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 1818년판 서문에서 1816년 여름 제네바 근교에서 지인들과 휴가를 보내던 중 그들과 함께 독일의 괴기소설을 읽다가 모방 욕구가 발동하여 각자 초자연적인 사건을 토대로 공포스러운 유명 이야기를 하나씩 쓰기로 하였고 자신의 이야기만 완성되었다고 기술한다. 1831년판 서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당대의 과학 실험에 대해 친구들과 나눈 대화와 한밤중 떠오른 과학자와 괴물의 무시무시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그 무서운 환영을 보고 자신이 느낀 전율과 공포를 독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열망으로 작품을 썼노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순전히 개인적 동기에 의해 우연히 쓰여졌다고 주장할지라도 문학 텍스트는 그것이 나타나는 역사적 순간으로부터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문학 텍스트는 그 해석의 실마리를 숨겨놓은 닫힌 세계라기보다 푸코가 말하듯 ‘망 속의 마디(node within a network)’에 불과하다(Foucault 19). 즉 문학 텍스트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역사와 세계라는 열개 속에서 그 구성요소로 존재하며 전체 연결망 속에서 온전한 의미를 떨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다. 테리 이글턴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 비평은 문학 작품의 형식과 스타일과 의미를 특정한 역사의 산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Eagleton 3). 워렌 몬태그(Warren Montag)는 「더러운 창조의 작업」(The Workshop of Filthy Creation)에서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비평을 펼쳐 보이는데, 그는 여기서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역사적 맥락에서 찾고 다시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캐내는 마르크스주의 비평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작품이 출간된 1818년을 전후한 유럽 세계, 즉 1789년의 프랑스혁명과 1832년의 영국 수정법안 통과 사이의 영국 및 유럽의 역사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이 시대의 주요한 화두가 『프랑켄슈타인』의 주제와 일치함을 지적한다. 그것은 곧 진보와 계몽의 프로젝트에 부응하기 위해 부지불식간 불러들인,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괴물적인 힘’에 대한 것이다(Montag 300).

프랑스혁명은 시민과 일반 대중의 힘으로 절대군주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이

후 보수 반동의 역풍이 불기는 하였지만, 역사의 시계를 근대로 나아가게 한 분기점이자 당대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작품에서는 프랑스혁명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월턴의 편지에 17〇〇으로 연도 표기가 되어 있다는 점은 소설의 이야기가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혁명이라는 당대의 역사적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빅터가 친구 클레발과 함께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가던 중 옥스퍼드에 잠시 들렀을 때 1642년의 영국혁명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Shelly 154-155), 여기서 영국혁명은 프랑스혁명에 대한 일종의 암유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장면에서 프랑스혁명보다 150년 전에 일어난 영국에서의 혁명에 대해 에둘러 짧게 언급하며 폭군 찰스 1세에 대하여 동정적인 어조를 보이는 것은 진보적인 메리 셸리의 정치적 입장과 다소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몬태그는 이러한 모순과 불일치에 대해 텍스트가 의존하고 있는 역사의 발자국을 채취한다. 즉 그것은 새로운 엘리트 부르주아 계급이 구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동원한 평민 대중, 곧 농부, 노동자, 도시 빈민들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 이상의 많은 요구를 함으로써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하는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되었고, 그것은 곧 계몽과 이성에 기초하여 조직되는 세계로의 진보가 의문에 붙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Montag 301-302). 그리고 진보적인 작가라 할지라도 당대 사회에 팽배했던 이러한 인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텍스트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혁명의 딜레마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낳은 변화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기원을 알 수 없는 신기술의 출현은 신비와 기적의 현상처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고용 자본가들을 번영케 했지만, 실업 증가와 임금 하락 등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인 삶의 폐단을 안겨주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눈뜨고 ‘노동 계급’을 형성하여 대중 시위를 주도하고, 자본가 및 국가와 폭력적으로 대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 세력이 된 영국 노동계급은 당대의 관찰자들에게 괴물처럼 보였을 것이다. 『프랑켄슈타인』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연민과 두려움의 대상인 괴물의 탄생을 목도한다. 괴물은 떠오르는 프롤레타리아이자 산업 사회의 노동계급과 닮았다. 따라서 괴물은 자연적 이기보다 인공적이며 각기 다른 개인, 특히 가난한 자, 도시 빈민 등 복수의 다른 개인들로 조립한 인위적 집합체로서 균중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다(303). 텍스트에서 괴물이 자신의 고통과 고독을 유창하게 말하며 연민을 자아내는데, 이것은 셸리가 압제와 가난으로 목소리를 잃은 자에게 목소리를 빌려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포와 연민의 대상인 이들을 어디까지나 괴물 취급한다는 점에서 셸리와 같은 진보적 작가마저도 계급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괴물의 존재를 프롤레타리아로 등치시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순들이 텍스트에 존재한다. 그것은 피에르 마슈레(Pierre Macherey)가 말한 텍스트의 ‘지체(lapses)’, ‘생략(omissions)’, ‘틈새(gaps)’로서 이데올로기가 ‘말하지 않는 것’, ‘모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견해들’이다. 몬테그는 그것에 대해 작품이 보여주지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모순(contradictions)’, ‘불일치(discrepancies)’, ‘비일관성(inconsistencies)’이라고 칭하며, 역사를 움직이는 갈등이 문학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방식인 ‘징후적 적대감’을 추적한다(305-306).

첫째, ‘더러운 창조의 작업’이라는 말에 나타나듯이 텍스트는 한편으로는 괴물을 만드는 작업을 ‘창조’라는 신학적 개념에 귀속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괴물이 창조되는 과정에 대한 묘사나 설명, 과학 기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심각하게 누락하고 있다.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을 창조하는 고독하고 힘든 작업에 몰두하는 자신을 ‘광산에서 노역하는 노예’에 비유하기도 하면서도 실험과 작업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어느 날 밤 자신의 노고의 결실을 거두었다고만 밝히고, 텍스트는 괴물에 대한 묘사로 이어진다. 제조의 노동은 창조의 비물질성으로 대체되고, 기술은 프로메테우스의 근대적 드라마에서 중심적이지만 작품에서 완전히 부재하다(309).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괴물의 탄생은 ‘원인 없는 결과’로 비치기도 하며 이야기의 개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현대의 영화들에 등장하는 전기 장치와 각종 실험실의 도구들은 이야기의 개연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했을 장면이었을 것이다. 둘째, ‘근대의 프로메테우스’<sup>2)</sup>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혀 근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텍스트는 전반적으로 공업이 없는 아름다운 자연이 지배하는 시골의 세계이다.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는 제네바, 잉골슈타트, 런던, 옥스퍼드, 에딘버러 등은 당시 주요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들 도시 세계에 대한 중요한 묘사는 어디에도 없다. 런던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곳이었고 프랑켄슈타인이 친구 클레발과 함께 그곳에서 몇 달을 보내지만, 도시의 면모에 대한 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아름다

2) ‘근대의 프로메테우스(*The Modern Prometheus*)’는 『프랑켄슈타인』의 부제로서 이 작품이 진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신화적 인물 프로메테우스를 모티프로 한 우화라는 것을 드러낸다. 프로메테우스는 이성과 자유를 상징하는 신으로 괴테, 셸리 등의 낭만주의 작가들의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은 자연 정경에 대한 묘사와 매우 대조적이다. 노동과 노동자도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농부들조차도 한가로운 여가생활을 즐긴다(309-310). 한 마디로 당시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배경인 도시, 산업, 노동, 노동자는 텍스트 속에서 일관되게 부재 처리된다.

괴물의 창조과정에 대한 설명의 누락, 도시 세계와 노동자의 부재—이러한 생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작가의 실수가 아니라 생략 그 자체가 전체 작품에서 필수적 부분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누락, 생략, 부재 처리는 모든 근대적인 것에 대해 텍스트의 억압 기제가 체계적으로 작동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 괴물 탄생의 현실적 맥락을 제거 하여 그 존재를 환상 또는 신화의 세계에 머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근대적인 배경 속에서라면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았을 괴물의 존재를 불가해한 것, 정당한 자연세계에서 몸 둘 곳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지점에서 괴물의 이미지와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연관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즉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스스로 자신을 노동계급과 동일시하였듯이 공포와 연민의 대상 인 당대 산업 프롤레타리아를 나타낸다. 하지만 동시에 텍스트의 억압 기제에 의하여 프롤레타리아의 부재 또는 재현불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311). 이런 관점에서 괴물은 부재한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괴물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 하며 ‘멀고 어두운 곳(lost in darkness and distance)’으로 사라진다(Shelley 185). 작가는 텍스트 전반에 걸쳐 괴물의 존재를 억압하다가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추방함으로써 애써 부재 처리하지만, 억압된 것은 언젠가 회귀할 것이므로 괴물의 부재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 Ⅲ. 괴물의 기원 - 탄생과 형성의 사이

『프랑켄슈타인』은 18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고딕소설 장르의 대표로서, 고딕 소설이라는 흥미로운 읽을거리의 등장은 새로운 독자층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또한 그것은 인간 본성의 재정의와 교육을 통한 인격의 형성이라는 18세기 영국 문화의 지대한 관심사에도 맞물려 있다. 존 로크(John Locke)는 인격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며 경험과 교육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는 『에밀』에서 어린 시절 경험이 어른의 행동을 결정하며 교육이 선천적 덕성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사상은 이 시대에 교육이 점점 증가하는 데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제도적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 특히 중산층 아동,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독서가 강조되어 행동 지침서와 자기개발서가 널리 유통되었다. 한편 범죄와 환상적 로맨스를 담은 길거리 문학도 더불어 성행하였는데, 이들은 인간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고 정신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고딕소설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앤 래드클리프(Ann Radcliffe)<sup>3)</sup>류의 소설들, 즉 교훈 소설의 무서운 버전인 ‘감상적 고딕’을 제외하고는 적대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격 형성과 독서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당대의 문화적 관심 속에서, 그리고 고딕소설에 대한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 속에서 『프랑켄슈타인』은 고딕소설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간다. 즉 ‘공포 고딕’의 요소와 함께 교육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감상적 고딕’의 모습을 취하는가 하면, 인간의 성품과 그것을 만드는 힘의 공포스런 요소를 탐구하는 ‘철학적 고딕’의 모습도 취하여 다층적 구조를 띠으로써 다양한 독자층의 수용성을 높인다(Heller 327-329).

작품은 월턴, 빅터, 괴물 등의 교육에 관한 자전적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 특히 독서의 모티브에 천착한다. 월턴과 빅터는 독서를 통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인류에 대한 봉사를 위해 바치기로 하고 위험한 선택들을 한다. 월턴은 삼촌의 서재에서 해양 소설들을 읽고 북극 탐험을 결심하며, 빅터의 경우 풍부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 권의 책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곧 중세의 신비주의 자연 철학자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저작에 매료되어 생명 창조라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좌절되는데, 빅터의 경우 자신이 창조한 괴물과의 대결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월턴의 경우 그런 빅터의 모습을 보고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북극 탐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회향한다. 빅터와 월턴의 과도한 탐구심과 야망, 그에 따른 좌절은 개인의 천성, 부모의 무관심 또는 부적절한 대처, 우연적 또는 운명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것들과 더불어 교육과 독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르주아 계층의 양육에 대한 당대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괴물 또한 ‘나의 지성의 진보에 관한 이야기(an account of the

3) 앤 래드클리프(Ann Radcliffe, 1764-1823)는 영국의 대표적인 고딕소설 작가로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섬세한 풍경 묘사와 기이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작품들로 인기를 끌었다. 한편 그녀의 소설들은 여성의 결혼을 위한 적절한 선택이라는 교훈을 무서운 이야기에 담았다고 하여 ‘감상적 고딕’ 소설로 평가되기도 한다. 대표작으로 피기스럽고 음울한 정서가 넘치는 『우돌포의 미스터리』(The Mysteries of Udolpho)(1794)가 있다.

progress of my intellect)'라고 부르며 자신의 독서를 통한 독학의 경험을 밝힌다(Shelley 111). 텍스트는 먼저 괴물의 선량한 천성을 보여주고 독서와 관찰을 통한 독학과 지식 습득의 과정을 다루며 일견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로크나 루소의 견해를 따르는 듯하다. 괴물은 시골의 가난한 드라시(De Lacey) 가족을 엿보며 따스한 인간관계를 배우고, 그들이 읽어주는 책의 내용을 엿들으며 언어를 터득하고 인간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알아간다. 괴테의 『베르테르의 슬픔』(*The Sorrow of Werter*)을 통해 이상적 감정의 모델을 배우고, 『플루타르크 영웅전』(*Plutarch's Lives*)을 통해 공화국 개념을 깨치며 밀턴의 『실낙원』(*Paradise Lost*)을 통하여 선악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식이다. 한편 괴물은 이러한 독서를 통하여 자신의 계급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자신이 결여한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나는 뭐냐? 돈도, 친구도, 재산도 없는데(And what was I? [...] I knew that I possessed no money, no friends, no kind of property?).”(106) 이후 자신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와 혐오와 적대감을 경험한 괴물은 독서를 통해 제공된 이상과 실제로 직면한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며 독서로 쌓아올린 정체성과 가치의 붕괴를 겪는다. 그 결과 괴물은 사회적 질서를 공격할 결심을 하고 그 이상적 대표로서 프랑켄슈타인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는다. 또 자신의 아내를 만들어주기로 한 빅터가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자 진정한 괴물, 즉 파괴자가 된다. 결국 독서를 통한 괴물의 교육 기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가 습득한 지식들이 현실에서의 경험과 맞물리며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이것은 독서와 경험의 관계에 대한 당대의 문화적 불안, 특히 글을 깨친 노동자들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불안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독서와 경험의 괴리를 통해 괴물의 괴물스러운 속성이 형성되고 강화된 것일까? 즉 괴물은 만들어진 것일까? 괴물은 독서와 경험의 개입이 어떠한 어찌피 처음부터 괴물로 태어나 괴물로 살아갈 운명은 아닌가? 소설에서 아내를 만들어 달라는 괴물의 요구에 대하여, 빅터는 괴물이 자손을 퍼뜨려 ‘악의 종족(a race of devils)’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를 두고 모레티는 ‘악의 종족’이라는 이미지가 메리 셸리의 반동적인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86). 인간과 다른 ‘종족’은 인간의 존재에 위협이 되는 중오의 대상이며 이미 ‘인종주의(racism)’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빅터도 애초에 인간이 아니라 한 종족으로서의 괴물을 창조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텍스트가 암시하고 있다. 빅터는 자신의 창조물을 만들기 위한 힘겨운 노력들을 언급하며 괴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놈의 누런 피부 밑으로 움직이는 근육과 동맥들이 다 보일 지경이었다. 검은 머리카락은 윤기를 내며 흘러내렸고 이는 진주처럼 희었다. 하지만 이런 다채로운 모습은 놈의 축축한 눈, [...] 쭈글쭈글한 얼굴,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검은 입술과 더 섬뜩한 대조를 이룰 뿐이었다.

His yellow skin scarcely covered the work of muscles and arteries beneath; his hair was of a lustrous black, and flowing; his teeth of a pearly whiteness; but these luxuriances only formed a more horrid contrast with his watery eyes [...], his shrivelled complexion and straight black lips.’ (Shelley 58)

요컨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을 얻기 전 이미 괴물이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더 이상 의복이 사회적 계급을 나타낼 수 없게 된 시대에 계급적 차이를 피부와 눈과 체형에 이미 새겨놓은 것이다(Moretti 87). 괴물은 괴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배 계급이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IV. 숨은 괴물 찾기 - 복수의 괴물들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누가 괴물인가? 한 과학자의 그릇된 야욕과 실험의 결과로 생겨난 흉측한 외모와 파괴적인 힘을 가진 기형의 인간만이 괴물에 대한 모든 혐의를 짊어져야 하는가? 모레티는 괴물의 기형적 모습은 프랑켄슈타인이 의도한 것이고 그것은 산업혁명 첫 십 년 동안의 현실의 반영이라고 지적한다(87). 그것은 마르크스가 노동의 소외라는 변증법적 현상에 대해 기술한 것 그대로이다.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는 덜 소비해야 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수록 그는 더 가치없고 쓸모없게 된다. 제품이 품새가 좋을수록 노동자는 더 기형적이 된다. [...] 노동이 지적이

될수록 노동자는 더 무지해진다. [...] 그것[노동]은 궁전을 만들지만 노동자는 가축우리 같은 집에 살게 된다. 노동은 미(美)를 창조하지만 노동자는 **기형**이 되어간다.

the more the worker produces, the less he has to consume; the more values he creates, the more valueless, the more unworthy he becomes; the better formed his product, the more **deformed** becomes the worker; [...] the more ingenious labour becomes, the duller becomes the worker. [...] It[labour] produces palaces – but for the worker, hovels. It produces beauty – but for the worker, **deformity**. (Marks 720 필자 강조)

프랑켄슈타인의 발명은 긍정이 부정을 함의하는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자본주의 생산에 대한 은유이다. 마찬가지로 괴물의 존재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정 위에서만 세워지는 존재이다. 인간은 균형잡혀 있고 아름다우나 괴물은 기형이고 흉측하다. 인간은 선하고 괴물은 사악하다. 괴물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미래를 가질 수도 없다. 프랑켄슈타인이 죽었을 때 괴물은 자신의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자살을 택한다. 인간과 괴물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동운명체이다(Moretti 88). 그렇다면 헤겔의 ‘노예의 변증법’에서처럼 인간과 괴물의 관계가 전도되어 인간이 오히려 괴물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실제 이러한 아이러니한 반전은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을 ‘종(slave)’으로 부르는 장면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다(Shelley 142). 이처럼 텍스트에는 괴물 외에 프랑켄슈타인을 비롯한 인간과 인간 사회의 모습들에 괴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프랑켄슈타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과학과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한때 자신을 주인으로 숭배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할 꿈을 꾸었지만, 결국 과학과 자신의 광기 어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그의 모습은 어떠한가? 무덤을 파헤치고 처형장에서 시체를 훔쳐가며 해부실과 도살장을 방불케 하는 실험실에서, 가족과 친구, 학문의 공동체로부터도 분리된 고독한 세계에서 ‘더러운 창조의 작업’을 고집스럽게 수행하는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은 괴물의 모습이 아닌가? 자신이 낳은 무기력한 아기를 그 모습이 흉측하다고 하여 유기하고 방치한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프랑켄

슈타인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이러한 무책임한 부모로서의 모습은 프랑켄슈타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저스틴 등 여성 인물들이 계급 강동의 위기 또는 불우한 환경으로부터 구출되어 부르주아 가정에서 이상적인 여성으로 양육되는 사례들과도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가족에게 자행된 괴물의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여기고 자책하며 실제로 괴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I felt as if I had committed some great crime”)(138). 헬러(Lee E. Heller)는 1931년 제임스 웨일(James Whale) 감독의 영화판과 소설을 비교 분석하며 원작에 비해 달라진 점 중 헨리 프랑켄슈타인(원작에서의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성격 설정의 변화에 주목한다(339). 즉 엘리자베스와 친구 빅터 모리츠(원작에서 클레발)는 프랑켄슈타인이 과연 ‘제정신(sanity)’인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괴물처럼 비쳤다는 의미일 것이다. 헬러는 또 1920년대와 30년대에 성행하던 인종주의, 우생학, 인간의 야수성에 대한 문화적 우려 등을 말하며 아돌프 히틀러의 사례를 그 절정으로 지적한다(340).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 대한 논의는 어느덧 인간의 동물적 존재에 새겨진 통제할 수 없는 광기와 범죄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대체되었다. 즉 괴물적 본성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스러운 모습은 그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괴물의 그림자는 빅터 외에도 인간 사회와 당시 시대 상황의 모습으로 텍스트의 여러 곳에 출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괴물이 드라시 가족을 통하여 인간애와 가정의 파스함에 대해 배우고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거부와 혐오와 폭력이었다. 익사할 뻔한 소녀를 구해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순수할 것만 같았던 어린 윌리엄마저도 그를 추악한 괴물이라 부르며 적대시한다(Shelley 134). 어떠한 선의를 품고 어떠한 호의를 베풀어도 자신의 모습에 새겨진 낙인 때문에 인간에게 수용받지 못할 때, 괴물에게 증오와 파괴 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 태생과 외모, 인종적 위치에 따라 우열을 정하고 멸시와 차별과 박해를 일삼는 인종주의야말로 멸절한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괴물의 형상은 아닌가? 한편 윌리엄의 살인범으로 내몰려 처형당하는 저스틴의 사례에서는 당대의 불합리한 사법 체계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와 맞물려 여성, 특히 하층 계급의 여성에게 임의적인 법의 폭력을 가하는 실태를 볼 수 있다. 저스틴은 단지 윌리엄의 목걸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윌리엄의 살인범으로 취급당하고, 신부는 그녀에게 죄를 인

정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협박한다. 마침내 저스틴은 거짓 자백을 한 후 엘리자베스의 탄원과 빅터의 침묵, 하녀 신분의 자신에 대한 마음 사람들의 편견을 뒤로 한 채 처형당한다. 결국 법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고결한 여성의 권리는 오히려 문명사회의 토대인 법과 종교에 의해, 그리고 젠더와 계급상의 불리한 지위로 인해 박탈당한다(장정윤 119). 이것은 비슷한 방식으로 빅터가 친구 클레발에 대한 살인 누명을 썼으나 커윈 판사의 도움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또한 괴물적 상황이 아닌가?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은 빅터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순진무구한 윌리엄과 고결한 여성 저스틴을 시작으로 그의 친구 클레발, 아버지, 엘리자베스 등 소중한 이들의 목숨을 차례차례 앗아가고 결국 빅터 또한 죽음을 맞이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동기가 희박한 자’(the unmotivated)에 의해 ‘무고한 자들’(the undeserving)이 희생되는 인간 삶의 부조리함과 불가해함을 다룬 소설로도 볼 수 있다(Heller 338). 메리 셸리는 이 작품을 아버지이자 아나키즘 사상을 가진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에게 헌정했는데, 작가의 개인사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권운동가였던 어머니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메리 생후 11일 만에 사망하였고, 남편 퍼시 비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와의 사이에서 얻은 첫 딸을 유산으로 잃었다. 남편의 전부인이 투신자살하였고 남편과의 정식 결혼 후 세 아이를 낳았다. 『프랑켄슈타인』 초판(1818) 출간 이후 개정판(1931)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에도 메리 셸리에게 사랑받는 이들의 불행한 죽음들이 잇따랐다. 둘째와 셋째 아이가 사망하였으며 남편 셸리도 폭풍으로 인한 선박 전복 사고로 익사하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함께 유명 이야기를 썼던 존 폴리도리<sup>4)</sup>도 자살하였다. 이처럼 작가의 주변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들과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익숙한 경험은 작가의 비판적 세계관을 형성했을 것이다. 작가는 서문에서 자신이 행복했던 시절에 이 작품을 썼다고 말하고 있지만, 작가의 비판적 세계관은 은연중 작품 속에 투영되어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씩 앗아가는 죽음의 그림자,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하고 주인공을 파멸로 몰고 가는 어두운 운명의 힘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괴물적 권능으로 나타나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4) 존 폴리도리(John Polidori, 1795-1821)는 영국의 작가이자 의사로 1816년 시인 바이런의 개인 주치의로 일하면서 그와 함께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 이 과정에서 퍼시 비시 셸리와 메리 셸리 부부 등과 합류하게 되고, 이 만남을 계기로 현대 최초의 뱀파이어 단편 소설인 「뱀파이어」(The Vampyre)를 썼다. 1821년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 V. 맺음말

『프랑켄슈타인』은 한 과학자와 그가 창조한 괴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괴물은 당대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을 위해 동원한, 그러나 한편으로 진보와 계몽의 지식으로 계급 정체성에 눈뜨고 그 힘이 너무 커져 버린 프롤레타리아, 산업노동자라는 괴물 같은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 건설에 위협이 되므로 무시되고 억압되어야 한다. 텍스트는 그러한 무시와 억압의 전략으로 괴물의 존재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 창조과정, 즉 과학 기술에 대한 설명과 괴물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근대성의 배경, 곧 도시와 노동자에 대한 기술을 심각하게 누락시킨다. 따라서 괴물은 텍스트의 획책 아래 프롤레타리아의 부재와 대표 불가능성을 표상한다. 괴물은 새로운 인종으로 탄생하였지만, 그 배필에 대한 요구와 자손의 형성은 허락되지 않는다. 결국 텍스트는 그의 죽음을 암시하며 괴물을 어둠 속으로 멀리 추방해 버린다. 이러한 전략은 『지킬박사와 하이드씨』(*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 제목에서처럼 하나의 '사례(case)'로 취급하듯이 괴물의 이야기도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고 그 의미의 확대를 경계하려는 또 하나의 억압의 증거이다. 괴물은 애써 부재 처리되지만 억압된 것은 언젠가 회귀하기 마련이고, 한 번 깨어난 괴물의 힘이 쉽사리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대적 불안이 암시되어 있다. 한편 괴물은 어느 정도 선량한 본성이 부여되고 소설은 독서와 교육으로 괴물의 사회화를 시도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지식이 괴물의 계급 의식을 눈뜨게 하고 독서로 알게 된 이상과 경험으로 부딪친 냉혹한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괴물의 분노와 폭력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또 괴물에게는 교육과 경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계급성과 타자성이 그 모습에 새겨져 태어날 때부터 괴물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괴물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자신을 괴물로 만드는 인간과 인간 사회의 괴물 같은 모습도 고발한다. 또 텍스트는 일련의 비극적인 죽음이 강조되는 병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은 작가 자신의 자전적 삽화들로 인한 비관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두운 운명의 힘이 괴물 같은 그림자를 드리운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괴물의 의미는 단순하게 파악되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양가적이고 대립적인 관점들을 함께 고려하는 변증법적 접근이 필요하며, 텍스트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괴물의 형상들을 함께 포착하여 밝히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괴물은 끝내 이름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암시하며 어둠 속으로 멀리 추방되며 작품은 끝난다. 하지만 예상대로 괴물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현대로 오며 1931년 제임스 웨일(James Whale) 감독이 최초로 영화화한 후, 각종 영화, TV 시리즈물 등으로 제작되며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재생산되었다. 어림잡아도 400편 이상의 관련 영화가 제작되었다고 하니 과연 메리 셸리가 작품의 서문에서 밝힌 소망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sup>5)</sup>. 재미있는 현상은 이름 없는 괴물이 결국 이름을 얻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창조자의 이름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현상은 영화가 괴물에게 명시적으로 괴물에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인식의 전환 또는 혼선 때문에 생긴 일이다. 영화 속에서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장면은 1931년 제임스 웨일(James Whale) 감독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에서 과학자 헨리 프랑켄슈타인이 괴물과의 첫 대면 시 괴물을 ‘프랑켄슈타인 씨(Herr Frankenstein)’라고 부르는 장면이 잠시 등장할 뿐이다. 케네스 브래너(Kenneth Branagh)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1994년의 영화는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그려졌던 괴물의 이야기들과 달리 원작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Mary Shelley's Frankenstein*)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괴물은 자신이 아직 이름을 얻지 못했음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 속에 괴물의 존재와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이 중첩되는 현상은 중의적이다. 결국 괴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연히 불리게 된 것일 수도 있고, 괴물의 존재가 창조자의 존재감을 압도하며 그의 이름을 빼앗아 갔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이름을 얻은 괴물, 프랑켄슈타인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다. 공포의 대상이면서도 소비의 대상이 되어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었다. 또 괴물은 끝내 신분증을 가진 소시민이 되지 못했지만, 비존재의 대가로 모든 책임과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일평생 신분증의 항목들에 얽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매혹시킨다. 메리 셸리는 그야말로 끔찍하면서도 매혹적인 괴물을 창조하였다. 이 또한 괴물의 변증법이다.

5) 메리 셸리는 1931년판 서문에서 “이제 내 자식 같은 이 무시무시한 작품이 세상에 나가 변성하기를 다시 한번 더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다.

## 참고문헌

- 메네갈도, 질. 「괴물은 여전히 어슬렁거리고 있다」. 『프랑켄슈타인』. 질 메네갈도 편집. 이영목 옮김. 서울:이룸, 2004. 21-79.
- 장정운, 「괴물: 임의적인 법의 폭력 -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중심으로」. 『19세기 영어권 문학』 16.1 (2012): 107-27.
- 하쿠프, 캐스린. 『괴물의 탄생 -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 숨은 과학』. 김아림 옮김. 서울:생각의 힘. 2019.
- Branagh, Kenneth, dir. *Mary Shelley's Frankenstein*. TriStar Pictures, 1994.
- Eaghton, Terry. *Marxism and Criticism*. Routledge, 1989.
-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heridan Smith. New York: Pantheon, 1972.
- Heller, Lee E. "Frankenstein and the Cultural Uses of Gothic." *Frankenstein: Mary Shelley*. Ed. Johanna M. Smith. Boston: Bedford Books, 1992. 325-41.
- Marx, Karl. "The Philosophic and Economic Manuscripts of 1844." *Literary Theory: An Anthology*. Ed. Julie Rivkin and Michael Ryan. 3<sup>rd</sup> Ed., Wiley Blackwell, 2017. 717-729.
- Macherey, Pierre.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 Trans. G. Wall. London: Routelage, 1978.
- Montag, Warren. "'The Workshop of Filthy Creation': A Marxist Reading of Frankenstein." *Frankenstein: Mary Shelley*. Ed. Johanna M. Smith. Boston: Bedford Books, 1992. 300-11.
- Moretti, Franco. *Signs Taken for Wonders*. Trans. Susan Fischer et al. Verso, 1983.
- Shelley, Mary.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The 1818 Text). Ed. James Rieger. 1974. Chicago: U of Chigago P, 1982.
- Whale, James, dir. *Frankenstein*. Universal Studios, 1931.

## Abstract

*Frankenstein* and the Dialectic of Monster

Kim Hyunki

This paper aims to analyze Mary Shelly's *Frankenstein*, focusing on the meaning of "monster" from the perspective of dialectic approach. It is noteworthy that the monster, a patched work in a filthy workshop of a scientist, overwhelmed his life in the text and even the writer's literary legacy out of the text and has now become the pronoun of fear, flourishing as a beloved pop culture icon. Despite various attempts from multiple fronts and diverse frameworks of theories, interpreting the implications of the monster has been proved no easy task. To elucidate the meaning of the monster, this paper presents three dialectic arguments, drawing mainly upon Marxist Criticism and Cultural Criticism: "Is the monster present or absent?"; "Is the monster born or made?"; and lastly, "Who is the real monster?" First, the monster can be identified with the "monstrous forces" of the proletariat and laborers, mobilized for social and industrial revolutions but grown uncontrollable, while it also signifies the unrepresentability of the ill-fated class through the systematic suppression of the text. Second, *Frankenstein*, the sentimental Gothic text, attempts to educate the good-natured monster by reading and self-learning, only to awake his class consciousness and aggravate his destructive propensity. Meanwhile, the text reveals the intention of the creators of the monster—the scientist, Victor and even the writer, Mary Shelly—to create him as another "species", that is a race apart, already ugly and monstrous from the start. Lastly, the text indicates that the monster not only lurks in the patched and wretched being but also hovers over its creator, the human society and even the writer's subconsciousness. Overall, the unraveling of the meaning of the monster

dictates dialectic approaches—confronting the opposing ideas, exploring ambivalent propositions, and unearthing the multifaceted elements within and without the text.

**Key Words**

*Frankenstein*, monster, dialectic, proletariat, unrepresentability, reading, sentimental Gothic



## 더그 라이트(Doug Wright)의 『나는 나의 아내다』 (*I Am My Own Wife*) 속 기억을 통한 증언 공간 생성하기

이 보 현

### 1. 서론

우리 시대의 ‘기억’이란 또한 ‘살아남은 자의 증언’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 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자행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대량학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경험이었다. 나치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그 당시 유럽 유대인의 약 80%인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다. 그들의 이러한 만행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 철저히 차단당했고, 관련 시설과 문서들은 모두 불태워지며 은폐되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살아남은 수치심에 가라앉은 모든 기억들을 알리려 노력했다. 수용소에서 살아온 소수의 생존자들은 그 참상을 증언하고 한 개인만이 아닌 현대 인간이, 보편적인 인간성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것을 일생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특히 프리모 레비(Primo Levi)의 경우 『이것이 인간인가』(*Se questo è un uomo* 1947)를 통해 수용소((Lager) 경험의 참상을 기록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수용소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첫날부터 준비하였던 것이며, 그 경험을 외부에 증언하는 것만이 오로지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한다. 이는 생존자들의 망각되어서는 안 되는 기억을 복원시켜 증언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인간의 기억은 살아있는 역동적 과정으로서 상이한 시간의 층위가 서로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며 망각이 필수로 수반한다. 망각을 통해 재현과 비 재현이 가능한 기억은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한 인간이 겪은 언어를 넘어선 경험에 대해 더그 라이트(Doug Wright)는 증언의 글쓰기가 아닌 녹음과 재현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에게 폴리처상의 영광을 안겨준 『나는 나의 아내다』(*I Am My Own Wife* 2003)에서 주인공 살

로테 본 마홀스도르프(Charlotte von Mahlsdorf 1928~2002)는 20세기 나치와 공산주의 시절을 동독에서 살아낸 ‘남성의 몸속에 갇힌 여성의 영혼’(Wright x)이자 ‘복장도착자’<sup>1)</sup>이다. 라이트는 역경을 버텨낸 살아있는 역사로서 샬로테의 삶을 21세기 미국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시선으로 서사한다.

샬로테는 여성의 옷을 입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시화 하고 저항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 당시 언급하기도 불편한 존재로서 감시를 통해 억압받아야 했으며 어느 순간에서는 게이 영웅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바의 역할을 하던 몰락-리체에서 밀수입을 하던 중 슈타지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그녀의 파트너를 고발해야 했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훈장을 받기도 하지만 스타시 활동의 전적으로 인해 스웨덴으로 망명을 해야만 했다. 이후 2002년 다시 독일을 방문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나간 것일 뿐, 샬로테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사회가 우리가 변해온 것이다. 그녀는 물건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자신만의 박물관에서 전시하며 재편하지 않은 기억과 역사를 후손에게 전승하고자 하였다.

극 중 매복 작가로 라이트는 극에 등장하여 샬로테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하고 버바텀(verbatim)연극의 형식을 띤 뉴 다큐멘터리 연극으로서 자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라이트는 이 작품이 단순히 자서전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라이트는 피해자의 역사에 대한 진실 폭로의 의도나 저항의 글쓰기가 아닌 오히려 진실에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관객 스스로가 문화 비평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세기의 유럽에서의 샬로테의 인생의 모호함과 모순점들을 21세기 미국인 게이, 라이트의 시선에서 가구, 춤음기, 음악, 서류, 녹음된 음성 등의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인용하고 전시함으로 버바텀의 형식을 취한다. 이것은 최대한 날 것의 그대로를 지키면서 허구와 진실을 의도적으로 허물고 섞어 서술과 재현함으로 경계 넘어서기를 시도하려는 그의 의도이다. 라이트는 샬로테의 삶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그 권리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현재의 관객들에게 제공하여 과거의 공유된 기억과 앞으로 기억하고 잇는 방식의 양상의 대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1) 히르쉬펠트는 ‘가로지르다’(cross)의 라틴어인 ‘trans’ 와 ‘복장’(dress)의 라틴어인 ‘vestite’의 결합으로 변장하고자 하는 충동을 설명하기 위해 1910년 처음으로 만들고 사용하였다. 수잔 스트라이커는 복장도착자를 크로스드레서(cross dresser)와 유사하게 다른 성의 복장을 입거나 모방하려는 사람을 지칭한다. 샬로테의 여성 옷 입기는 젠더의 원본과 모방본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 판단한다.



본고는 라이트와 샬로테가 글쓰기가 아닌 기억을 재현하는 공간을 통해 단순한 증언의 공유를 넘어 점점 희미해져가는 홀로코스트라는 대재앙의 기억을 뚜렷이 하고 젠더의 역사 속 억압의 반복과 동시성을 확인한다. 무대 위 샬로테를 통해 라이트는 언어나 텍스트가 아닌 보여주고 들려주어 관객에게 이러한 역사의 반복성을 가시화시킨다. 그는 단순히 실존 인물과 사건들 간의 진실과 거짓, 혹은 사회 정치적으로 억압과 피해자 그리고 이성애적 규범이나 동성애의 이분법적 경계가 틀렸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샬로테 또한 어떠한 편향된 의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물건과 공간의 하녀로서 1890년의 것처럼 보이는 먼지들 즉 이데올로기들이 자라나 그녀가 겪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언어가 주는 우리의 생각의 고착화에서 벗어나 그것을 치워 버릴 기회를 제공하며 ‘자코르(Zakhor; 기억하라)’라는 정언명령을 따르도록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샬로테가 기억하고 말하라 그리고 증언하는 자에게 수치심이 아닌 자유를 갖게 하라는 우리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음을 확인한다.

## II. 기억의 수집

기억이란 주체가 죽을 때까지 수반되는 것이고 또한 과거를 회복하여 삶의 흐름을 재생하기 위한 증언의 방식이다. 기억은 잊지 않으려는 능동적인 행위이며, 일시적 망각 속에서 부인되고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단지 변형되거나 위장된 모습으로 되돌아온다(LaCapra 66). 살아남은 자들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 상실한 대상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끝없이 되된다. 기억의 무단 침입을 막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20세기 이후 미국에서 동성애를 다룬 공연은 ‘소수자’라는 주제 아래 성과 인종의 부당함과 억압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에 집중했다. 이러한 작품 중 테렌스 맥넬리(Terrence McNally)의 『입술은 붙이고, 이는 떼고』(*Lips Together, Teeth Apart* 1991)와 토니 쿠쉬너(Tony Kushner)의 『미국의 천사들』(*Angels in America: A Gay Fantasia on National Themes* 1991)은 80년대 에이즈의 원인을 동성애로 지목했던 미국의 상황과 문제점을 고발했다. 라이트는 남성과 여성으로만 나뉘는 이분법적인 규범 안에서 틀린 것으로 치부되어 처벌 대상이었던 동성애라는 비전형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해온 저항에 집중하였다. 그녀의 삶이 주목받아야 할 정도로 도덕적인가에 대해 논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이 작품은 홀로코스트에 집중한 쇼아 연극이 아니기에 라이트는 그녀를 억압했던 외부의 배타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1933년 이후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독일의 타락 정후가 이전의 바이마르공화국이 동성애를 방관했던 태도에 있다고 여겼다. 정부는 출생률과 무관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치부하고 유대인과 함께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1871년 독일은 순리를 역행하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형법 175조로 범죄로 규정했지만 크게 시행하지는 않았다. 나치 정권에서 이를 확장하여 남성 간의 동성애에 대한 규제와 형벌은 더욱 강화되었다.<sup>2)</sup>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0만 명에 가까운 남성이 동성애자로 체포되었고, 이 중 5만 명이 형을 받았다. 뢰디거 라우트만(Rüdiger Lautmann)의 통계에 의하면 이 시기 동성애자들의 사망률은 60%에 달했다(Jake 4). 이들은 수용소에서도 가장 낮은 취급을 받으며 분홍색 삼각형 표식을 달고 잦은 폭행과 사격 연습의 표적이 되어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Jake 2). 심지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 인체 실험에 동원되기도 했다. 샬로테와 그녀의 물건은 모든 역사의 증인이자 존재가 증언이 된다.

증언이란 그 자체로 목격과 체험의 법정 증언이자 개인적 체험담이다. 그러나 기억을 그대로 되살려내는 증언이 아니라 증언을 통해 그것을 보편적인 인간 존재의 문제로 확장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것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전달의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무한한 체형과 표현의 가능성을 함께 내포한 영역이다. 레비는 사건의 진실은 기록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흐릿해지거나 왜곡되기 마련이고 불확실한 기억의 조각들만으로는 제대로 증거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망각 속에 가라앉을 위기에 있는 기억을 모아 나치의 강압과 폭력들을 문서화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다. 자격 없는 증인들이 어떤 사회적 실천과 만나 증언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억과 증언의 개념을 또 다른 방식으로 관통하는 ‘진실 말하기’ 혹은 ‘모두 말하기’ 일 것이다.

이러한 증언과 관련하여 아감벤(Giorgio Agamben)은 『호모사케르』 3부작의 마지막 저작 『아우슈비츠의 남은 것』(*Quel Che Resta di Auschwitz* 1998)에서 증언, 유죄, 책임, 수치 등으로 증언 불가능성에 대해서 논한다. 특히 프리모 레

2)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지만, 여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명시는 없다. 이 것은 여성의 위치와 그들의 성에 대한 낮은 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의 질서는 남성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덜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비, 엘리 비젤(Elie Wiesel), 파울 켈란(Paul Celan) 그리고 타데우스 보로프스키(Tadeusz Borowski)같은 작가들은 글쓰기를 통해 수용소의 기억들을 되살려내며 나치의 잔학상을 증언했다. 1960년경에 이르러 이와 같은 작품들을 ‘홀로코스트 문학’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게 되었는데 홀로코스트 문학의 특징은 역사와 집단이 개인에게 가한 모욕과 희생자를 기억하는 것을 글쓰기의 임무로 생각한다는 것이다(Cannon 125).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The Drowned and the Saved*, 1986)에서 레비는 증언 자체에 대한 성찰로서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아우슈비츠를 통해 전후 유럽의 정신 상황을 개관한 철학적 사유의 성격을 띤다. 레비는 수용소(Lager)에서 수감자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살아남았고 죽었는가 그리고 나치의 입장까지 해부학적 과정으로 묘사한다. 레비의 증언이 특별한 것은 홀로코스트 문학이 가지는 픽션과 수사학적 묘사가 아니라 논리와 그 역사적 기원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언어의 증언 가능성과 진실 말하기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는 언어의 절대적 부재를 절감하는 순간에도 아우슈비츠의 증인들은 말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것, 단어 하나에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단어가 그 목표물을 때릴 수 있어야한다는 신념을 견지해야 한다. 진정성이 반드시 진실을 말한다는 담보에 대한 신뢰는 없다. 증인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의 재현의 불/가능성에 대해 자연 발생한 회색지대(gray zone)인 아우슈비츠의 언어를 다른 말로 번역해야 하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증인들은 고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체의 탈주체화를 탈주체의 주체화로 뒤집어 반복해야 하는 수치와 고통의 작업이 수반된다. 레비는 자신이 진짜 증인이 아님을 강조하고 수용소의 역사는 전적으로 바닥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 쓰였다고 단언한다. 레비에게 아우슈비츠의 진정한 증인은 ‘무젤만(Muselmann)’이다. 레비가 신화에 기대어 스스로가 설명하고 있듯이 그런 무젤만이 아우슈비츠의 진정한 증인인 것은, 고르곤(Gorgon)의 얼굴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돌로 변한 자, 그 얼굴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바닥까지 가보지 못한 자,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없다. 생존자들은 기억의 의무와 동시에 증언해야 하는 의무를 함께 지고 있다.

라이트는 말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본 그녀의 인생이 가지는 개인의 특수한 가치를 공론화하고 전파하려 한다(Jones). 무대 위 더그는 스스로 내레이터의 역할을 자처하며 자칫 어두울 수 있는 샬로테의 억압된 삶을 유쾌한

분위기로 지휘한다. 경쾌한 음악이 극 전반에 흐르고 한 배우가 보여주는 다양한 인물 연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평등하다. 영어와 독일어를 섞어 쓰기도 하고 억양과 동작은 차별화되고 자유롭다(Constantakis 170). 라이트는 샬로테를 인터뷰하고 작품을 쓰는 과정을 ‘큐레이팅’(76)이라고 표현한다. 큐레이터가 된 라이트는 그녀의 삶을 선택하여 수집하고 그녀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의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작품의 구성을 배치한다.

극은 총 2막으로, 각 18개 12개의 소재목을 가진 장으로 구성된다. 극은 순차적 시간의 흐름이 아닌 플래시백과 파편처럼 나열되고 도치됨으로써 기억을 재편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무대 위 더그는 샬로테가 과거의 용어리를 해소하도록 자신의 과거를 모방하고 재현한다. 그는 주변인이자 소외되었던 샬로테를 자기 삶의 역사에 주체로 만든다. 그리고 이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억압의 미묘한 조직망을 파악한다. 자신의 인생을 큐레이팅하는 샬로테와 그 억압이 만들어낸 복장도착을 살펴보면, 이 속에서 분열되는 샬로테의 부정과 소외가 결국 권력에 대한 저항의 거점임이 드러난다. 또한 샬로테는 자신처럼 부서져야 했던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수집하여 자신의 부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전시한다.

1막에서 샬로테의 어린 시절과 복장도착자가 되기까지의 서사는 샬로테의 박물관에서 이루어진다. 샬로테라는 저항의 삶의 주인공이 자신을 드러내고 전시하는 박물관은 새로운 저항의 공간이다. 샬로테는 동성애자로서 겪은 억압을 여성의 옷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건을 통해 수집되고 보존되었다. 바였던 공간은 박물관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그녀의 삶의 기록인 물건들을 전시한다. 늘 거기 있었던 샬로테처럼 박물관은 샬로테가 죽은 후에도 현재의 우리 삶 속 여전히 존재하는 이분법적 체제에 저항하고 있다. 라이트는 이러한 그녀의 삶을 미국의 극장으로 가져왔다. 샬로테의 박물관처럼 동성애자인 라이트는 무대를 자신의 저항도구로 삼았다. 그는 작품을 통해 현재의 우리에게 샬로테의 복장도착이 수행하는 경계에 대한 저항성을 알릴 수 있도록 돕는다.

샬로테와 라이트의 질문과 답변의 인터뷰로 증언의 방식을 택했다. 오랜 시간 동성애자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던 라이트에게 샬로테는 정말 진귀한 발견이었다. 라이트는 샬로테를 자신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보기를 원하고 오랜 기간 연구한다(Bisaha 188).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의 역사 동안 샬로테가 물건을 수집하였듯 라이트 역시 그녀를 인터뷰하면서 그녀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한다. 샬로테가 흠집이 난 그대로의 물건들을 수집하여 박물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전시한 것처럼 라이트 또한 그녀의 자료들을 큐레이팅하여 극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시한다. 라이트는 직접 ‘더그’라는 인물로 극에 등장하여 자신이 선택하는 과거의 샬로테가 현재의 샬로테로 재현되고 번역될 수 있도록 돕는다. 라이트는 그녀와의 인터뷰를 녹음한 카세트와 그녀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어 ‘증언의 연극’인 버바텀형식의 구성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는 이 작품이 전기 드라마의 의도는 가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아내다』는 라이트의 ‘게이 영웅’<sup>3)</sup>에 대한 헌사이다.

극이 전개 되는 동안에도 슈타지 이력에 대한 추궁이나 역사의 진실에 대한 의문에 샬로테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극은 망각을 통해 변색될 수 있는 증언과 기억사이에 진실은 어디 있는지를 밝혀내는 사실 규명을 위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가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스키타비(Schiavi Michael. R)는 실제 인물의 삶이 어떻게 진실을 노출하고 은폐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205). 라이트는 20세기에 관해 쓸 만큼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무대 위의 샬로테도 반드시 진실하고 선한 인물일 필요가 없다. 라이트는 샬로테가 복장도착자로서 사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치른 대가로 그녀의 이중성을 편집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샬로테의 저항의 방식이고 그녀가 선택한 자유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레비는 자신이 진정한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부끄러워하며 1947년 『이것이 인간인가』 저술 이후 1987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40년 세월 동안 증인이자 작가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진짜 증인들은 생존자가 아니라 이례적인 소수이고, 권력 남용이나 수완이나 행운 덕분에 바닥을 치지 않은 사람이라 정의한다(『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88). 진정한 증인은 죽음의 수용소인 회색지대라는 새로운 윤리적 영토(13)에서 고르곤을 본 돌아오지 못한 자, 혹은 병어리로 돌아온 무절만이라는 새로운 물질이다. 살아남지 못한 자들은 생존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며 ‘가라앉은 자들’이야말로 온전한 희생자이자 완전한 증인이다. 레비는 원칙인 자들은 죽고 예외인 자들이 구조되어 죽어 가라앉은 이들을 대신하여 글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증언은 이미 죽어 가라앉은 자들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처음 샬로테를 만나 인터뷰하면서 라이트는 그녀를 자신의 멘토이자 영웅으로 삼는다. 라이트는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여성 옷 입기를 통해 금지된 체제에 맞서는 샬로테를 존경한다.

극한의 고통으로 죽음에 이른 자가 진정한 증인이지만 그들은 죽어서 증언을 할 수 없다. 증언에 대한 레비의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 아감벤은 사실적 구성 요소들을 초과하는 현실 . . . . 사실상 역사 인식 자체의 아포리아, 즉 사실과 진실 사이의 불일치, 입증과 이해 사이의 불일치(Agamben 15)라고 정의한다. 아감벤은 레비를 증인의 완벽한 예(20)라고 하듯 레비와 같은 생존자의 증언은 완전하기에는 부족한 공백이 존재하며, 그 공백들이 증언의 본질이며, 그 공백은 곧 생존자들이 증언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증언한다고 주장한다(16). 이는 마치 아이의 증언거림과도 같다. 비언어의 음성에 지나지 않은 비인간의 언어는 불구의 언어나 음성에 지나지 않는다. 아감벤은 레비와 같은 생존자의 증언을 들으려고 애쓰며 공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문하고, 그 증언에 꾸준히 주석을 다는 일이야말로 진실에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말한다(16). 하지만 가라앉은 자들은 말할 수 없고, 전해줄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증언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증언이 결여하고 있는 것에 있다(51).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음이 시작된 비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증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언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다. 아감벤에 따르면 증언은 제삼자(testimony)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겪었기에 그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살아남은 자(superstite)가 필요하다(17). 살아남은 자의 소명은 기억하는 것이다. 그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37). 그들이 살아남은 의무는 감당할 수 있었던 책임보다 한없이 큰 어떤 책임과의 대결(28)에서 대리인으로서 증언해야 하는 것이다. 대리인으로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한 존재의 불가능성에 공백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기억은 삶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정체성 확보의 문제이자 현실의 해석이며, 가치의 정당화로 연결된다(Assmann 110). 이 속에는 흔적과 생각, 장소와 시간, 사람과의 관계 등 많은 것들을 저장하여 일상의 작은 부당함조차 문제 제기가 가능하도록 이끌어준다. 머리에 쓴 두건과 검은 드레스, 그리고 하얀 진주 목걸이는 샬로테의 상징이다. 극의 첫 장면에서 65세 정도의 백발인 샬로테—그/그녀는—아무 말 없이 잠시간 관객을 응시하고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문을 닫고 사라진다. 잠깐의 휴지가 있다. 관객과의 공간에 들어선 샬로테는 잠시 미소 지은 자신을 보여주고 퇴장한다.

관객에게 여성 옷을 입은 샬로테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라이트는 관객들에게 침묵하고 있는 샬로테에 대해 고민 할 시간을 제공한다. 누군가는 샬로테를 남

성이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여성이라 할 것이다. 라이트는 이러한 선택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관객들은 샬로테를 생물학적 몸에 의해서 여성의 옷을 입고 있어 여성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샬로테는 자신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이라 정의한다. 담화-사건의 현재 속에서 주체화와 탈주체화가 일치하기에 완전히 침묵한다. 주체성이란 살아남은 자가 아닌 빈자리로서의 주체적 대상이 모여 있는 장소로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불가능성을 증언하는 주체성을 요구한다. 증언에 선행하는 말이나 행위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고 무능력하여 증언이 무능력한 행위를 도와야만, 증언할 수 없는 자의 증언을 통하고 보환할 때만 진실성과 존재의 이유가 있다. 푸코가 제시한 생명 권력과는 달리 아감벤은 현재의 생명 정치는 죽이지도 살리지도 않으며 그저 살아남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간성을 상실한 채 식물인간 혹은 별거벗은 생명의 극한 예로서 이슬람교도는 절대적인 생명 권력의 실체(Ibid 230)인 것이다.

고르곤을 직시하지 못한 살아남은 그녀의 삶 자체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살아있는 증인을 단지 보여주면서 라이트는 이제 더 나아가 현재를 살고 있는 이민자나 성적 소수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언어, 자아, 공간의 혼합과 해체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한다. 샬로테의 삶은 가부장제에 기반 된 소외된 이들 속의 소외된 자들이라 불리는 그들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문제 재기로 확장시켜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자신의 연인 알프레드(Alfred)가 미군에게 시계를 판 혐의로 슈타지에게 잡혀간 배경에 샬로테의 밀고가 있었다는 오명은 그녀로 하여금 살아남은 적자로서 자신의 삶을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백만 명이 죽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었는데도 믿을 수 없는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 중 누구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Bettelheim 297-8). 라거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은 최고의 사람들, 선택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폭력자들, 무감각한 자들, 희색지대의 협력자들, 스파이들이 살아남았다. 즉 적자들이 생존했다. 레비에게 판결 불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누구도 증언할 수 없는 자리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레비는 수치심을 느꼈다.

부끄러움의 원형은 별거벗은 몸에 대한 자의식과 관련이 있다. 별거벗은 몸

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타자의 시선에 자신의 본성이나 존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상의 수치심을 선취한다.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에서 멀리 달아나려는, 즉 부끄러움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마음의 작동이다. 부끄러움은 부끄러움 자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로부터 단절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무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발가벗은 몸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가시성의 영역에서 치워버리고 싶는데 감출 수 없다. 생존자들은 살아남음이란 가릴 수 없는 별거벗음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상이고 스스로에게 결박되어 자아가 그 자신에게 현전한다는 참을 수 없는 사실이다. 살아남은 이들은 스스로가 적자이고 이기주의자들이며 최악의 사람이라 결박된 것이다.

수용소에서 돌아오자마자 레비는 자신의 살아남음에 수치심으로 부끄러워한다. 예외의 공간에서 규칙을 지킴으로 살아남은 자, 레비는 가라앉은 자들을 대신해 끊임없는 증언의 충동을 느끼며 끔찍한 체험들을 글로 증언하면서 인종적 불관용성에 사로잡힌 인간집단이 만들어 낸 지옥을 보여주었다. 그의 글쓰기는 무덤도 없이 사라진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행위로 글을 썼다. 유대인 박해 자체를 증언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비이성적인 집단적 폭력 앞에서 무력하게 사라지고 역사로부터 모욕과 상처를 입은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며 거대하고 불합리한 폭력 앞에서 말살된 인간성을 증언했다. 그러나 샬로테는 자신의 부정성을 극복하고 자신을 부정한 체계를 보듬어 공유하는 삶을 추구하며 진정한 제3의 성을 지향하는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시하고 전시한다. 과거를 통해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녀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고집스럽게 모으고 보존한다.

또한, 그녀의 삶은 공백과 침묵으로 점철된 시기, 라이트가 퀴어 후손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제공한 몇 안 되는 조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Schiavi 201). 현재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산주의 체제 아래 독일 동성애자의 삶과 관련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나는 나의 아내다』 속 샬로테의 삶과 영웅적 행위는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데 용이할 수 있다. 그녀는 바이마르공화국 시기를 거쳐 2002년 사망할 때까지 다양한 체제의 변화를 경험했다. 당시 독일의 사회적 억압과 정치적 문제, 젠더 문제를 논의하고, 샬로테라는 한 인간의 역사와 과거 및 현재의 가교역할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중 기어스도르프 젠스 리샤르트(Giersdorf Jens Richard)는 샬로테의 삶을 통해 동독의 성 소수자들의 정체성과 북미의 퀴어 정체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미국



소수자의 저항은 강력한 공동체 정체성을 만들고 거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172). 그러나 독일의 샬로테의 저항은 개인이 이루어낸 아주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다.

인간의 자연생명이 권력의 메커니즘과 계산속으로 점점 더 포섭되어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 생명정치는 사실상 국가 주권의 본질적 속성이다. 국가 권력의 영역을 인간의 공적인 삶에만 한정함으로써 자연생명에 대한 주권의 치명적 장악력을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생명 권력의 개념은 푸코에 의해 창시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이를 부각시키는 역할은 아감벤이 맡았다. 아감벤에게 고대 이래 서구의 국가 주권 자체가 생명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면 푸코는 17세기에서 그 모습을 찾는다. 푸코는 주권과 생명 권력을 구분한다. 그에게 주권은 기본적으로 법적, 제도적 권력이며 피지배자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찬탈적 성격을 지닌다. 라이트는 단순히 샬로테의 독립적인 저항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이트는 그의 극 속에서 그녀의 삶을 극화시켜 무대 위 샬로테에게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력을 재구성한다. 라이트는 과거 피해자의 역사에 대한 폭로의 의도나 저항의 글쓰기가 아닌 오히려 진실에서 거리두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그녀의 삶을 현현해 주는 장소로 연극을 택했다.

구세대와 신세대에게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에게 크로스드레서와 복장도착자에게 호명되고 그녀는 소환되어 질 것이다. 라이트가 궁극적으로 이 연극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계로 인해 억압받은 샬로테의 삶을 통해 체제에 저항하고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다. 증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샬로테를 기록하고 큐레이팅하는 라이트의 집착은 샬로테라는 개인사를 통해 유럽의 성 문화와 젠더 문화를 다시금 고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급스러운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요즘, 그녀의 삶은 다름에 대한 배제와 소외가 얼마나 한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린다.

### III. 저항을 위한 공간 생성하기

공유된 기억은 공동체를 심리적인 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외적이고 공동체나 사회적 투쟁의 영역으로 확대시킨다. 공동체 안에서 같은 상실에 대한 기억과 망각은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그들은 상실의 슬픔을 단순히 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전 생애 걸친 증언의 여정을 택한다. 아감벤은 수용소를 근대 생명정치의 패러다임(『호모사케

르』 2008)이라 단언했다. 그는 20세기 도처에서 출현했던 수용소야말로 주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공간이라 주장한다. 오늘날 서양의 생명 정치적 패러다임은 예외가 규칙이 되는 공간 즉 수용소이다.

권력 안에서 우리는 수치심을 자각하고 내면화 시킨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만 생성되는 사회적 감정인 것이다. 이 배제의 공간에서 윤리는 없다. 비극의 영웅은 죄를 진만큼이나 무구하다. 아우슈비츠는 모든 비극적 갈등을 불가능하게 한다(112). 오이디푸스는 어떠한 주체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지식도 의지도 없이 근친을 하고 아버지를 죽인다.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남을 해치는 것엔 아무 관심이 없고 월급을 받으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라 변호한다. 아감벤과 레비에게 있어 수용소인 회색지대는 주인과 하인의 두 영역을 나누는 동시에 연결하는, 경계가 불분명한 따라서 우리의 판단 욕구를 혼란시키기에 충분한 것을 안에 품고 있는 지역이다(『살아남은 자, 가라앉은 자』 46). 다시 말해 회색지대는 모든 윤리가 배제된 공백의 공간이다.

1막에서 샬로테는 자신의 인생 및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과 죽음기에 대해 강의하면서 이를 수집하고 보존해 온 과정을 설명한다. 2막에서는 알프레드가 이런 물건들을 미군에게 돈을 받고 거래되는 것을 수평적으로 보여준다. 2막은 물건을 보존하지 않고 사고파는 교환의 행위조차 단죄 받아야 마땅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샬로테와 라이트의 의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극에서 대부분의 의상이 달라지지 않는 인물들과 달리 2막에서는 알프레드의 수감생활을 재현하기 위해 유일하게 그가 스트라이프 문양의 죄수복을 입는다. 당시 죄수복이라는 옷과 동성애자라는 이름의 옷이 겹쳐야 했던 억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한 『벤트』<sup>4)</sup>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 동성애자 수감자 맥스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노란 별’을 선택한다. 이는 수용소에 갇힌 하위의 서발턴<sup>5)</sup>들 사이에서조차 분홍색 역삼각형 패치를 달아야 했던 동성애자들의 위치와 그들이 받아야 했던 대우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상기시켜준다.

수용소 속에는 끊임없이 교체되면서도 늘 똑같은, 침묵 속에 행진하고 힘들게 노동하는 익명의 군중이 존재한다(『이것이 인간인가』 136). 그들은 아우슈비

4) 마틴 셔먼(Martin Sherman)의 1979년 작품. 나치 시절 수감된 동성애 학대에 대한 극.

5) 지배 엘리트 집단을 제외한 지배 담론들에서 배제된 피식민지인, 이민자, 노동자, 여성 등 주변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지칭. 스피박의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서발턴은 단순히 포스트식민 사람이거나 에스닉 소수 집단의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는다. ‘서발턴’은 탈 식민화된 공간의 순전한 이질성을 위해 남겨진다(138)로 정의.

츠의 공포 그 자체이자, 살아 있지만 죽어있는 ‘생중사’이다. 오로지 살아 있다는 생물학적 삶을 가진 조에(Zoe)라는 사실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들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 삶인 바이오스(Bios)가 없는 인간이자 비인간이다. 걸어 다니는 시체인 무젤만은 담화를 통해 발현되는 주체의 지위를 확인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이 체득하지 못한 경험을 언어로 발화하는 책임을 살 가치가 있는 생명이다. 담화라는 순후한 현재 속에서의 언어/사건은 감각과 경험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중심에 귀속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러한 감각 및 경험과 그것들의 가치 현전을 되돌릴 수 없게 분리시킨다(Agamben 184). 아감벤은 언어와 담화행위를 구분하고 언표가 담화 과정으로 이행되면서 생성되는 어긋남, 불일치, 환원 불가능한 이점을 드러낸다.

제도 밖에 있으며 희한하고 모호하다 평가받는 샬로테는 어느 날은 문화부장관에게 훈장을 받은 영웅이었고, 또 어느 날은 세상의 질타를 받는 변절자가 되었다. 그녀는 결국 무국적자로 추방당한 후 죽기 직전 독일로 돌아오기 전까지 스웨덴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부정성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정한 사회에 소속되지만 죽을 때까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자유를 쟁취한다. 샬로테는 경계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 아닌 두 개의 경계를 해체하여 하나의 대상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자신을 소유하지 않음으로 소유하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을 박물관에서 전시하며 이를 통해 계속된 저항을 도모한다. 체제에 저항했지만 궁극적으로 샬로테의 여성 옷 입기는 부정의 저항을 넘어선다. 샬로테가 죽은 후, 라이트에게는 샬로테의 어린 시절인 로타르의 사진이 도착한다. 로타르가 안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는 샬로테가 겪어 왔던 정치 체제 그리고 나치즘과 사회주의로 상징(Schiavi 212) 되기로 하지만, 금방이라도 튀어 올라 발톱으로 핏줄거나 물 것 같은 사자를 로타르는 한쪽 팔로 그저 안고 있다(79). 이는 샬로테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해석할 수 있다. 가운데서 웃고 있는 로타르이자 샬로테는 경계를 나누지 않고 수용한 불이의 성적 중간자이다.

여성의 복장을 한 샬로테는 남성인가 여성인가라는 물음에 샬로테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나는 복장 도착자입니다(14).”라고 대답한다. 샬로테는 어떠한 성에도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지칭하지 않는다. 그러나 라이트는 샬로테를 ‘그녀’라고 지칭한다. 생물학적 성이 아닌 그녀의 정신적 성은 여성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적으로 ‘나’는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 정의된 내가 아니고, 나를 규정지을 다른 어떠한 매개도 필

요치 않다는 저항의 의미이자 이러한 시도가 언어의 경계 구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의 유럽에서 남성이자 여성이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융화되고 경계가 없는 제3의 성을 지향한 살로테는 늘 검정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 이는 수용소에서 낙인과도 같았던 분홍색도 아니고 현재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도 아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검정이란 모든 색의 아우러진 화합으로, 그녀를 정의하기 위해 주체도 타자도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르다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국 ‘나’라는 개체성이 존재해야 전체의 합으로서 ‘내’가 존재하며, 어떠한 색을 입는다는 것은 또 다른 전제 조건을 주고 경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가 정해놓은 이분법적 규제를 거부하고, 성 정체성이란 비 일관적이라 맹목적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부是我们가 사회 구성원으로 서 있을 곳을 박탈시킨다.

감옥과 병원으로 상징되는 관리와 통치의 푸코의 공간을 아감벤은 수용소와 전체주의 국가들의 구조의 영역으로 박탈된 구성원들을 위치시키고 있다. 근대의 권력이 생명을 관리했다고 보는 반면 아감벤은 생명정치로 서양의 전체주의 정치와 예외상태에 관해 결정하는 주권자와 주권권력에 내맡겨질 수밖에 없는 생명을 설명한다. 그러나 아감벤이 살아있는 삶으로서 조예가 정치, 사회적 삶인 비오스에 배제되는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푸코가 말하는 추상적인 존재물로서의 생명 개념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다. 푸코는 생명관리에 대해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요소를 정치, 정치적 전략, 그리고 권력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의 총체라고 정의하는데 아감벤은 이를 별거벗은 생명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푸코와는 달리 아감벤은 출생물이나 수명 같은 가변 가능한 조건이 아닌 별거벗은 생명을 주권권력이 생산하는 삶, 정치적 육체, 자신을 돌보며 배제하는 형태로 질서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살로테의 성실한 수집의 전시는 유대인 여자가 운영하던 ‘물락-리체’라는 바에서 시작된다. 러시아군에 의해 게이들의 거리였던 물락스트라스가 부서지면서, 동독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동성애자들의 삶은 끝난다. 히르쉬펠트 연구소 덕에 잠깐의 동성애자들에게 대도시에서나마 자신들만의 공간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나치치하 하에 연구소는 폐쇄되어지고, 다시 동성애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개정된 175조는 성인 남성의 성관계에 대한 금지를 확장하여 성 풍속 문란 행위로 간주하고 더욱 감시가 강화되었다. 바들은 문을 닫고 존재하지 말

아야 하는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고작 공공화장실에 불과했다. 슈타지의 감시의 눈 아래에서 그녀는 거의 30년을 바이마르 최후의 카바레를 운영했다. 몰락-리체의 원 주인이었던 유대인 미나는 정부가 그들의 바를 닫게 하려 할 때, 그들의 역사란 퇴폐적이고 오직 오늘, 현재만이 주어졌을 뿐이라며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샬로테는 상실로 인한 소외와 수용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부정성에 저항한다. 안될 것이 무엇인가?(38) 그녀는 자신들이 잊혀지고, 과거도 미래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녀는 몰락-리체를 인수하고 모든 것들을 원본으로 채운다(38). 가장 낮은 계급의 서발턴인 샬로테는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여 다른 동성애자들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매음굴과도 같은 몰락-리체라는 소외된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단허져야 하는 공간이고 해소의 공간이며 이 속에서도 샬로테는 자신의 성을 쌓고 세상에 저항한다. “매춘은 강력하게 금지된다! 적어도, 경찰에 의해서(37).”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몰락-리체에는 모든 성 소수자들의 환상을 채우는 향락의 공간인 다락방과 도피를 위한 지하가 공존한다. 슈타지는 이 곳을 급습했고 많은 주변의 많은 바들은 문을 닫았다. 몰락-리체의 다락방은 독일이라는 권력 안에 있지만 금지된 그들의 성 취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예외의 공간이었다. 사도마조히즘에 관심 있는 누구나, 그것이 넷이 되었건 여섯 명이 되었건 간에 몇 시간은 그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채찍이 마련되어 있었다(36). 이분법적으로 동성 사이의 성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켰던 시기에 그들은 이 곳에서 자신들만의 취향을 고수한다. 사회체제의 억압을 피해 오랜 기간 동성애자들만의 향락을 충족시키는 공간이었던 몰락-리체는 현실과 환상을 횡단하는 틈이자 그들만의 실재의 공간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칸막이(36)가 그 공간을 나누었고 모든 가구는 항상 사용되었다. 후에 외부의 슈타지들이 창문을 통해 그곳을 보고 무엇이나는 질문을 샬로테는 모든 창문을 검게 칠해 버린다. 창이란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가진다. 또한 내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외부를 차단하기도 한다. 편제 적 응시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공간이기도 하나 외부의 그들에게 몰락-리체 속 그들은 늘 밖에 있는 예외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간 속에 있지만 그곳을 둘러싼 밖의 비가시적인 20세기 독일이라는 국가의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몰락-리체는 누구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지만 어디도 들어간 것이 아닌 안이자 밖의 공간이다.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법이라는 규칙에서 벗어난 행위가 이루

어졌다. 그들은 지형적으로 소속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규칙은 밖의 것과는 달랐다. 남성과 여성 이분법적으로 규제되어지는 사회의 규칙 속에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들은 존재하지 말아야하는 범법자들이고 감시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알프레드가 시계를 미군에게 판매한 것이 들통 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비밀스럽고 밀폐 된 부정의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64). 금지와 금지를 거부하는 샬로테. 자신이 아무리 저항하려해도 사회의 체제에 맞서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다. 슈타지는 알프레드를 미행하여 그의 아파트를 급습해 그의 책상을 뜯고 미국 화폐를 찾아낸다. 샬로테에게 그 시계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며 모든 책임을 떠맡으려 한다. 그러나 샬로테는 그녀는 빗장을 잠구고 모든 문을 차단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소외시키고 차단하며 저항하려 한다. 그러나 알프레드는 자신이 모든 죄를 떠안음으로 이 공간을 지킨다.

조에가 ‘오이코스’의 영역에 국한된 단순한 생명이라면, 비오스는 ‘폴리스’라는 공동체 속 정치적 위치를 가지는 생명이다. 조에는 푸코가 말하는 근대의 추상적 존재물로서 생명이다. 아감벤은 자연 생명의 정치화 즉 그리스 이래로 조에가 폴리스에 포함되지 않는 배제의 방식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죽일 수 있는 존재,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한 법에 무관한 자로 배제됨과 동시에 면책이 가능한 자로 포함된 자들이다. 조에는 비오스로부터 배제됨과 동시에 법으로부터 면책되는 수용소의 희생자들은 아감벤의 생명정치의 극단이자 호모사케르이다. 부정을 타 의례를 치를 순 없지만 신의 법에서 배제됨으로써 포함되는 것이다. 희생물로 바칠 수 없음의 형태로 신에게 바쳐지며 또한 죽여도 괜찮다는 형태로 공동체에 포함된다(『호모사케르』 175).

규칙과 기준의 부재는 곧 혼란을 야기 시킨다. 샬로테는 세상의 규칙을 모방하여 저항을 시도했다. 그녀의 여성 옷 입기는 언어처럼 권력과 정치성, 그리고 그 안에 변화하는 담론을 보여준다. 샬로테는 상실을 감내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왔다.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제도 하에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 여겨 배척당했고 박탈당했다. 비오스화 된 조에인 그녀는 당연하게도 전쟁으로 인한 일상의 상실, 연인의 죽음과 복장도착자로서 감내해야 했던 주체의 상실을 겪었다. 또한 슈타지 가담 이력으로 인해 스웨덴으로 떠나며 고향을 박탈당하는 등, 그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빼앗겼고 포기해야 했다. 샬로테는 가장 억압적이었던 두 정권 사이의 경로를 향해했다 . . . 하이힐을 신고(76). 샬로테는 정권이 변화하고 주변이 바뀌어도 여성의 옷을 입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지키며 성에 대한

담론에 도전한다. 샬로테의 여성 옷 입기는 자신의 성을 정의 할 수 없도록 예외의 존재로 만들었다.

예외상태는 법의 바깥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규범과 법이 완전히 관계를 잃은 곳도 아니며 경계영역에 위치하는 것이다. 수용소란 안에서 내부와 외부, 규칙과 예외, 합법과 불법이 혼종 된 공간이다. 개인의 권리 규범 법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곳에서 모든 법과 규범은 효력을 다했다. 수용소라는 예외공간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을 때 생명이 온전한 권력에 포섭되는 것이 설명 가능해진다. 또한 진정한 예외 상태는 탈 법화 된 상태를 말한다. 삶과 뒤섞인 법이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결합되어 있을 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된다. 아감벤은 주체 내부에서 저항하지 않고 주체와 대상을 꾸며내지 않는 순수한 사유를 추구한다.

여러 동성에 친구들의 희생으로 지켜내어진 몰락-리체이자 그룬더자이트(Gründerzeit) 박물관이란 샬로테에게 예외의 공간이자 모든 정치와 권력이 평등해지는 순수한 사유가 가능해지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샬로테는 바이마르공화국부터 통독이 되고 그녀가 2002년 죽음을 맞이하기 까지 변화무쌍했던 독일을 자신의 물건과 함께 가구가 되어 역사를 담아낸다. 오랜 테이블에는 히르쉬펠트와 브레히트의 잔상이 있었고, 그 공간 구석구석에 알프레드가 있다. 러시아의 폭격에서 살아남은 오래된 문이나 아버지를 죽일 때 함께 있었던 의자는 그녀의 삶을 함께 목격해 온 동료이자 증인이다. 1945년은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할 수 있지만 오늘 아침의 메뉴는 알지 못한다. 샬로테는 고아들을 돌보는 엄마처럼, 오래된 애인을 다루는 것처럼 가구들을 청소했고 자발적으로 예측되었고 지배받았다. 샬로테는 스스로를 도구화시킴으로 억압을 해소하며 소속되기를 거부한 자신의 삶의 죄의식에서 벗어나려 한다. 시대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을 밀고해야 했고 강요된 스파이 활동도 해야 했던 독일인 샬로테가 유대인의 가구와 공간에 집착한 것은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의 매트릭스 속 징후들이자 사회적 적대의 왜곡된 표상이다. 샬로테에게 그녀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상기시킨다.

언어가 아닌 사물과 이미지로 기록을 남기려 한 샬로테라는 고정적 지시자<sup>6)</sup>는 몸과 낡은 축음기에 바늘을 울리며 음악으로 자신을 울리며 알린다. 자신의 역사를 새겨 넣고 자신의 억압을 해소하게 해준 물건들은 보고 들을 때 마다

6) 기의의 모든 변환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기표

그녀에게 고통과 상처를 되돌린다. 자해와도 같이 그녀가 가학적으로 물건을 수집하는 것은 진정으로 어떤 사건을 잊기 위해서는 먼저 힘을 내어 그것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역설을 받아들여 계속해서 존속하며 존재하기 위한 노력이자 속죄이다. 『벤트』의 맥스와 홀스트가 나치가 만들어 낸 아주 무의미한 돌을 묵묵히 나르고, 시지프가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다시 밀어 올리는 것처럼 샬로테는 곳곳을 청소하고 청소했다. 나는 이 집의 하인과도 같아요; 넌 청소하고 청소해야해, 먼지는 자라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먼지는 1890년의 것처럼 보여!(18) 계속해서 자라나는 1890년의 먼지란 과거의 체제이고 그녀가 속한 세상의 부조리이다. 샬로테는 자신과도 같은 물건들을 덮고 있는 먼지들이 더 자라지 않고 사라지도록 닦아내고 청소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범과 체제의 부조리를 은폐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면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혹은 자살해야만 하는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샬로테는 자살을 하거나 맹목적인 순응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레비가 모든 증언을 책으로 남긴 것처럼, 가구를 매일 청소하는 것은 살아남은 샬로테가 존속하며 존재하기 위한 노력이자 속죄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살하지 않고 자신을 가구를 위해 남김없이 다 소진하고 소진할 뿐이다.

샬로테의 수집과 보존은 또한 자신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던 샬로테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가 아닌 변한 세상에 의해서 달라진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바뀌지 않는 개념이자 그녀가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다. 샬로테는 자신의 결여와 결핍을 인정하고 부정과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상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전쟁에서 불태워지고 부서져야 했던 가구를 자신과 같다고 여기고 동일화한다. 이러한 수집에 있어 샬로테는 ‘구하다’(17)라고 표현하는데,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보존되기를 바란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부정당하던 샬로테는 가구를 수집하고 전시하여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그녀가 그 물건 자체가 된다(36).

살아남은 자들은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곧 승자이기도 하다. 박물관이란 승자의 공간이다. 샬로테가 애착을 갖고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전시로 이어진다. 왜 사람들은 이 나이 많은 복장도착자와 그녀의 공간에 열광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은 이것이다. 샬로테의 박물관은 그들에게도 해방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그 속을 채우고 있는 물건과 샬로테를 통해 그녀가 겪어온 저항의 역사를 알려 세상과 공유하며 화해한



다. 라이트에게 박물관과 기록의 전시는 현재의 관객들이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다. 라이트는 무대 위 샬로테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33년간의 이 공간을 점유해오고 버텨온 샬로테라는 소외자의 승리는 결국엔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인물이자 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 라이트의 소망을 성실히 수행한다.

사전적 퍼포먼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소외되거나 주변인이다. 주변인은 공간적 관계, 인간적 관계상 이방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정상적 그룹으로 치부되는 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젠더, 인종, 계층 등의 차이로 인해 배제되고 이러한 결핍에 고통 받는다. 그들은 우리 가까이 에 있으나 멀리 있는 자들이고, 멀리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이다(Simmel 402-3). 그룬더자이트 박물관이란 현실과 실재의 중첩이며 기억 속 상처와 마주하여 미완성이고 실패가 불가피한 나를 만나 치유한 나를 사람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미 우리는 샬로테의 박물관의 의미를 알고 있다. 억압에 대한 저항의 기록이 축적되어 있는 그룬더자이트 박물관은 대항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그녀의 삶의 순서는 박물관, 가구, 사람이었다. 이것은 라이트가 극이 구성하는 순서이기도 하다. 그녀의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녀를 보러 오지만 먼저 그녀가 큐레이팅 해놓은 가구들을 본다. 박물관을 보고 가구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녀의 삶을 알게 된다. ‘박물관’과 그녀의 ‘가구’를 통해 샬로테라는 ‘사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박물관은 그녀를 위한 곳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런 부끄러운 승리의 역사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에는 핑크 삼각형 패치 등 증거들이 기증되어 전시되고 있다. 박물관의 디렉터 역할을 맡은 필러는 핑크색 역 삼각 패치와 그것을 입도록 강요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홀로코스트에서 학대받았던 유대인 희생자뿐만 아니라 집시, 장애인, 전쟁 포로와 같은 박해 받은 다른 소수 집단들도 포용해야할 필요해 대해서 주장한다(Dunlap 1). 홀로코스트 박물관처럼 라이트 또한 샬로테의 방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개인화하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역할이고 그것을 기억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이다. 모든 시대, 모든 시간, 모든 형태, 모든 취향을 한 공간 안에 가두어놓으려는 의지 또한 어디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듯 모든 시간의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구축하려 한다. 외부도 내부의 경계도 없다. 그녀는 박

물관에서 모든 것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샬로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보존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 . . “있는 그대로” . . . 이것은 기록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의, 삶의 기록이죠.

Charlotte: You must save everything. And you must show it . . . “as is” . . . It is a record, yes? Of living. Of lives(78).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분신과도 같은 물건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시한다.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의 성의 의의를 제대로 알고 있다.

배제된 인물들과 내몰린 인물들과도 같은 물건들을 샬로테는 수집해왔다. 우리는 존재하지 말아야했어요(38). 그렇게 부정당했지만 기억을 하기 위한 기록의 물건들을 모아놓은 샬로테의 박물관은 푸코가 말하는 연대기 없는 역사가 흘러가는 장소, 없는 지역 그리고 꿈의 장소이자 그들 가슴의 빈 곳이다. 샬로테의 박물관 속 물건들은 1890년에서 1900년 사이의 것들이고 그 시절의 독일을 보여 준다. 석유램프, 꽃병, 축음기, 레코드들, 성냥갑, 전화기, 잉크통, 사진들, 그림들, 식기 진열장, 책장, 그리고 당연히 시계들. 그녀의 삶의 순서인 박물관, 가구, 그리고 사람. 공간을 마련하고 가구를 수집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공유함으로 그녀는 자신의 상실을 치유한다. 그녀가 바로 살아있는 역사이고, 이제껏 알지 못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28). 그녀의 부엌은 베를린의 1890년대 주부들의 것과 같다. 작은 보석상자와 문고리 같은 소품들부터 음악, 가구 그리고 돌로 만들어진 집으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받아야 했던 가정과 국가의 폭력적인 체제들을 보여준다. 이 모든 이데올로기와 그녀를 주위를 둘러싼 풍경들 모두 그룬터자이트의 박물관에서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과 공유한다. 바로 이것이 여전히 사람들이 기꺼이 이 공간에 관심 갖고 몰려드는 이유인 것이다. 샬로테의 인생이 가지는 가치는 역사의 반복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 IV. 결론

1994년이 독일의 동성애 처벌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더 이상 동성애는 정신 질환이 아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것이 도착이고 환자는 우리이자 세상이다. 삶의 전반에 걸쳐 경험한 죽음과 억압의 고통의 감정을 샬로테는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수동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감내해야 했고 저항했다. 라이트는 진실에 대한 의문에 되려 바톤 터치를 해주는 릴레이처럼 무대 위 샬로테는 이를 보는 관객들에게 던진다. 흡사 모나리자와도 같은 미소를 띠우며 변화하는 그들만의 이데올로기의 공간 속에서 어떠한 매듭으로 묶여 있는지 끊임없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라 질문을 남기게 한다. 라이트는 작품 곳곳에 편재하고 있는 중의적이고 양가적인 언어의 사용과 수집품들을 통해 샬로테에 대하여 열린 결말을 제공한다. 라이트에게 샬로테는 문제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예술이다.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샬로테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미국 뉴저지에서 만들어진 에디슨의 축음기로 오래된 왈츠와 박물관 첫 번째 방에서 라이트와의 인터뷰가 녹음된 테이프를 재생시켜 우리에게 들려준다. 미국의 극장에서 20세기의 독일인 샬로테와 21세기의 라이트 그리고 현재의 관객들이 함께한다. 라이트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부러 설명하려 하지 않고 결말의 매듭을 짓지 않는다.

유럽 유대인의 절멸이라는 사건 역시, 어떤 다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듯 표상하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아감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온갖 사건들을 표상하려고 할 때 사용해온 전통적인 카테고리들 점검해 보게 만드는 사건, 어떤 하나의 한계에 위치하는 사건인 아우슈비츠의 유일무이한 고유성에 동의하지만, ‘말해질 수 없음’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단 학살에 대해 특권적인 신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계했다. 아감벤은 레비를 통해 아우슈비츠의 어두운 과거와 수용소라는 배제의 공간을 생명정치의 예로 설명하고 있다. 기억과 증언 그리고 증인이 될 조건에 대해 레비는 돌아오지 못한 자들로 한정 하고 있지만, 아감벤은 이런 특수 공간에서의 증언들로 드러내려고 한다. 말할 수 없거나 불가해 하다는 것은 신성불가침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두운 과거는 반드시 말하여져야 한다.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응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살아남은 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고 증언하는 의무를 맡았다. 증언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라이트의 연극이나 샬로테의 수

집과 전시처럼 말이다. 증언은 또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살아남은 자들에 의한 것이다. 정작 가해자들은 이러한 감정 또한 느끼지 못한다. 살아남은 자들 혹은 소외되어진 자들이 수치심이 아닌 말하는 자유를 갖게 하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그리고 또한 조예와 비오스가 모두 포함되고 배제되기 위해 우리는 서양에 국한된 것이 아닌 비서구권에서 자행되어온 소수 문화와 인간이 아닌 생물로 그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여 이들의 증언이 가능해지도록 잘 들어주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 참고문헌

- 아스만. 알라이다, 『기억의 공간』, 변학수, 채연숙 옮김, 서울: 그린비, 2011.
- 라카프라. 도미니, 『치유의 역사학으로』, 육영수 옮김, 서울: 푸른역사, 2008.
- 아감벤. 조르조, 『호모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 레비. 프리모,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가 인생 최후에 남긴 유서』, 이소영 옮김, 서울: 돌베개, 2014.
- \_\_\_\_\_, 『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옮김, 서울: 돌베개, 2007.
- Spivak. Gayatri Chakravorty,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울: 그린비, 2013.
- Agamben. Giorgio, *Remnants of Auschwitz*, trans. Daniel Heller-Roazen, Zone Books, 1999.
- Bettelheim. Bruno, *Surviving and Other Essays*, New York: Vintage Books, 1979.
- Bisaha. David, “Visualizing Postmemory on Documentary Stages: Postmemorial Dramaturgies in Annulla: An Autobiography and *I Am My Own Wife*.”, *Text & Presentation* 3. 235 (2013): 184-200.
- Cannon. Joann, “Memory and testimony in Primo Levi and Giorgio Bassani”,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Italian Novel*, ed. by Peter Bondanella & Andrea Ciccarelli, New York, Cambridge UP, 2003.
- Christopher. Arnott, “Review: ‘*I Am My Own Wife*’ Gets Young, Fresh-Faced Makeover at Long Wharf.”, *Hartford Courant*, 13 Feb. 2020.
- Constantakis. Sara, Anne Marie Hacht, and Ira Mark Mile, *Drama for students* 23 (2006): 163-78.
- Dunlap, David. “Personalizing Nazis’ Homosexual Victims” *The New York Times*. 26 June. (1995): Section A, 1.
- Giersdorf. Jens Richard, “Why Does Charlotte von Mahlsdorf Curtsy? Representations of National Queerness in a Transvestite Hero.”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2.2 (2006): 171-96.
- Hirschfeld. Magnus, *Transvestites: The Erotic Drive to Cross-dress*. Buffalo,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1.
- Jake. Newsome, “Homosexuals After The Holocaust: Sexual Citizenship and

- The Politics of Memory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1945-2008." Doctor of Philosophy, The University at Buffalo, 2016.
- Jones. Kenneth, "Playbill on-Line's Brief Encounter with Doug Wright." Playbill.Com, 5 April. 2004.
- Schiavi. Michael R, "The Tease of Truth: Seduction, Verisimilitude(?), and Spectatorship in *I Am My Own Wife*." *Theatre Journal*, Johns Hopkins UP 58.2 (2006): 195-220.
- Simmel. Georg,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New York: Free Press, 1950.
- Wright. Doug, *I Am My Own Wife: Studies for A Play about The Life of Charlotte von Mahlsdorf*, New York: Faber and Faber, 2004.
- \_\_\_\_\_, *I Am My Own Wife*, New York: Dramatists Play Service, 2005.

## Abstract

# Creating a Testimony Space through Memories in Doug Wright's *I Am My Own Wife*

Lee Bohyun

This paper aims to discuss resistance to the boundaries performed by the space of memory through testimony in Doug Wright's *I Am My Own Wife*. It is a documentary play detailing the startling life of Charlotte von Mahlsdorf, an antique collector and transvestite who survived Nazi occupation and the communist regime in East Germany in the 20th century. He used Verbatim-style plays, not just writing as other testimonies. The play shows the injustice and exclusion of the social system that Charlotte had to go through as a homosexual and transvestite. Using various tools, he reproduced Charlotte as a protagonist in his play by mixing fiction and truth.

This also examines Charlotte's reaction to the oppressions that she had to suffer and analyzes the process of resistance. Also, Charlotte recorded through objects, and displayed them to try new resistance. Because Charlotte's reaction is the repression that an individual had to undergo and the pain he suffered. It is explained with spatial discourse that the way Charlotte resisted this oppression and recorded and displayed it through objects. In order for her to prove herself in a social system, she displays the collections to the next generation through the museum to hand down the history. It also presents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alienated life that we have also experienced since the past that is ubiquitous around us today.

## Key Words

Doug Wright, *I am my own wife*, memory, testimony, holocaust





## 예외상태 속 공간의 기억 —콜슨 화이트헤드의 『니켈 보이즈』\*

김 정 은

### 1. 서론

본 논문의 제목에서 ‘기억의 공간’이 아닌 ‘공간의 기억’이라 지칭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이다. 유도라 웰티(Eudora Welty)의 『한 작가의 시작』(*One Writer's Beginnings*)에 따르면, 기억은 움직이는 것이며,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인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겹침이 아닌 상이할 수 있는 기억들이 서로 더해져 과거와 현재가 합쳐짐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상이한 기억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이중, 더 나아가 다중의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단지 기억의 부수적인 조건으로만 취급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간이라는 한정된 조건은 기억이라는 것과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이는 공간이 다양한 주체의 기억으로 포함되는 관계인 충분조건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기억하는 주체, 즉 정의역에 따라 그 의미, 즉 공역이라 일컫는 함수의 값이 다르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주체들의 기억은 예외적 공간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들은 하나의 값에 도달할 수 없으며, 동시에 다양한 의미해석, 즉 다양한 주체들의 서로 다른 의미부여라는 결과에 이른다.<sup>1)</sup> 공적 기관으로서의 20세기 미국의 교정시설은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기억들이 하나의 값, 즉 하나의 공통된 의미로 귀

7) 본 논문은 필자의 2021년 석사논문에 수록된 본론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필자가 ‘조건’(condition)이라는 용어를 수학적 명제관계를 빌어 기억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억과 공간의 관계가 어느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포함관계가 달라지며 그러한 관계성에 있어 불명확함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수학적 명제를 통해 필자의 주장을 편이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필자가 공간을 기억에 포함시켜 사고하고자 하는 것은 주체에게 주어진 특수한 시대적, 공간적 사유가 주체에 귀속되어있음, 다시 말해 개인적 기억이 동일 할 수 없음을 보이고자하는 의도이다.

결되지 않음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미국 교정시설은 합법화된 폭력이 작동하며, 특히 교정시설 속 흑인 소년들은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21세기 현재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공권력의 횡포는 교정시설 내부에서 동시에, 외부, 즉 일상생활에서조차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이는 미국만을 단정 짓는 문제가 아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이 보장되지 못함을 확연히 드러내는 지점이기도하다.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정의라는 관점으로 재조명할 수 있다.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도덕적 시각으로 정의를 재조명하는 것과 같이, 법제도라는 제한적 범주에서의 정의를 벗어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정의’는 이를 실행하는 주체의 시각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된다(20). 윤리적 차원의 ‘정의’를 정의내림에 있어서 도덕적 딜레마<sup>2)</sup>는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다.

니켈 아카데미는 동일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다양한 주체들의 기억에 따라 유토피아적 공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디스토피아적 공간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콜슨 화이트헤드(Colson Whitehead)의 『니켈 보이즈』(*The Nickel Boys*)에서, 니켈 아카데미의 “비밀 묘지”(Whitehead<sup>3)</sup> 4)는 이러한 공간이 기억이라는 정의역에 포함되는 충분조건을 잘 드러내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니켈 아카데미에 대한 다각적 시각은 니켈 아카데미를 직시하는 주체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 비밀 묘지인 셈이다. 비가시적 공간이 구체화되는 공간인 니켈 아카데미에서의 백인 사람들은 비상식적 원칙을 정당화하여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흑인 소년들 위에 군림한다. 반면에 백인 사람들의 비-인륜적 법, 규칙으로 인해, 디스토피아적 공간이자 죽음정치의 공간인 니켈 아카데미에서의 흑인 소년들은 탈출과 죽음 외에는 어떠한 삶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흑인 소년들에게 있어 니켈 아카데미는 ‘예외상태’(Agamben, *State*<sup>4)</sup> 4)이며, 동시에 이들은 ‘벌거벗은 생명’(Agamben, *Homo*<sup>5)</sup> 9-10)이 된다. 바로 비밀묘지에서 발굴된 수많은 훼손된 뼈 조각들(5)이 이를 증명해 보인다. 죽은 이들은 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롯

2) “정의와 부당함,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Sandel 27)을 둘러싼 논쟁은 도덕적 사고의 근간을 형성하는 정치철학의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마지막 장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연구에 윤리와 도덕을 구분지어 확장시킬 필요는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확장시켜 볼 만하다.

3) 이후 쪽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4) 이후 SE로 약기하겠다.

5) 이후 HS로 약기하겠다.

이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과 무덤 속 잔해들에 의존해 이들의 죽음을 가늠할 수 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뼈 조각들의 신뢰성은 차치하고 서라도,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에 대해 온전한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 II. ‘예외상태’의 공간, 니켈 아카데미

니켈 아카데미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주체의 기억으로 포함되는 관계인 충분조건에 해당되며, 동시에 동일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다양한 주체들의 기억에 따라 유토피아적 공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디스토피아적 공간이 되는 곳, 다시 말해 죽음 정치적 공간이 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성의 역사』에서 ‘공간’에 대한 사유를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의 에피스테메에서 일부 벗어나 그의 에피스테메는 역사와 관련한 것으로 간주한다(163-64). 일부 학자들은 이를 토머스 쿤(Thomas Samuel Kuhn)의 ‘패러다임’과 유사하게 간주하기도 하는데, 원래 에피스테메라는 말은 플라톤의 『국가』 편에 나오는 것으로서 진리를 포착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푸코에게 있어 에피스테메는 관점과 같은 것으로서, 일정한 시대나 공간 안에서 어떤 형태의 패러다임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세와 근대의 패러다임은 확연히 다르다. 『감시와 처벌』과 『윤리학』(*Ethics*)에서 푸코는 이를 에피스테메라는 맥락에서 추적하면서, 근대의 에피스테메가 중세의 그것과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시대적, 공간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구조적, 관점적 맥락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었다고 본다. 특히, 그는 규율권력으로 대표되는 판옵티콘을 구조적 관점으로서의 에피스테메로 간주할 수 있다(*Ethics* 203). 이는 공간 자체가 이미 일정한, 그러나 고착되어있는 구조가 아닌, 구조 속에서 일정한 조건에서 나름의 인식의 조건 지움, 즉 인식체계, 에피스테메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물질적 인식조건, 즉 시대나 공간에 따라서 어떤 개인이 벗어나기가 힘든 조건인 것이다. 푸코는 사물과 지식의 권력 관계, 즉 일정 시기에 고정된 것이 아닌,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의 주체와 권력에 집중한다(*Ethics* 54, 59, 288, 292, 296, 298).

이 지점에서 니켈 아카데미의 공간적 인식조건을 푸코의 판옵티콘과 일정 부분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역사적,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푸코의 관점과 유사하게,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시각에서 ‘공간’이란, 그저 있음이며, 동시에 곁에 있음이며, 권력으로 인해 배제와 포함의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주체에게 주어진 특수한 시간과 공간속으로 주권 권력이 침투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공간권력은 일반적 개인, 즉 주체가 특수한 공간을 항상 곁에 있는 것으로서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체는 주권권력에 의해 압도당한다. 아감벤은 『목적 없는 수단』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비인간적 조건이 실현됐던 장소”로서 수용소(concentration camps)의 법적-정치적 구조를 문제시하며, 수용소를 “예외상태가 규칙이 되기 시작할 때 열리는 공간”으로 상정한다(47, 49). 다시 말해, 아감벤이 『호모 사케르』 『아우슈비츠』 『예외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듯이, 법이 전면적으로 중지되는 예외적 공간인 수용소에서의 주체는, 주권권력이 예외상태를 결정하고, 예외상태가 안정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에서 주체는 별거벗은 생명이 된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국가 기관 폭력의 희생자이자 별거벗은 생명으로서 흑인 소년들의 죽음과 증언을 문제시한다. 소설 속 니켈 아카데미는 소년 교화시설로서 합법화된 폭력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며, 동시에 아감벤이 아우슈비츠를 예외상태로 정의한 것과 다르지 않다. 20세기 중반 니켈 아카데미(Florida School for Boys 혹은 Arthur G. Dozier School for Boys의 별칭)는 1901년 개교를 시작으로 2011년에 폐교한 플로리다 소재 소년교정시설이며, 강간, 고문, 죽음에 가까운 노동력 착취, 인종차별과 같은 폭력이 교정이라는 명목 하에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공간이다. 20세기 중반이라는 시간적 특수성에 근거를 두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교정시설 본연의 순기능을 거스르는 예외 상태를 조장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그 자체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로마법과 관련한 제도 중 ‘법의 정지’를 근대 예외상태의 원형으로 간주하며 아감벤이 언급한 ‘법 자체의 효력 정지’가 되는 지점(SE 79)을 니켈 아카데미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니켈 아카데미에서 흑인 소년들의 죽음은 ‘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에서 행해진 것이며, 이후 이들의 죽음은 미국이라는 국가체제가 온전하다는 망상에 빠져 애도되거나 기억되지 않은 채 역사에서 망각되었다. 미국의 역사가이자 『노예제보다 더 나쁜: 파치먼 농장과 짐 크로우의 지독한 시죄법』(*Worse than Slavery: Parchman Farm and the Ordeal of Jim Crow*)의 저자 데이빗 오션스키(David M. Oshinsky)는 흑인 소년들의 죽음과 관련한 사례들을 들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미국 교정시설 내 흑인 소년들의 부당하고 가혹했던 죽음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104, 210, 238).<sup>6)</sup> 오션스키가 언급한

6) 1931년 미시시피 주에서 백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흑인 청년 톰 캐러웨이(Tom

이러한 흑인 소년들의 죽음 또한 법이 정지한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니켈 아카데미는 법의 효력이 중지되는 예외적 공간, 즉 예외상태이며, 그 곳의 주체들, 즉 흑인 소년들은 별거벗은 생명이 된다. 물론 니켈 아카데미를 수용소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니켈 아카데미는 범죄나 비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반사회적 행동 경향 등을 교정하는 목적을 가진 감화원이라는 점에서 수용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니켈 아카데미를 예외상태인 수용소와 동일시하는 것은 열린 공간으로서의 니켈 아카데미가 학교라는 일상적 공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내부, 즉 흑인 소년들에게 있어서 니켈 아카데미는 “예외와 규칙, 합법과 불법이 구별되지 않는 공간”(HS 181), 다시 말해 “포함적 배제”(7)의 관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감벤에 따르면, 이 공간은 계엄령이나 비상사태에 따라 작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형법에 따른 것이지만, 흑인 소년들에게 있어 니켈 아카데미는 합법과 불법이 구분되지 않는 폭력의 주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수용소와 다름없는 것이다. 『니켈 보이즈』의 배경이 되는 교정시설을 예외상태로 상정하는 것과 관련한 역사적 근거를 흑인 노예 해방의 법적 근거가 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13<sup>th</sup> Amendment)에서 엿볼 수 있다. 비록 노예제와 교정시설을 동일시하는 것이 비약일 수는 있으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미국 교정시설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수정헌법은 완벽한 노예 해방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미국 시민권을 보장한 것이지만, 미국 남부의 경제를 지탱해준 노예들의 자유로 인해 남부 백인들의 경제가 유지되지 않자, 이들은 수정헌법을 악용하기 시작한다.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즉 범죄자를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수

---

Carraway)는 백인 시민들에 의해 린치를 면한 “미시시피 최초의 흑인”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Oshinsky 104). 당시 대부분의 흑인들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캐러웨이의 재판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것이었다. 1934년 앨라배마 주에서는 두 명의 백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흑인 청소년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이어 미시시피 당국은 백인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흑인 3명을 체포한다. 이후 이들은 “흑인 테러리스트”와 “육망으로 가득 찬 악당들”이라 묘사되고, 이들의 수사를 위해 주 당국의 인력이 총동원된다(Oshinsky 210). 이 외에도 교정시설 흑인 소년들을 향한 부당한 폭력들은 만연하였고, 심지어 소매치기 혐의로 르폴로 카운티 교도소(the Leflore County prison farm)에서 90일간 복역한 14세 흑인 소년은 관리자의 총에 맞아 실명되고 영구적 뇌 손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파치먼 교도소(Parchman)에서의 시위대 학대와 관련한 일들이 비밀비재하였다 (Oshinsky 238-39). 물론 학대를 당한 이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게는 되나, 금전적 보상이 이들의 고통을 대변할리는 만무하다.

많은 해방 노예들은 비합리적 죄목으로 수감된다. 매튜 만치니(Matthew Mancini)에 따르면, 노예 대신 범죄자를 양산해 1866년을 시작으로 1928년 미국 남부에서 이루어진 합법화된 노예 제도의 한 형태인 ‘죄수 임대(Convict Leasing)’ 방식으로 남부 경제를 지탱할 빌미를 제공하였다(23, 54). 이러한 19세기 노예 해방 이후 교정시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수용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엘우드(Elwood)와 같은 니켈 아카데미의 흑인 소년들은 국가가 정해 놓은 법이라는 구조 속에서 또 다른 법, 즉 교도소 백인들이 정해 놓은 법에 따라 정당화된 폭력에 노출된다. 이는 아감벤이 언급한 법의 힘이 정지되는 순간, 즉 “유스티티움”(Iustitium)(SE 79, 82, 83, 98, 99-101)과 같다. 흑인 소년들은 예외가 상례가 되는 지점에서 법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곳에 놓인다. 수용소와 같이 니켈 아카데미는 권력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닌 법의 힘이 정지되어 있는 즉, 예외가 상례가 되고, 동시에 규칙이 되는 곳으로서 예외 상태가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공간이다. 인권유린과 무차별적 폭력에 노출된 흑인 소년들은 교정시설에 입소되기 전 그들에게 매겨진 죄의 형량을 통해서도, 이미 이들이 교정시설 밖에서 조차 예외상태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법무부 사법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1950-60년대 인종별, 지역별 죄수 수감율은 흑인이 전체 수감자의 54%를 넘으며 남부지역에 집중되어있었다(Cahalan 104, 109, 136). 이들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학교(Training School)라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니켈 아카데미에 수감된 흑인 소년들의 죄목과 형량을 통해서도 다시금 가늠할 수 있다. 『니켈 보이즈』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엘우드는 차량 절도범으로 누명을 쓴 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니켈 아카데미에 수감된다. 정당한 법적 절차란, 죄를 지었다고 판단이 되면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유죄 및 형에 따라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엘우드에게 있어서 법은, 어떠한 적법한 절차 없이 그를 인종주의에 적나라하게 노출시킨다. 법은 더 이상 엘우드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다. 엘우드는 미국의 법적 보호망에 포함된 자이자, 동시에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배제된, 즉 아감벤이 언급하는 “포함적 배제”(HS 7)가 적용되는 별거벗은 생명, 즉 호모 사케르로 전락한다.

더 나아가 니켈 아카데미 내부는 극단적 예외상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공간이다. 니켈 아카데미는 수정헌법 제13조의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공간이자, 동시에 ‘분리되어있지만 평등하다’는 역설적 사회지위를 부여한 짐 크로우 법이 적용되

는 공간이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 내 흑인 소년들은 호모 사케르와 다름 아니며, 이들 주권의 대리자로서 니켈 아카데미의 백인 사감들은 흑인 소년들에 대해 생사여탈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살여탈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다. 백인 사감들에게 귀속된 생사여탈권은 그들에게 부여된 일상화된 특권이다. 이러한 특권은 극한의 처벌을 상징하는 ‘화이트 하우스’에서의 ‘블랙 뷰티’라는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펜서(Spencer)와 얼(Earl)과 같은 사감들에게 부여된다(68). 푸코에 따르면, 공개처형과 같은 잔혹한 방식이 일상화되었던 봉건제의 경우, 군주의 보호와 고유한 존속을 조건으로 군주가 신민들의 생사여탈권, 즉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잠시 사형이 집행 유예된 삶으로 여기며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예속된다(『성의 역사』 153-54). 스펜서나 얼과 같은 백인 사감들은 봉건제 주권군주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극한의 공포를 생산하는 화이트 하우스는 아감벤이 말하는 생명정치의 맥락에서 ‘포함적 배제’이자, 동시에 ‘배제적 포함’과 같은 이율배반적 이중성이 팽배한 예외상태로 해석되는 공간이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화이트 하우스는 흑인 소년들에게 있어 백인 소년들과는 분리, 제한된 공간이며, 무차별적 폭력이 정점을 이루는 공간이다. 아카데미, 즉 학교가 정한 규율을 지키지 못한 흑인 소년들은 정당한 법이 집행되어야 하는 기관에서 무차별적이고 합법적이지 못한 폭력으로 인해 이중적 배제를 당하게 된다. 화이트 하우스는 백인들이 정해 놓은 그들만의 법을 집행하는 공간으로, 니켈 아카데미의 소년들은 그 법에 복종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68). 다음으로, 화이트 하우스는 백악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백인의 집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는 백인들만이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해석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화이트 하우스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인 동시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비상식적 폭력을 상징하는 썸이다. 이러한 상징성은 소설의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니켈(nickel)은 하프-다임(half-dime) 또는 5센트를 지칭하며, 흰색에 가까운 은색을 띤다. 이는 백인의 피부색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니켈 아카데미에 있던 아이들의 삶이 5센트 보다 못한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5센트보다 못한 흑인 소년들의 삶을 스스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종주의에 노출된 그들의 삶을 빗대어 그려낸다.

### Ⅲ. ‘회색지대’에서의 파편적 기억

니켈 아카데미는 예외상태의 공간이며, 여기에서 흑인 소년들은 ‘회색지대’(the gray zone)에 놓인다. 회색지대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예루살렘 아이히만』에서 제시된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과 연결된다. 그 이유는 회색지대가 선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지점이며, 악에 대한 무분별적 사고는 비윤리적 행동의 극단적 일상들을 가시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니켈 아카데미를 예외상태로 상정하고 흑인 소년들이 감당해야 할 악의 상투성과 회색지대를 이들이 처한 현실과 동일시 하고자 한다.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동시에 사유의 불가능 상태에서는 언어가 대화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도 적용 가능하다. 프리모 레비(Primo Levi)는 니체가 말하는 선과 악의 ‘ *너머* (*beyond*, 원문 이탈리아), 즉 ‘인간 이상의 인간’(overman, Übermensch)이 아닌, 인간 이하의 인간 ‘*앞* (*before*, 원문 이탈리아)에 존재하는 무책임과 ‘판결 불능’의 영역에서의 악의 평범성을 말한다(『가라앉은』 21). 이는 레비가 제시한 회색지대와 상응한다. 레비에 따르면, 회색지대는 이분법적 인식의 틀을 깨고 라거, 즉 수용소의 현실을 드러내어 사고하고 동시에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사실의 문제에는 법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비법률적인 요소가 존재하며, 윤리적 범주의 사실과 ‘기관력의 산출’이 주목적인 법적 범주의 것이 암묵적으로 혼동됨을 드러낸다(RA 17-9). 이는 한스 요나스(Hans Jonas)가 변신론의 타협적인 악습을 수용소에 적용시켜 정당화하려는 설명과도 맞물리는 지점이다(20). 이 지점에서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 레비의 회색지대라는 두 개념은 사유의 불가능성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며, 니켈 아카데미는 이러한 사유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니켈 아카데미라는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의 유예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테제와 맞닿아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교정을 통한 사회로의 진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니켈 아카데미는 폭력과 죽음에 대한 관찰자들의 기억과 망각이 뒤섞여 동일시되기도 하며, 때로는 상충하기도 하는 회색지대이다. 회색지대가 어떻게 보이는가는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기억의 공간』에서, 기억의 이중



적 형태, 즉 활성적 기능기억과 비활성적 저장기억을 제시하며, 개인적, 집단적 주체와 관련한 기억은 관점에 의존한다 본다(557). 이러한 기억의 이중성에는, 회상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다. 기억은 잠재적 능력과 유기적 실체로서의 기억을 의미하며, 회상이라는 것은 기억의 특수한 내용을 각인하고 인출하는 활동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200). 이와 유사하게, 진은영에 따르면, 기억은 재현인 동시에, 구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띤다. 과거의 일들을 모두 보관해 두고 이를 그대로 기억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을 재현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기억 발생 당시 주변의 조건들과 기억을 꼬집어내는 현재의 주변적 상황 또는 심리적 상황에 따라 기억은 재구성된다(162-63). 다시 말해, 주체의 관점에 따른 기억의 공간적 메타포는 시간적 성격을 띠게 되며, 시간적 요소가 강해질수록 망각, 재구성과 같은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아스만 221).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지점에서 망각이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망각은 파편적 기억에 따른 또 다른 기억이다. 이러한 기억들은 서로 충격을 가하면서 질충되고 보완된다. 최정에 따르면, 공간은 “공적 역사에서 망각된 주변부 존재들의 삶과 그 흔적들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 밖에 놓여진 ‘역사 바깥의 기억’과 ‘주변화 된 존재들’이 그려내는 ‘다성적 세계’”(203)를 드러낸다.

니켈 아카데미의 비밀묘지야 말로 기억과 망각이 상충되는 공간이다. “죽어서도 풀쫓거리”(3)인 수많은 흑인 소년들은 비밀묘지에 묻힌다. 이러한 비밀묘지는 니켈 아카데미가 세상으로부터 지켜온 수많은 비밀을 상징한다. 수십 년 동안 이 곳은 아무런 반항 없이 흑인 소년들을 때리고, 강간하고 살해했으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비밀의 베일에 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니켈 아카데미의 끔찍한 정책이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음으로써, 백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년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죽음을 은폐하면서도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마침내 비밀묘지에 대한 소식이 세간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이곳이 악하고 무자비한 규율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알게 된다. 비록 니켈의 소년들이 이러한 사실을 줄곧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5). 이러한 기억과 망각이 상충하는 지점은, 엘우드라는 이름으로 50여년을 살아온 터너(Turner)의 고백에서도 구체화된다(204). 터너는 엘우드와 같이 니켈 아카데미를 탈출할 때 하퍼(Harper)의 총에 맞아 쓰러진 엘우드를 버려둔 채 혼자 탈출하게 된다(201). 탈출 이후 학교로 다시 잡혀 들어갈지 모를 불안을 느끼며 터너는 엘우드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살아남기 위한 삶이 아닌, 살아야만 하기에 그의 기억 속 엘우드의 죽음은 그의 삶에

왜곡된 형태, 즉 망각으로 자리 잡게 된다. 터너는 엘우드와 엘우드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왜곡된 형태인 망각으로 그의 기억을 재구성한다.

또 다른 기억으로서의 망각은 백인 사감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얼의 인터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203). 화이트 하우스에서 행해진 흑인 소년들에 대한 비인륜적 폭행은 백인 얼의 기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닌 단순히 훈육차원의 가르침으로 기억,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왜곡된다. 이는 얼의 왜곡된 진실을 참된 진실인양 기억하고자 하는 그의 망각인 동시에,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진실을 묻고자하는 행위이다. 망각은 죄를 흐리게 만들어, 얼이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얼의 반응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은 명백하다. 1940년대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기억을 왜곡하고 망각하여 진실을 덮으려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백인들의 집단적 망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망각은 니켈 아카데미의 연례행사인 권투 대회에서 흑인 소년들의 기숙사인 클리블랜드 대표로 참가하는 그리프(Griff)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드러난다. 백인 사감 스펜서는 그리프에게 경기를 질 것을 요구했으나, 그리프는 스펜서가 요구하는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스펜서가 조장한 승부조작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후 그리프는 백인 기숙사, 루즈벨트로 끌려가고, 이렇게 그리프의 죽음은 무성한 소문과 짐작만을 남긴다(114). 그의 죽음을 목격한 이가 없다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증언할 이도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기에서 저주지 않은 이유조차 그리프 본인 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가 떡갈나무 쇠고리에 묶여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형태의 잔혹한 죽음을 당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는 그리프 자신만이 알 뿐, 학교의 다른 흑인 소년들은 그저 떡갈나무 쇠고리에 묶인 채 죽어갔을 것이라 짐작만 할 뿐, 극단적 예외상태에서의 그리프의 죽음은 흑인 소년들에게는 일상이었던 니켈 아카데미에 대한 집단적 망각인 셈이다.

그렇다면 예외상태인 회색지대에서의 니켈 아카데미에 대한 기억을 모두 망각으로 치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50년 뒤 비밀 묘지가 드러났을 때, 검시관들은 부러진 손목뼈의 잔해를 통해 쇠고리에 묶였을 거라 ‘추정’하며, 더 많은 과학적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만 하는 것과 같이, 아우슈비츠의 무젤만과 다름 아닌 그리프와 엘우드의 죽음은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실을 증명해 보일 수 없다. 단지 이러한 온전한 증인의 부재로 인해 진

실은 묻혀야만 하는 것인가. 이 지점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 즉 ‘의사-증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의 증언은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파편적 기억은 증언으로서 가치를 가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파편적 기억에 왜곡된 기억인 망각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은 온전한 증언으로서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다. 기억의 왜곡과 증언의 관계에 있어, 죽은 자들의 죽음에 대한 증언은 기억과 망각, 사실과 진실의 공백에 위치한다. 이러한 공백은 아감벤이 아우슈비츠의 문제를 “역사 인식의 아포리아”(Remnants<sup>7)</sup> 12)로 보는 것과 같이, 수용소의 문제를 어떻게 입증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즉 진실과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상응한다. 레비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증언은 공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백은 증언의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살아남은 자들이 증언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49-50).

이러한 증언의 공백은 니켈 아카데미의 고문 장소인 화이트 하우스와 관련한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니켈 아카데미의 백인 사감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얼은 비밀묘지 발굴 이후 기자회견에서 흑인 소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고문을 “단지 훈육차원의 가르침 정도였다”(203)고 말한다. 그렇다면 비밀묘지에서 발굴된 아이들의 훼손된 뼈 조각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단순히 훈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결과물이 존재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 나아가 살아 돌아온 흑인 소년들의 증언 또한 진실과 사실 사이, 즉 공백에 위치한다. 이들의 증언은 과거 니켈 아카데미에서의 파편적 기억들의 집합이자, 동시에 왜곡된 기억으로 온전한 증언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죽은 자들의 죽음에 대한 증언은 기억과 망각, 사실과 진실의 공백에 위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니켈 아카데미라는 예외상태에서 터너와 같은 남은 자들의 기억은 증언의 공백과 결부된다. 구체적으로, 흑인 소년들의 경우에는 화이트 하우스와 떡갈나무에 박힌 쇠고리가, 백인 사감들에게는 블랙뷰티의 용도가 회색지대에 놓인 증언의 공백이 된다. 아감벤에게 있어 증언의 공백은 회색지대에 위치하며, 그는 회색지대의 극단적 예로 수용소의 ‘특수 작업반’(SS<sup>8)</sup>)을 제시한다. 이러한 회색지대는

7) 이후 RA로 약기하겠다.

8) ‘특수 작업반’은 나치친위대(Schutzstaffel, SS)는 가스실과 화장로 관리 책임을 맡은 이들 수인 집단을 가리키기 위해 ‘특수 작업반’이라는 완곡어법을 사용했다. 그들의 임무는 벌거벗긴 수인, 무젤만들을 가스실로 이끌고 가서 죽음을 맞게 하고, 그들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체를 화장로로 가져가 소각되는 것을 지켜보고, 타고 남은 재를 아궁이에서 비워내는 일을 했다(RA 35-36).

모든 윤리적 판단이 유보되는 공간이며, 특수 작업반은 무젤만의 죽음을 지켜본 또 다른 수인이라는 측면에서 터너와 같으며, 이들 모두 죽은 이들의 죽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들과 죽음을 지켜본 이들 사이에 증언의 공백이 생김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화이트헤드는 엘우드로 살아간 터너를 통해 증언하기를 시도하며 터너의 침묵과 말들에 증언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는 증언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증언하는 것, 즉 ‘무젤만을 증언하는 것’과 상응한다. 엘우드의 죽음에 대해 오랜 시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터너의 말하기, 즉 증언은 침묵이라는 또 다른 말하기를 넘어 진실 캐내기라는 담화로 발전하게 된다.

아감벤은 ‘담화—사건’에 집중하며, 언어에서 담화로의 이행을 주체화와 탈주체화를 동시에 내포하는 역설적 행위라 주장한다(*RA* 116-17). 아감벤에 따르면, ‘언표화’는 언표되는 텍스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말을 한다는 사건 자체와 자신을 일체화하는 조건하에서 가능해진다. 이러한 언표화의 주체는 담화로 구성되고, 동시에 담화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주체가 담화 속에 있는 한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따라서 그는 말할 수 없음, 즉 ‘담화—사건’의 절대적 현재 속에서는 주체화와 탈주체화가 매순간 일치하므로, 살아있는 개인도 언표화의 주체도 완전히 침묵하게 된다. 그렇다면, 증언의 주체가 침묵하는 이들에게만 유효한 것인가. 아감벤은 “증언의 주체는 탈주체화를 증언하는 자”이며, 모든 증언은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흐름이 부단히 가로지르는 힘들의 장이라는 사실이 기억될 때에 비로소 유효하다고 본다(120-21).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주체화와 탈주체화를 모두 포함하는 역설적 행위이며, ‘개별 생명체’는 언어의 완전한 박탈로만 언어를 전유하며, 동시에 침묵에 빠지는 조건에서만 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129). 따라서 증언은 맞물림의 ‘비-장소’에서 생겨나며, 이곳에 기록이 아닌 증인이 존재한다(130). 레비에 따르면, 바닥을 경험한 자, 고르곤을 본 자, 즉 무젤만만이 온전한 증인이며, 인간성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한 자라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틈은 존재하고, 이러한 남겨짐, 즉 틈에 증인이 남게 된다(133-34). 결론적으로, 인간은 인간의 비-장소에, 생명체와 말, 즉 로고스 사이의 어긋난 맞물림 속에 실존하며, 다시 말해 인간성과 비인간성,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흐름, 생명을 지닌 존재자가 말을 하게 되는 흐름과 말이 생명을 지닌 존재자가 통과하는 중심적 ‘문턱’에 증언이 존재하는 것이다(135).

이러한 관점에서, 아감벤은 증언과 증언의 주체의 문제를 아우슈비츠의 생존

자와 무젤만으로 상정하고, 증언의 주체를 탈주체화를 증언하는 자라고 본다. 그 이유는 모든 증언에 주체화와 탈주체화 과정이 혼재하기 때문이다(147-48). 다시 말해, 말하기는 주체화와 탈주체화를 포함하는 역설적인 행위이고, 무젤만과 증인의 관계는 말함의 잠재성과 비-잠재성 사이의 분리 불가능한 친밀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151). 아감벤의 주장은 무젤만이 온전한 증인이라는 레비의 역설과 상응하며, 비샤(Marie François Xavier Bichat)의 복수의 죽음으로 분리되어있는 삶이라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살아남는 것이 비인간적이든, 유기체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삶은 생존 그 자체, 즉 살아남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끝없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은 끝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남음’은 20세기 생명정치의 특징인 ‘더 이상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닌, 살아남게 하는 것’이라는 아감벤의 생명정치적 관점과도 상응하는 부분이다(155). 아우슈비츠가 증언 불가능한 장소이고 무젤만의 증언이 절대 불가능하다면,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즉 증인들은 무젤만과 같이 죽은 자도 아니고 살아남은 자도 아닌, 그들 사이에 남은 것(164)이라 할 수 있다. 무젤만들에게 있어 증언 불가능성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164). 아감벤은 이러한 ‘남음’의 문제를 증언의 불가능성과 연결시키며, 증언은 비-장소에서 발생하고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증언이 있다고 본다(158).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과정이 공존하며, 동시에 교차하는, 그러나 결코 일치할 수는 없는 ‘문턱’에 주목해야한다. 아감벤은 무젤만의 ‘침묵의 증언’을 통해, 즉 언어 안에서 말할 수 없음을 전제로, 증언의 가능성을 찾기를 요구한다.

터너와 같은 주체는 말하기의 불가능 속에서 침묵하게 된다. 다시 말해, 완전한 언어의 박탈, 즉 침묵이라는 조건에서 인간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며, 이러한 증언과 증인의 이중적 구조에 터너와 같은 의사-증인의 증언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온전한 증언이라 할 수 없는 터너의 침묵은 증언의 불일치, 즉 온전한 증언과 거짓 증언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렇듯 증언과 말하기, 생존자와 죽어서 말할 수 없는 존재인 무젤만은 증언이라는 가능성 여부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감벤에 따르면, “증인의 자격은 그가 말할 수 없음의 이름으로만 온전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즉, 이는 그 또는 그녀의 주체됨에 있는 것이다”(RA 232). 말하기의 불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만 증언이 나타나며, 탈주체화가 발생하는 곳에서만 증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언과 말하기는 증언의 존재 여부와 남은 자들에게 부여된 의사-증인들의 기억이라는 문제

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듯 기억으로서의 역사는 언어화의 유무로 구분된다. 언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크게 말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류되며, 말해진 역사는 그 자체로 신뢰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레비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와 『이것이 인간인가』에서와 같이, 침묵이라는 또 다른 말해짐으로 증언의 역사는 공식화된다. 터너는 침묵과 말하기 사이에서 50여년의 세월을 보낸다. 긴 세월 그의 침묵은 니켈 아카데미에 대한 공포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침묵 그 자체로 그가 말하기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엘우드 죽음의 사건을 간과한 것에 대한 터너의 침묵은 레비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서 언급한 “쓸데없는 폭력”(126)을 자행한 엘우드에 대한 죄책감이자, 살인에 대해 침묵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기도 하다. 자살하는 그날까지 레비의 몸에서 없어지지 않은, 심지어 죽어서도 그의 몸에 그리고 그의 비석에 새겨진 수인 번호 '174517'과 같이, 터너의 증언 이후 자신의 이름 ‘잭 터너’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레비의 수인번호와 같은 마음 속 각인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IV. 기억의 불완전성과 증언으로서의 침묵

살아 돌아온 자들의 기억은 불완전하며, 왜곡된 형태로 존재한다. 왜곡된 기억, 즉 망각은 온전한 증언이 아니다. 그러나 침묵은 증언으로서 그 기능을 실행한다. 침묵을 거론하기에 앞서 죽은 자와 산자의 공간과 사건에 대한 기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 속 비밀묘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기억이 통합되는 공간이다. 백인 사감들은 도록을 한 흑인 소년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를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회피시키고 안심시키고자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바로 비밀묘지에서 발굴된 수많은 훼손된 뼈 조각들(5)이 이를 증명해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죽은 자들을 기억함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통합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산 자에게 있어 죽은 자의 죽음은 트라우마로 남으며, 이는 산 자의 남은 생에 지속되고, 죽은 자에 대한 기억과 망각으로 산 자들의 남은 생은 유지된다. 이러한 산 자의 망각은 죽은 자와의 통합을 가져온다. 더 나아가 한 고고학 학생의 입장에서 니켈 아카데미의 비밀묘지(3)는 역사 그리고 기억과 망각의 공간이다. 타인에 대한 죽음을 들춰냄으로써 묻힌 역사를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의 계보학적 역사의 공간에 비밀묘지를 위치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

는 전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과 망각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사실과 진실의 공백에 위치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백은 문헌 죽음을 들춰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터너가 엘우드<sup>9)</sup>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블라드미르 장켈레비치(Vladimir Jankélévitch)가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죽음, 즉 타인의 죽음을 자신의 것과 비-동일시하며 동시에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기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과 상응한다(185). 터너에게 있어 니켈 아카데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의 죽음과 고통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이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점 또한 아이러니하다.

다시 기억으로 돌아가, 증언으로서 가치를 부여받는 남은 자들의 기억은 과거의 것이자, 동시에 미래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고통을 수반하며, 미래에도 지속된다. 고통을 수반한 기억은 흑인 소년들의 죽음을 파헤치는 작업을 통해 증언이 된다. 이러한 시간성의 개념에서 기억과 증언의 관계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기무라 빈(Kimura Bin)의 시간적 개념<sup>9)</sup>을 기억과 증언의 관계에 적용시켜 보자면, 산자의 기억은 안테 페스툼이자 포스트 페스툼이며, 기억의 일부로서 증언은 이 둘 중간에 위치하는 인트라 페스툼이라 할 수 있다. 인트라 페스툼에 위치한 증언은 과거이자 동시에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기에, 니켈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흑인 소년들의 잔혹한 죽음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현재 남은 자들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엘우드의 죽음에 대해 오랜 시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터너의 말하기, 즉 증언은 침묵이라는 또 다른 말하기를 넘어 진실 캐내기라는 담화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담화는 터너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며, 동시에 엘우드라는 이름으로 산 세월에 대한 죄책감을 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터너의 침묵은 또 다른 말하기이며, 이는 침묵의 언어에서 담화로의 이행을 통한 주체화와 탈주체화를 동시에 내포하는 역설적 행위이다. 다시 말해 완전한 언어의 박탈, 즉 침묵이라는 조건에서, 인간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과 증언의 이중적 구조에 터너와 같은 의사-증언의 증언이 가능해진다. 침묵과 말하기는 증언의 이중적 구조와 같다. 온전한 증

9) 일본 정신 의학자 기무라 빈은 시간성 분석을 통해 정신병의 근본적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둘이 길 수 없는 과거를 의미하는 라틴어 ‘포스트 페스툼’(post festum)과 ‘포스트 페스툼’과는 정반대로 미래 를 의미하는 ‘안테 페스툼’(ante festum), 그리고 ‘포스트 페스툼’과 ‘안테 페스툼’ 중간 어딘가를 의미하는 ‘인트라 페스툼’(intra festum)”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Agamben, *RA* 재인용 125-28).

언이라 할 수 없는 터너의 침묵은 즉, 또 다른 말하기로서의 증언은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는 작업이다. 이는 증언의 불일치, 즉 온전한 증언과 거짓증언의 경계에 증언의 장소가 위치하는 것이다. 아감벤이 언급한 행위로서의 증언을 하는 증인 ‘옥터’(auctor)는 말할 수 없음과 있음의 차이, 즉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단순히 목숨만을 지닌 생명체로서의 존재와 말하는 존재에 있어서의 차이, 다시 말해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과 삶을 영위하는 인간 사이에서의 차이와 통합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지닌다(*RA* 148-50). 따라서 생존자와 무젤만, 죽어서 말할 수 없는 존재는 증언이라는 가능성 여부에 있어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언어는 현존하는 것이며 반드시 기억될 수도 망각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젤만이 온전한 증인인 것이다. 즉 말하기의 불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만 증언이 나타나며, 탈주체화가 발생하는 곳에서만 증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증언과 말하기는 증인의 존재 여부와 남은 자들에게 부여된 의사-증인들의 기억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터너에게 있어 침묵은 증언의 한 형태이다. 니켈 아카데미에 대한 터너의 침묵은 그곳의 잔혹함을 차마 입 밖으로 끄집어 낼 수 없었기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침묵은 말의 중단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침묵도 아니다. 침묵과 말하기는 상호보완적이다. 말하기를 거부하거나 끝나는 지점에서 또 다른 말하기로서 침묵이 시작되는 것이다. 터너는 니켈 아카데미 폐교와 더불어 비밀요지의 발굴 이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전까지는 니켈 아카데미의 화이트 하우스에 대한 트라우마로 침묵을 일관한다. 이미 무젤만은 죽은 것과 다름없기에,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무젤만의 죽음을 죽음이라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터너의 침묵은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꺼림이자,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종의 말하기이다. 화이트헤드는 터너의 후회와 고백을 통해 말하기로서의 침묵, 더 정확히 말하자면, 증언으로서의 침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207). 터너는 과거 그의 선택이 엘우드를 죽게 했다고 믿는다. 엘우드 죽음의 방관자로서 터너는 50여년을 자신의 이름도 숨긴 채 침묵한다. 니켈 아카데미 뒤편 떡갈나무에 박힌 쇠고리와 비밀요지로부터 엘우드를 구하기 위해, 터너는 엘우드와 같이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엘우드가 부트 힐에 묻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엘우드가 묻힌 부트 힐은 과거 터너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는 공간이자, 엘우드의 죽음을 침묵으로 일관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을 함의한다. 터너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언급한다. 이러한 후회의 토로는 터너에게 있어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한 공포와 죄책감을 가진 채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터너의 일상은 니켈 아카데미의 비리를 적은 엘우드의 쪽지를 감사관들에게 전달하려한 것으로 인해 엘우드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얽매이고, 그렇게 50여년이라는 세월을 터너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증언 가능성을 부여하는 침묵은 얼의 인터뷰가 실린 신문기사(203-04)와 2014년 니켈 아카데미 관련 기자회견(207-08)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니켈 아카데미를 탈출한 이후 터너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터너는 불법으로 엘우드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 때가 1970년이었고, 사십여 년이 지난 2014년 터너는 다시 플로리다를 찾게 된다. 비밀묘지와 관련한 일이 있기 전에도 터너는 줄곧 니켈 아카데미의 소식, 터너 자신과 엘우드의 사망과 관련한 신문 기사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밀리는 니켈 아카데미와 묘지에 관련한 기사를 퇴근길에 가져와 터너에게 주곤 했다. 그녀가 가져온 신문기사 중 니켈 아카데미의 사악한 사감들 중 한 명이었던 얼의 인터뷰를 보게 된다. 얼은 지팡이를 짚고 서있는 아흔 다섯의 노인이었다. 그는 니켈의 흑인 소년을 훈육 차원에서 “기강을 ‘조금’ 잡았을 뿐”, 학대와 관련한 것은 사실무근이라 말한다(203). 이에 터너는 자기도 니켈에 있었다며, 얼의 말에 분노하게 된다. 터너의 분노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에게 니켈 아카데미에 대한 증언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터너의 결심은 2014년 비밀묘지 발굴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기자회견을 본 터너는 니켈 아카데미의 무자비한 폭력과 엘우드와 같은 흑인 소년들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하기로 결심한다. 터너는 니켈 아카데미 출신들의 증언으로 구성된 웹-사이트<sup>10)</sup>를 통해 비밀묘지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이트에 들어오는 이들은 대부분이 백인이었고, 터너는 흑인 소년들을 대변할 이가 없음에 분노하게 된다(208). 엘우드의 죽음과 니켈 아카데미의 학대와 고문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은 터너 자신이라 확신하며, 터너는 침묵이라는 그만의 말하기를 깨고 세상을 향해 진실의 목소리를 내고자 시도한다. 그에게 있어 침묵은 고백이라는 과정을 거쳐, 또 다른 말하기로서의 증언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10) theofficialwhitehouseboys.org

## V. 증언의 윤리—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

필자는 이번 장을 결론이 아닌, 증언의 윤리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금껏 본문에서 다루었던 것이 예외상태라는 공간에서의 기억과 증언이 결국에는 진실, 즉 윤리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한 것은 20세기 중반 미국 남부의 소년 교정시설인 니켈 아카데미를 예외상태로 위치시키고 교정시설 내 흑인 소년들이 겪었던 인종주의를 통해 법의 제도권 안에서 행해지는 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지점들을 찾는 것이었다. 이는 법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도덕과 윤리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흑인 소년들의 죽음이 예외상태, 즉 법 안에서 법이 정지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것이기에,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문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에도 지속되는 인종주의는 여전히 미국이라는 사회에 만연하다. 이러한 인종주의가 유독 흑인 소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21세기 현재에도 미국 사회는 예외가 상례가 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흑인 소년들은 극한의 상황이라는 교정시설에서의 인종차별을 경험하며, 짐 크로우 법이 여전히 유효한 미국 남부라는 시공간적 배경은 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 이들의 죽음 또한 온전한 죽음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외면당한다. 죽었기에 이를 증명해 보일 수 없는 흑인 소년들은 이들의 죽음을 지켜본 흑인 소년들에게 증인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비례해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은 망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러한 왜곡된 기억은 증언으로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그럼에도 흑인 소년들의 억울한 죽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는 그들과 같은 시공간에서의 기억을 공유했던 살아 돌아온 이들에게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증언이라는 문제는 예외상태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해진다. 파편적 기억으로서의 증언은 생존자들의 수십 년간의 침묵에서 드러나며, 또 다른 말하기로서의 침묵은 증언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진실 캐내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진실 캐내기는 과거의 일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21세기 현재에도 우리가 실천해야할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천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은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며, 동시에 윤리적 차원의 사유이다. 정의와 관련한 내 사유의 첫 움직임은 정의, 즉 사회적 정의를 정의내림이 아닌, 정의의 문제를 법과 도덕의 문제가 아닌,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정의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 공평과 평등의 문제와 분리 불가하다. 이는 도덕과 윤리의 차이로도 간주할 수 있다. 임마뉴엘 칸트(Immanuel Kant)는 도덕과 윤리를 구분 짓고 있다. 공평(공정)과 평등의 차이와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 책임이라는 것이 상정된다. 즉, 자유와 책임의 문제인 셈이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주체와 책임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현실에서 자유로운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유로운 주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윤리적 차원, 타자에 대한 응답과 책임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관련해서, 원인인식과 책임추궁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의 원인을 가지고 그러한 사건 발생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인을 인식하는 것과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가라타니, 『윤리 21』 50). 가라타니 고진(Karatani Kojin)에 따르면, 원인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윤리, 실천의 영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식과 윤리를 분리해야한다. 이 지점에서 ‘괄호 넣기와 빼기’가 필요하다고 가라타니는 주장한다(73). 결론적으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른다.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의 과오를 현재 우리의 삶에서 비껴나가게 한다면,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윤리 21』. 윤인으로 외 옮김. 비, 2018.
- 레비, 프리모.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소영 옮김. 돌베개, 2014.
- 아감벤, 조르조. 『목적 없는 수단: 정치에 관한 11개의 노트』. 김상운, 양창렬 옮김. 난장, 2016.
- 아스만, 알라이다. 『기억의 공간』. 변학수, 채연숙 옮김. 그린비, 2011.
- 장켈레비치, 블라디미르. 『죽음에 대하여—철학자 장켈레비치와의 대화』. 변진경 옮김. 돌베개, 2016.
- 진은영. 「기억과 망각의 아고니즘—기억의 정치학을 위한 철학적 예비고찰」. 『시대와 철학』. 21권, 1호, 2010, pp. 157-89.
- 최정. 「고통의 연대적 공감과 애도를 위한 기억과 망각의 서사—배삼식 회곡 『먼 데서 오는 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13권, 2020, pp. 195-230.
- 푸코, 미셸. 『감시와 처벌—감옥의 탄생』. 오생근 옮김. 나남, 2019.
- \_\_\_\_\_. 『성의 역사 1—지식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 2019.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lated by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UP, 1998.
- \_\_\_\_\_.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Translated by Daniel Heller-Roazen, Zone Books, 1999.
- \_\_\_\_\_. *State of Exception*. Translated by Kevin Attell, U of Chicago P, 2005.
- Cahalan, Margaret Werner. “Historical Corrections Statistics in the United States, 1850-1984.”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Dec. 1986.
- Foucault, Michel.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Edited by Paul Rainbow. Translated by Robert Hurley, et al.. *The Essential Works of Michel Foucault 1954-84*. Volume One. The New Press, 1997.
- Mancini, Matthew J. *One Dies, Get Another: Convict Leasing in the American South, 1866-1928*. U of South Carolina P. 1996.
- Oshinsky, David M. “Worse than Slavery”: Parchman Farm and the Odeal of

Jim Crow Justice. Free Press Paperbacks, 1996.

Sandel, Micha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The 13<sup>th</sup>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National Constitution Center, 1865. [constitutioncenter.org/interactive-constitution/amendment/amendment-xiii](http://constitutioncenter.org/interactive-constitution/amendment/amendment-xiii).

Welty, Eudora. *One Writer's Beginnings*. Harvard UP, 1984.

Whitehead, Colson. *The Nickel Boys*. Doubleday, 2019.

## Abstract

The Memory of the Space as the State of  
Exception in Colson Whitehead's  
*The Nickel Boys*

Jungeun Kim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place the Nickel Academy, a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y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in the mid-20th century, as the state of exception, that is the grey zone and to find points where the law's effect within the legal system is lost through racism experienced by black boys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Since their deaths are in an exceptional state, that is, a special situation in which the law is suspended under the law, we needed to question their deaths. Racism, which continues even today, is still prevalent in th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a reality that this racism is particularly concentrated on black boys. Even as of the 21st century, there are many cases in American society where exceptions are common. Above all, black boys experience racism in correctional facilities called extreme situations, and the temporal and spatial background of the southern United States, where the Jim Crow Act is still valid, makes their lives more devastated. Their deaths are also neglected without being recognized as intact deaths. Black boys, who are unable to prove this because they are dead, qualify black boys who have watched their deaths as witnesses. However, the memory of those who survived in proportion to the passage of time results in oblivion, and this distorted memory leav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as testimony. Nevertheless, it is undeniable that those who can reveal the unfair deaths of black boys are those who have returned alive

who shared memories in the same time and space as them. This problem of testimony becomes possible when the condition of exception is met. Testimony as a fragmentary memory is revealed in decades of silence among survivors, and silence as another speech serves to fill the void of testimony, at the same time enabling the search for truth. This excavating-truth is not just regarded as a matter of the past, but is also an area that we should practice even today in the 21st century. In conclusion, history encompass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f we face the history of the past and make past mistakes escape from our present lives, we expect to live a better life in the future.

**Key Words**

memory, the state of exception, grey zone, silence, testimony





# A Study on Influences of the Language Transfer given by the L1 when acquiring the L2 Tense System

Ren Yang

## 1. Introduction

The term “language transfer” was first introduced by Lado (1965), refers that when learners learn a second language, the L2 acquisition will be affected by the language structure and culture from their native language. As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Chinese and English is that Chinese is a parataxis language, while English is a hypotaxis language. This essential difference determines that Chinese people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modal of thinking from their native language when acquir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For example, Chinese has met a great challenge in acquiring the tense system in L2.

Chen (2002:14) argues that the concept of tense in Chinese indicates the ways an event changes in different domains of time. Whereas in the English, tense is a deictic category that places a situation in time with respect to some other time, usually the moment of speech, and Aspect “concerns the different perspectives which a speaker can take and express with regard to the temporal course of some event, action, process, etc.”(Klein, 1994:16). Compared to English which is a tense-marked language, Chinese can be considered as a “semi-tense language” between “tense language” and “tenseless language”. Although it does not have obvious tense markers, it can express time situations by means of nouns of time, adverbs of time, or dynamic auxiliaries such as “*le*” (Piao and Yuan, 2019: 438-439).

However, although the dynamic auxiliary “*le*” has been grammaticalized into a function word with a deictic nature for tense in Chinese, it is not completely grammaticalized and there is always a controversy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a “ontology word” or a “tense auxiliary” when being used. Under this situation, the decision is often disputed. Therefore, in order to distinguish the time points of events more clearly, Chinese has various concrete nouns and adverbs for each time, and tense in Chinese mainly depends on these time adverbs and nouns. However, the temporal relationship of events occurring in English can be reflected through verb morphology, and time adverbials are added to further illustrate the temporal relationship of the actions.

Negative transfer or native language interference occurs because people are likely to apply the thinking model of their native language to their thinking processes or cognitive processes during the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native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the acquisition process of the second language is easily interfered by the native language and thus easily to make mistakes (Zhang,2016:63). Therefore, the great difference in tense systems between the two languages directly affects the input and output of tense when translating text between Chinese and English to a large extent.

In this paper, aiming at the possible influence from native Chinese on English language during language transfer, an online test was administered to university students of a general university. The test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and the questions were designed to mix possible confusions within the same tense and between different tense types among the 11 commonly used tenses. Test 1 was to select the best Chinese translation corresponding to the English sentence; Test 2 was to select the English translation corresponding to the Chinese sentence; Test 3 was to fill in the blanks of the English sentence with the given options. The first two tests are multiple-choice with only two options, and the latter test is a multiple choice with three options. According to this test, it examines: (1) the ability to apply and recognize English tenses among college students whose native

language is Mandarin Chinese and L2 is English, (2) the ability to distinguish and judge confusing tenses, and (3) the factors causing the difficulties when the speakers with a lack of tense morphology in learning English tenses. The results imply that learners show different ability of acquisition and output within and between tenses of English, and that they ar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sentence context, foreground, time adverbial, etc., in their native language, as well as by the learners' own second language proficiency.

## II. Background

***Tense system.*** We refer to all morphemes that delivery the sense of tense in combination with verbs as “tense markers”. The tense language must bear three conditions. (1) the occurrence of a tense marker, which is also possible not to limit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verbs; (2) from the semantic level, the tense marker is sufficient to distinguish the “pre-tense/non-pre-tense”. (3) From the morphological level, tense comparisons are not only obligatory, but also can only occur in fixed positions (Piao, Yuan, 2019). For example, English is such a tense language. As usually in English, tense is marked on the verb by endings and the use of special auxiliary verbs, sometimes also located by given a temporal adverb (Saeed, 2016). And the tense system in English is a combination of “Tense” and “Aspect”. Both are grammatical categories that ex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on and time, but the difference is that Tense allows a speaker to locate situation relative to some reference point in time, most likely the time of speaking (Saeed, 2016). While Aspect, as Charles Hockett (1958:237) describes: Aspects have to do, not with the location of an event in time, but its temporal distribution or contour. In English, Tense is divided into Past Tense, Present Tense, and Future Tense, and Aspect is divided into Simple Aspect, Progressive Aspect and Perfect Aspect. Besides, in tense languages, Lyons (1977:677-8) pointed out that the future tense is both a tense and a mood category. Chinese, on the other hand, differs from

Indo-European languages in that it lacks the tortuous form of morphological change and is controversial on the topic of tense. There are four views about the tense: (1) the grammatical form reflects the sense of tense, i.e. some auxiliary verbs, such as “*zhe*”, “*le*”, “*guò*”, “*lái zhe*”, etc. (2) The lexical forms other than the predicate verbs, such as time nouns, time adverbs, time locational phrases and prepositional phrases, etc. (3) the Chinese tense can also be zero form, and its judgment is mainly based on the meaning of the predicate verb itself and the context. (4) Some verbs with grammaticalized meanings can also express tense, such as “*dǎ suàn*(intend)”, “*zhǔn bèi*(prepare)”, “*xiǎng yào*(want)” (He, Lv, 2015). According to these descriptions, Piao and Yuan (2019: 438–439) considered Chinese as a “semi-tense language”.

As for the Temporal relations, in terms of temporal expressions, events in Chinese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which is seemed as four time domains: present, past1, past2, and future. Taking the moment of speech as the reference time, a time before the present point is treated as a referent demarcation, past 1 is before this time point, and past 2 is the period from this time point to the present time(Chen, 2002:15). This fits with Reichenbach’s (1966) reference point theory of tense indication, which identifies three reference points in time: S=speech time (the time of utterance), R=Reference Time (the viewpoint or psychological vantage point adopted by the speaker), and E=Event time (the described action’s location in time). And there are three ordering relations between these points: at the same time (=), before( $\mathbf{x}<\mathbf{y}$ ) and after( $\mathbf{x}>\mathbf{y}$ ). One of the typical relations of these points is that the reference time is in the past of the speech time, setting up a secondary past, corresponding to the past perfect form, and can be displayed as  $\mathbf{E}<\mathbf{R}<\mathbf{S}$ .

***Language Transfer.*** The term “language transfer” was introduced by the American linguist Lado (1965), who argued that it is common for learners to rely excessively on their native language wh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and that learners tend to habitually transfer the linguistic forms and

meanings of their native language and their associated culture to the second language. Fries (1945) also suggests that “under the environment of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the learner’s native language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learning of the target language, and the language structures and rules of the native language are transferred to generally and gradually, especially to the beginners”. It is generally recognized by both theoreticians and language teachers that when attempting to communicate in a second language, second language learners often “transfer” elements of their native language onto the speech patterns of the target language (Gass, 1979).

Therefore, in learning English tenses, as Chinese has a large number of time adverbials and without verbal morphological changes, this will make the Chinese L2 learners rely heavily on time adverbials and thus happen to an interference in tense judgment and inter-translation. And because Chinese has a small number of vague tense markers, although it can play a certain role in differentiating tenses, it is slightly ambiguous in judgment.

### III. Research Questions

As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exploring the ability of the learners when they input or output the L2 tense system, we need to know their accuracy of using these tenses, the difficulties that might be confused of L2 tense systems and also different situations when using or translating between Chinese and English.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ddressed in this study.

- Q1. Which types of L2 tenses are easily be confused and which are not?
- Q2. Is there a difference of the accuracy between the L2 learners’ ability to input and output the L2 tense system? And to what extent they are differ in?
- Q3. What factors affected the accuracy of the L2 tense usage?

## IV. Research Methods and Data Analysis

### *Methodology*

***Procedure for the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quiz for data collection without marking the time. The quiz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was a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which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fidentiality to gain the participants' (demographic) information and their major background. The second part was a survey about their L2 learning background, which covered several questions about when participants started to learn English, years of study, English level,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and its duration, whether participants have the experience to take various kinds of English examinations and its purpose, and other relevant aspects. The third part was the formal test section, which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of test questions, examining the ability to input the L2 tense system, output the L2 tense system and also and the comprehensive ability to recognize various tenses in English, respectively.

After the online quiz has been designed, the author shared the link of the quiz to several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and university English teachers to evaluate the test in advance (4 teachers in total, 2 high school teachers and 2 university teachers). After the test being experienced, they made comments on the test level, test feeling,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question design. The author would improve the feasibility and scientific designing according to their comments, and provided the participants with a formal test link (<https://ks.wjx.top/vm/YDyCzmy.aspx>) for testing. Participants could click the link directly and then started to answer the questions, which the quiz was given without time limitation and the test section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of questions. Participants are not allowed to look up any dictionaries, reference books or ask others during the testing period, but answered the questions through their own actual knowledge and not to answer randomly. They might answer the ques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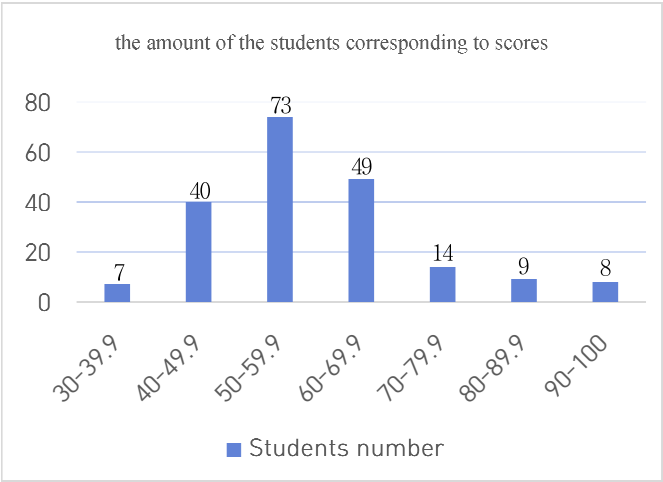
from the beginning to the final in order, or without any restriction to the questions sequence. Upon completing all the questions, they submitted their answers and were possible to receive their scores and also a feedback on correction of each question. The scores and specific answers are only visible to the participants and the author.

After the data have been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and L2 learning background of the participants were first summarized to make an analysis and also their total scores. And then, results of the three types of test question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Participants.** The test was administered to 200 students with English proficiency in different levels of a general university in Hunan Province, China, covering English majors and non-English majors, senior and junior students, and a mix of liberal arts and science students. The average age was 19.11 years old. Their first language was Mandarin Chinese(L1), and they acquired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2). Over 100 students had learned English for 6-10 years, and nearly 60 students for 10 years or more. Among the 200, three of them had studied abroad or had short-term overseas exchange and studying experience (the period for studying abroad is over 1 year and the short-term is or within 1 year). Students of both the intermediate-advanced level and basic level accounted for almost half of the amount, but the basic was greater than half while the intermediate-advanced was close to half. More than half had not taken extra training, and nearly half had (English training refers to participating in extracurricular courses, interest classes, or have private tutors, etc.). 60.5% and 21.5% had taken the *College English Test Band 4* and *6*, respectively. (*College English Test Band 4* and *6* are the most important and necessary English proficiency tests for all college students in the mainland China). The rest took the IELTS, TOEFL, TOEIC, or other types of English language tests.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taking the exams, and they can have multiple purposes at the same time. 83.5% of the students took the exam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graduation, 64% of the students took the exams to find appropriated jobs, and a few them for hobby or to study abroad. After

calculated, the average score of these 200 students are 57.98/100. The highest score is 100 and lowest is 34. More than half among 17 students whose score is over 80 are English major students.

Figure 1. the amount of the students corresponding to scores



**Test design.** This test examines L2 learners’ ability to input and output English tenses and their sensitivity to tense cues by comparing the 11 English tenses which are commonly used. The cues include time adverbials, adverbial clause, context, foregrounds, modal verbs, the Chinese auxiliary “*le*”, conjunction “*jiù*”, the adverb “*zài*”, and actions that imply temporal relationships such as “*kāi shǐ*(start)”, “*dǎ suàn*(intend)”, etc.

Based on the nature and usage of various tenses, this test compared these distinctions in detail. A total of 6 sets of distinctions between multiple uses of the same tense were formulated and were made by giving the English text with Chinese translations to choose. As the same tense is also easy to be confused with their various usages, this test set an interference from several Chinese similar translations. The next test is that 19 groups of two confusing tenses and 2 groups of confusing uses of the same tense were



distinguished. Since there is no tense system in Chines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choice of tense when translating, so this type of distinction is made by giving the English text and selecting the Chinese translation to interfere with the judgment. Finally, 20 groups were given two or more potentially possible tense options based on the English contexts. The specific test question distribution and group comparison are detailed in the Appendix.

Her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ntext and the foreground that easy to confuse which the context gives a hint of the time situation in the description of the matter and the content. In contrast, the foreground is the tense used in the main clause or one of the clauses in a complex, or compound sentence to give a reference for using the tense to other clauses or subordinate clause. We can see two examples picked out from the test questions as below.

1. měi wǎn dà gài liǎng diǎn de shí hòu, tā jiù kāi shǐ shuō mèng huà, (Q12)  
每 晚 大 概 兩 点 的 時 候, 她 就 開 始 說 夢 話,  
zhè yǒu diǎn dǎ rǎo dào wǒ men.  
這 有 点 打 扰 到 我 們。  
A. Around two o'clock every night, Sue will start talking in her dream. It will somewhat bother us.  
B. Around two o'clock every night, Sue will start talking in her dream. It somewhat bothers us.
2. kē xué jiā xiǎng yào fā xiàn zhè xiē xīn jì shù shì fǒu néng xíng. (Q14)  
科 學 家 想 要 發 現 這 些 新 技 術 是 否 能 行。  
A. Scientists wanted to find out whether these new technologies will work.  
B. Scientists wanted to find out whether these new technologies would work.

The above two questions differ in the cues as question 1 gives the cue according to the context and the adverbial, while question 2 is based on the

foreground information. However, it is also possible for that the context and foreground situations can contribute to the cues simultaneously, and even complementary. For example, the question as below best interprets a sentence entailed three kinds of cues, context, foreground and also the adverbial.

3. I \_\_\_\_\_ to be back last night, but I didn't catch the train. (Q43)

A. have hoped      B. hoped      C. had hoped

**Test Format.** The questions in the test of the questions are all from or adapted from exercises in an English grammar book, in which the adaptation is with the premise to keep the original questions stem and the basic grammar knowledge. There are three types of questions.

The first type is to choose the best Chinese translation corresponding to the given English sentences, aiming to inspect the intuitive understanding of the English expressions. There are 9 questions in this category, which are multiple-choice questions with only two choices. We can see example as below.

4. The girl is blinking at me now. (Q4)

A. nà nǚ hái xiàn zài yī zhí zài xiàng wǒ zhǎ yǎn jīng

那女孩 现在 一直在 向我 眨眼睛

B. nà nǚ hái xiàn zài zhèng zài xiàng wǒ zhǎ yǎn jīng.

那女孩 现在 正在 向我 眨眼睛

Participants chose the correct answer from the two options A and B of two Chinese translations attached below. The two translations are basically similar in meaning, but they aim to distinguish and understand the different uses of the same tense: option A shows that the action of “blinking” keeps a kind of continuity, while option B shows that the action of “blinking” is undergoing. These are the two uses of the present continuous tense, but they are easily confused in translation. Moreover, in this case, the time

adverbial “now” is used as a cue for the tense, but such a cue may give Chinese L2 learners a correct or wrong guidance to a certain extent.

The second category of questions is to choose the corresponding English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given Chinese sentences, aiming at exploring the ability of L2 conversion and to apply the English tense system. A total of 21 questions were set for this part, again carried out through a multiple-choice with two choices.

5. tā guò qù zài měi guó shēng huó le bā nián. (Q15)

他 過 去 在 美 國 生 活 了 八 年。

A. He lived in America for eight years.

B. He has lived in America for eight years.

The participants also made choice from the two English options A and B attached below. In the stem, the Chinese word “*guò qù* (in the past)” and the auxiliary “*le*” are used to help form the past tense. In English, there are two main tenses that can express past statues, the “simple past tense” and the “present perfect tense”, but the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The “past simple tense” means that the action which happened in the past has ended. The “present perfect tense” emphasizes the action which happened in the past has an effect on the present and or an action in the past that continues till now. In this case above, according to the Chinese expression, because the word “*shēng huó* (live)” has a hint for an action that is persistent and repeated, it is easy to make people doubt whether it will continue or not. The correct option to this question is A, the option which applied to the past simple tense. And the time adverbial can basically locate the answer of this question. However, whether the L2 Chinese learners can accurately make a judgment of the English tense based on the cues of time adverbial is one of the key points of this study.

The third type of questions is multiple-choice questions with three options based on filling in the blank of the English sentence, designed to explore the correct judgment when various types of tenses are confusedly used. There

were mainly three types of tenses that could be confused, but sometimes four, or multiple uses of one tense that could be confused. However, the latter two situations were less frequent. Sentences have a given context, and participants make judgments based on the intention conveyed by the English sentence.

6. What do you think the children\_\_\_\_\_ when we get home? (Q48)

A. Will be doing      B. are doing      C. will do

The participant chose from the three options attached below. The above example sentence examin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future progressive tense, present progressive tense and simple future tense. This example bears a time adverbial clause that provides a foreground to imply the occurrence of an action relationship. Under this situation, among various kinds of usages of the three tenses, the future progressive tense emphasizes an action that is undergoing at the point of future,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indicates an action that is undergoing during the speech time, and the simple future tense expresses an action or state that will occur at some time in the future. These three tenses all have the potential intention of this sentence, which is to describe both the action that will happen and the act that is undergoing, but the difference lies in that the sentence mainly emphasizes “the action that the children are doing at the moment when we go home”, a situation that is undergoing in the future. Since the Chinese language lacks a clear morphological change in the tense of the behavior, the fact for easily confused for the participants is that they are likely to think that whether the case is a possible future action or an action that is undergoing when the speaker speaks. Therefore, in this type of question, the L2 learners need to synthesize various cues to distinguish and judge various types of tenses that are easily confused.

### ***Data Analysis.***

In test one, the accuracy was generally high, with the highest rate being 90.5% in Group 3, question 6, which differentiated the in-group confusions of the past continuous tense. The lowest rate of correctness was of the second sub-question in group 1, which differentiated the confusions within the simple present tense, but the correct rate was also not extremely low(72.14%). In other words,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identify the internal differences in groups of the six tenses, to master these tenses with the possibility of internal confusion, and also to judge the tense of the English sentences, thus translate them into Chinese perfectly. Among them, the participants can accurately grasp the past progressive tense and basically never confused. From the Appendix which described the cues situation, we can see that average or higher accuracy is mainly based on the cues of time adverbials and together with few others when compared with questions without cues. However, difference is not that apparent.

Table 1. The groups and accuracy of Test 1.

Group No.	Contrast group	Question No.	Options (Accuracy)		Total Accuracy
			A	B	
1	Simple Present Tense	1	21.89%	78.11%	78.11%
		2	27.86%	72.14%	72.14%
2	Present Progressive Tense	3	79.6%	20.4%	79.6%
		4	21.89%	78.11%	78.11%
3	Past Progressive Tense	5	9.95%	90.05%	90.05%
		6	90.5%	9.95%	90.5%
4	Future Progressive Tense	7	84.08%	15.92%	84.08%
5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	8	23.88%	76.12%	76.12%
6	Past Future Tense	9	18.41%	81.59%	81.59%

In Test two, the accuracy was basically at half or more than half probability. The highest correct rate is 83.58% for question 28 in Group 13 on the distinction about the simple future tense of its inner-group. This is

follow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imple past tense and the past perfect tense in question 17 of Group 5 (82.59%), and also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simple future tense in question 12 of Group 2 (81.59%). However, the other comparisons in the latter two of the above three groups were less correct, only just above or close to half correct, at 54.73% and 52.24%,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participants can basically but not necessarily always to identify applications for these groups. The percentages of correctness for the inner-group distinction of the present perfect tense in the question 30 of group 14, the inter-group distinction of the present perfect tense and the future perfect tense in question 26 of group 11, and the inter-group distinction of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simple past tense in the question 11 of group 1 are all at a middle level or upper, at 77.61%, 72.64%, and 72.14%, respectively. Among them, the other comparison, the question 10 in Group 1 has a relatively low correct rate (52.24%), and the other comparison in Group 14 is relatively balanced at 60.7%. This indicates that the participants' ability to discriminate between these categories was good, but at a level that is not particularly stable. The group with the lowest level of accuracy i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imple future tense and the future perfect tense in the sub-question 24 of group 10 (22.89%), and it also has a quite low level of accuracy in the other comparison, the question 25 (34.33%). Secondly, the correct rate of question 21 in group 8 fo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imple future tense and the future progressive tense is the second lowest among the fourteen groups, with a low rate of 23.88%. However, the other comparison in the same group had a slightly higher correct rate (57.71%) of the question 22. This indicates that participants have a significant obstacle in distinguishing the above groups of tenses and are highly confused. The two groups with correct rates below but close to 50% are the distinctions between the simple past tense and present perfect tenses in the question 16 of group 4 (43.28%), the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present perfect tense in question 19 of group 6 (45.77%). Among them, the results of the two items in Group 4 are close, in which the other

comparison is slightly higher (51.24%). In summary, the scores of the above groups indicate that the participants are not particularly 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above comparison groups. The remaining comparison groups have average or above-average correct rate, and participants are not able to identify temporal differences in these comparison groups well. In this test, both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simple past tense when compared with the present perfect tense had relatively low accuracy, and the accuracy of comparing the simple future tense with the future perfect tense was also very low. However, the contrast between the present perfect tense and the future perfect tense, and the contrast between the past simple tense and the past perfect tense has the opposite situation, with relatively high or very high accuracy. As for the cue situation, the high accuracy, average accuracy and the low accuracy are all mixed with various kinds of cues, single or simultaneous. However, the time adverbial here cannot be used for an accurate denotation to locate judgments as each situation nearly has a time adverbial. And those with modality verbs as cue are extremely low, and those with foreground or context are almost tend to be with average or lower accuracy. Other cues are not conclusively be crucial elements for judgment.

Table.2 The groups and accuracy of Test 2

Group No.	Inter-Group Difference	Question No.	Options		Total Accuracy
			A	B	
1	Simple Present Tense Vs. Simple Past Tense	10	52.24%	47.76%	52.24%
		11	27.86%	72.14%	72.14%
2	Simple Present Tense Vs. Simple Future Tense	12	18.41%	81.59%	81.59%
		13	52.24%	47.76%	52.24%
3	Simple Present Tense Vs. Past Future Tense	14	31.84%	68.16%	68.16%
4	Simple Past Tense Vs. Present Perfect Tense	15	51.24%	48.76%	51.24%
		16	56.72%	43.28%	43.28%
5	Simple Past Tense Vs. Past Perfect Tense	17	82.59%	17.41%	82.59%
		18	45.27%	54.73%	54.73%

6	Simple Present Tense Vs. Present Perfect Tense	19	45.77%	54.23%	45.77%
7	Present Perfect Tense Vs. Past Perfect Tense	20	39.8%	60.2%	60.2%
8	Simple Future Tense Vs. Future Progressive Tense	21	76.12%	23.88%	23.88%
		22	57.71%	42.29%	57.71%
9	Present Perfect Tense Vs.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	23	38.31%	61.69%	61.69%
10	Simple Future Tense Vs. Future Perfect Tense	24	77.11%	22.89%	22.89%
		25	34.33%	65.67%	34.33%
11	Present Perfect Tense Vs. Future Perfect Tense	26	72.64%	27.36%	72.64%
12	Simple Past Tense Vs. Past Progressive Tense	27	31.34%	68.66%	68.66%
	Inner-Group difference				
13	Simple Future Tense	28	83.58%	16.42%	83.58%
14	Present Perfect Tense	29	39.3%	60.7%	60.7%
		30	77.61%	22.39%	77.61%

In test 3, the accuracy is not that satisfied as the amount of the questions with the accuracy of over 50% is less than half of the total amount, with only 9 among the 20 questions in total. Group 4 (questions 37-39) is a little more complicated with a mixture of comparisons between simple present tense and present progressive tense, simple past tense and past progressive tense, present perfect tense and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 Question 37 has the highest accuracy of the whole test with 71.64%, followed by question 39 in the same group (69.65%). The other two questions in the same group were relatively low and below 50%, with 44.78% and 47.76%, respectively. Since questions 37 and 40 in this group both set two blanks to fill in, for the mixed distinction of simple past tense, past progressive tense and present perfect tense, and the mixed distinction of simple present tense, present progressive tense and past progressive tense, respectively. In contrast, questions 38 and 39 set only one blank to fill in, distinguishing the difference of simple past tense, the present perfect tense and the past progressive tense, and the difference of simple past tense,



the present perfect tense and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respectively. The question 49 of group 9, has the lowest accuracy (17.41%) for the distinction of the simple future tense, simple present tense and future perfect tense. Group 5 has very low accuracy for all the three questions (44, 45, 46) on the simple past tense, present perfect tense and past perfect tense, with 35.32%, 32.84% and 36.32% respectively. Similarly, ability to distinguish the simple future tense, past progressive tense and past future tense of group 3 is also very weak, with only 31.34%. In addition, accuracy of the three questions (33, 34, 35) in Group 2 for distinguishing the simple present tense, simple past tense and past future tense are also relatively low, at 41.29%, 21.39% and 41.29%, respectively. The accuracy of question 34 was the second lowest of the whole test. The low accuracy for the above two types of groups indicates the participants' low ability to compare these two groups. Apart from this, the accuracy of Group 7 for the distinction of simple past tense, past future tense and present future tense, and Group 10 for the distinction of simple present tense and present perfect tense are of a middle level or upper, 60.7% and 65.67%. The other groups (Group 1, Group 6, and Group 8) and their own compared groups were relatively stable and moderately high. This test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judgment ability is weak in the application and differentiation of tenses indicating past situations. The situation for the cue types is also complicated as time adverbials here can also appear in questions with relative high accuracy or with low accuracy. However, cues as context or foreground will cause a relative low accuracy, while the adverbial clause can cause a relative high accuracy. There are no other cues in this type of questions.

Table 3. The groups and accuracy of Test 3

Group No.	Inter-Group Difference	Ques- No.	Options (Accuracy)			Total Accuracy
			A	B	C	
1	Simple Present Tense Vs. Present Progressive Tense Vs. Simple Future Tense	31	60.7%	34.33%	4.89%	60.7%
		32	24.88%	33.33%	41.79%	41.79%
2	Simple Present Tense Vs. Simple Past Tense Vs. Past Future Tense	33	27.86%	41.29%	30.85%	41.29%
		34	21.39%	71.14%	7.46%	21.39%
		35	24.38%	34.33%	41.29%	41.29%
3	Simple Future Tense Vs. Past Progressive Tense Vs. Past Future Tense	36	29.85%	31.34%	38.81%	31.34%
4	Simple Past Tense Vs. Past Progressive Tense Vs. Present Perfect Tense Vs.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	37	71.64%	18.91%	9.45%	71.64%
		38	44.78%	42.29%	12.94%	44.78%
		39	69.65%	21.39%	8.96%	69.65%
		40	30.35%	21.89%	47.76%	47.76%
5	Simple Past Tense Vs. Present Perfect Tense Vs. Past Perfect Tense	41	38.81%	35.32%	26.37%	35.32%
		42	32.84%	54.23%	12.94%	32.84%
		43	15.42%	48.26%	36.32%	36.32%
6	Present Perfect Tense Vs.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 Vs. Simple Past Tense	44	10.95%	28.86%	60.2%	60.2%
		45	24.88%	50.75%	24.38%	50.75%
		46	57.21%	33.83%	8.96%	57.21%
7	Simple Past Tense Vs. Past Future Tense Vs. Present Future Tense	47	16.92%	22.39%	60.7%	60.7%
8	Simple Future Tense Vs. Future Progressive Tense Vs. Present Progressive Tense	48	53.23%	33.83%	12.94%	53.23%
9	Simple Future Tense Vs. Simple Present Tense Vs. Future Perfect Tense	49	46.27%	36.32%	17.41%	17.41%
10	Simple Present Tense Vs. Present Perfect Tense	50	25.37%	65.67%	8.96%	65.67%

V. Results

*Test 1.* The participants’ accuracy for the differentiation of tenses within the six groups of confusable cases: simple present tense, present progressive tense, past progressive tense, future progressive tense, present perfect tense, and past future tense was high or relatively high. Among them, the participants’ ability to grasp and judge the past progressive tense was the best, and slightly weaker to judge the simple present tense. However, the

overall level was high for all groups. Participants are basically able to differentiate, but not completely.

**Test 2.** The ability to recognize and grasp the future simple tense itself was very good. Also, the accuracy of distinguishing the simple future tense from the simple present tense was high. However, when the simple future tense is compared with the future progressive tense or future perfect tense, the accuracy is very low. The accuracy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simple past tense and the past perfect tense is very high, but the rate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simple past tense and the simple present tense, or the comparison with the present perfect tense is relatively low. The accuracy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simple future tense is high, but the comparison between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simple past tense, the present perfect tense or the future perfect tense is also relatively low. The accuracy of the present perfect tense itself is not very satisfied because of a lack of grasp. And, the comparison between the present perfect tense and the simple present tense or the simple past tense is relatively balanced.

**Test 3.** The accuracy is relatively high and the ability to discern was relatively balanced when the simple future tense was distinguished from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as well as from the future progressive tense and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When distinguishing with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future perfect tense, and with the past progressive tense and past future tenses, the accuracy is pretty low.

The accuracy rate is relatively low or very low when distinguishing the simple past tense from the present perfect, from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past future tense, and also from the present perfect tense and the past perfect tense. However, the accuracy is high or relatively high with the present perfect and present progressive tense, with the past future tense and present future tense, and with the present perfect tense and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

The accuracy of distinguishing the simple present tense from the present perfect tense, from the simple future tense and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and also from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and the future progressive tense is relatively high. The ability to judge is at an intermediate-advanced level. However, the accuracy is pretty low when differentiating from the simple future tense and the future perfect tense, as well as from the simple past tense and the past future tense.

When the simple past tense was mixed collocated with the past progressive tense and the present perfect tense, the accuracy of differentiation was quite high. However, when the simple present tense was mixed with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the simple past tense and the past progressive tense, the accuracy is very low.

## VI. Conclusion

This study is given out to explore the ability for the Chinese to discern and use various kinds of tenses in English. According to the three types of tests, it suggests that when translate the English sentence to Chinese, learners can perfectly discern the different usages of the same tense like the simple present tense, the progressive aspects of present, past, future and present perfect tense, among which the past progressive tense can be the most accurate. While comparisons of the simple future tense with the future progressive tense or future perfect tense, the simple past tense with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simple present tense with the future perfect tense are easily confused when translate Chinese to English, but the participants are able to grasp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imple future tense and the simple present tense, between the simple past tense and the past perfect tense, which is more accurate in their translations. When judging to choose the tense in the pure English sentences, the participants are easily mixed the simple future tense with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future perfect tense. The simple past tense is easily mixed with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past future tense, with the past progressive tense and the present perfect tense, also with the present perfect tense and the past perfect tense. And the simple present tense is easily mixed with the simple future tense and future perfect tense, also with the simple past tense and past future tense. By contrast, the simple future tense can be used accurately when distinguishing from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The simple past tense can be discriminated from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and the present perfect tense, from the simple future tense and the past perfect tense, from the present perfect tense and the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 And the simple present tense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simple future tense and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from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 and the future progressive tens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ability for the L2 learners to input the L2 tense is relatively proficient. This may mainly lie on the cues of the time adverbials. While the ability for the L2 learners to output the L2 tense is not really good as Chinese are mixed with various kinds of cues which are fuzzy, like the modality verbs, context and foreground. These kinds of cues are less likely to give clear denotations. Apart from this, the ability to accurately locate various tense of the L2 is pretty poor. The blur of the cues with the nature of unmarked denotation like context, foreground may greatly contribute to the lack of ability. Besides, under the latter two situations, time adverbial is a weak informational function which is not that prominent for judgment when mixed with various cues.

It argues that this study has given evidence for the correlation for the L2 learning with the learners' own language background, the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native language. However, this paper only analysis the confusions of various types of tense, and the factors to affect the learners' L2 acquisition, but haven't given out to what extent they are affected and the cues related to. This calls for a further analysis in the future research.

Appendix

Distribution of the Questions types & the tense Comparisons of the groups setting				
<i>Test 1 : Choose the best correspond Chinese expression in accord with the English text.</i>				
<i>(Multiple-choice: two choose one)</i>				
G- No.	Inner-Group difference	Q- No.	cue (has/ hasn't)	The types of the cue
1	Simple Present Tense	1	N	
		2	N	
2	Present Progressive Tense	3	Y	Time Adverbial
		4	Y	Time Adverbial
3	Past Progressive Tense	5	Y	Time Adverbial
		6	Y	Time Adverbial
4	Future Progressive Tense	7	Y	Time Adverbial
5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	8	Y	Time Adverbial, Mood
6	Past Future Tense	9	Y	Adverbial Clause, Mood
<i>Test 2 : Choose the English translation in accord with the Chinese text.</i>				
<i>(Multiple-choice: two choose one)</i>				
G- No.	Inter-Group difference	Q- No.	cue (has/ hasn't)	The types of the cue
1	Simple Present Tense Vs. Simple Past Tense	10	N	
		11	Y	Auxiliary “le”
2	Simple Present Tense Vs. Simple Future Tense	12	Y	Time Adverbial, Context, Verb that hints the temporal relation
		13	Y	Time Adverbial, Context
3	Simple Present Tense Vs. Past Future Tense	14	Y	Foreground
4	Simple Past Tense Vs. Present Perfect Tense	15	Y	Time Adverbial
		16	Y	Auxiliary “le”, Context, Foreground

5	Simple Past Tense Vs. Past Perfect Tense	17	Y	Time Adverbial
		18	Y	Auxiliary “le”, Context
6	Simple Present Tense Vs. Present Perfect Tense	19	Y	Time Adverbial
7	Present Perfect Tense Vs. Past Perfect Tense	20	Y	Time Adverbial, Verb that hints the temporal relation
8	Simple Future Tense Vs. Future Progressive Tense	21	Y	Modality verb
		22	Y	Time Adverbial, Verb that hints the temporal relation
9	Present Perfect Tense Vs.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	23	Y	Time Adverbial
10	Simple Future Tense Vs. Future Perfect Tense	24	Y	Time Adverbial, Modality verb
		25	Y	Time Adverbial, Verb that hints the temporal relation, Conjunction “zài”
11	Present Perfect Tense Vs. Future Perfect Tense	26	Y	Time Adverbial, Verb that hints the temporal relation, Auxiliary “le”, Conjunction “jiù”
12	Simple Past Tense Vs. Past Progressive Tense	27	Y	Time Adverbial
	Inner-Group difference			
13	Simple Future Tense	28	Y	Time Adverbial, Verb that hints the temporal relation
14	Present Perfect Tense	29	Y	Auxiliary “le”
		30	Y	Time Adverbial
<b>Test 3 : Choose the bes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of the English text. (Multiple-choice: three choose one)</b>				
G- No.	Inter-Group difference	Q- No.	cue (has/ hasn't)	The types of the cue
1	Simple Present Tense Vs. Present Progressive Tense Vs. Simple Future Tense	31	Y	Mood
		32	Y	Context

2	Simple Present Tense Vs. Simple Past Tense Vs. Past Future Tense	33	Y	Time adverbial
		34	Y	Time adverbial
		35	Y	Foreground
3	Simple Future Tense Vs. Past Progressive Tense Vs. Past Future Tense	36	Y	Time adverbial, Foreground
4	Simple Past Tense Vs. Past Progressive Tense Vs. Present Perfect Tense Vs.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	37	Y	Adverbial clause
		38	Y	Time adverbial, Context
		39	Y	Time adverbial, Adverbial clause
		40	Y	Foreground
5	Simple Past Tense Vs. Present Perfect Tense Vs. Past Perfect Tense	41	Y	Time adverbial
		42	Y	Foreground
		43	Y	Time adverbial, Adverbial clause, Context
6	Present Perfect Tense Vs.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 Vs. Simple Past Tense	44	Y	Time adverbial
		45	Y	Time adverbial
		46	Y	Time adverbial, Adverbial clause
7	Simple Past Tense Vs. Past Future Tense Vs. Present Future Tense	47	Y	Time adverbial, Context
8	Simple Future Tense Vs. Future Progressive Tense Vs. Present Progressive Tense	48	Y	Adverbial clause
9	Simple Future Tense Vs. Simple Present Tense Vs. Future Perfect Tense	49	Y	Time adverbial
10	Simple Present Tense Vs. Present Perfect Tense	50	Y	Context



## Reference

- Chen, Limin.(2002). Tense and tense components in Chinese. *Language Studies* (03), 14–31.
- Fries, C.C. (1945).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as, S. (1979). Language transfer and universal grammatical relations. *Language Learning*, 29(2), 327–344.
- Greenberg, J. H. (1961). Linguistics: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Charles f. hockett. *American Anthropologist*, 63(5).
- He,Wei&Ly, Yi. (2015). A Study of Modern Chinese Tenses from a Systemic Fun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eijing: Social Science Edition*, 9–18.
- J Lyons(1977) *Semantics*. Cambridge Press.
- Klein, W. (1994). Learning how to express temporality in a second language. John I. Saeed (2016) *Semantic*. Wilel Blackwell
- Piao, Min'e & Yuan,Yulin.(2019). Is Chinese a “tenseless language”? *Contemporary Linguistics* (03),438–450.
- R Lado.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eichenbach, H. (1966). *Elements of symbolic logic*. Dover Publications.
- Zhang, Qiaofei.(2016). Negative transfer of native language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rom the aspect of grammatical errors. *International Students* (09), 63.

**Abstract**

## **A Study on Influences of the Language Transfer given by the L1 when acquiring the L2 Tense System**

**Ren Yang**

This article analyzes the ability for the Chinese to discern the 11 common used English tenses. Confusions may vary in various usages of one tense itself or among various tenses. Through an online test designed into three parts of questions for exploring the input, output and the sensitiveness of the L2 tense systems. The first part suggests that learners can greatly discern the mixed usage of one tense and translate the English sentence to Chinese. The adverbials and English verbs are sufficient to make a denotation. The second part suggests that learners may meet with challenges when discern the confusable tenses and struggled to translate the Chinese into English as Chinese is a language with no morphological tense marks and with only with few auxiliaries or conjunctions and rely on the context to some extent. The third part suggests that learners are quite hard to make a judgment and selection to fill the English sentence when given options are mixed. The confusions also mainly lie on the ambiguity of the mixed cu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native language will transfer its own characteristics when acquire a second language and factors may reflected from some language cues.

**Key Words**

language transfer, language cues, tense system, tense markers

## 방송매체에 나타난 신조어 양상 연구

신 순 란

### 1. 서론

언어는 사회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면서 그 사회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김미라, 2003; 김환, 2017). 한 사회가 지속적인 변화를 겪는 것처럼 언어 역시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에 없던 말, 신조어(coining, neologism)가 생겨난다. 즉 신조어란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로써 새로운 언어집단(speech community)의 요구로 생성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Lee, 2010; Kathpalia, 2018).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신조어를 통해 변화된 사회와 언론의 사회인식을 재조명 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4년 국어 국립원 신조어 조사에 의하면 우리말에서 파생된 어휘보다 외국어를 합성하거나 외국어에서 파생된 말이 많고, 특히 영어가 합성되어 사용되는 어휘의 양이 신조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신조어의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영어신조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활용방안을 연구한 천승미(2018)는 조사 대상 대학생 100명중 80%가 영어 신조어를 잘 알고 있으며 65%는 평소에도 영어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학년이 높을수록 신조어 사용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 신조어를 통해 사회적 현상을 탐구한 김환(2017) 역시 신조어에 대한 20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영어 신조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영어 신조어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과는 달리 기존 영어신조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문이나 잡지의 외래어 사용실태나 순화 방법에 치중하였고 형태적, 음운적, 의미적 관점에서는 그

특징이 자세히 수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중에게 파급력과 전파력이 강한 영어 라디오 방송 매체에서 소개된 신조어를 중심으로 신조어의 조어법을 분석하고 이것이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어떤 면을 반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00년 초에 발병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간 활동의 급격한 제한을 초래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정치·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 변화를 신조어를 통해 반추해 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II. 선행 연구

홍지영(2008)은 새로 생겨나는 말인 신조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용례를 통해 신조어의 형성 양상을 살펴 본 다음 신조어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 학습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지영(2008)은 신조어는 사회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사회변천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급격히 변화 하는 현대사회의 추세에 따라 어휘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사라져 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2002년 이후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조사 자료를 주 자료로 삼고 이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말 까지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존의 영어 신조어 형성 양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영어 신조어의 교육적 접근이라는 차별성이 잘 부각시켰으나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의 신조어를 중심으로 영어 외래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주성연(2009)은 언어는 사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회의 특징을 그대로 수용하고 표현하고 시대적, 사회적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신조어(coining neologism)라고 지적하였다. 또, 최근에는 새로운 직종과 첨단 학문의 도입이 신어 생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전문어적인 성격을 띤 신어가 생겨났음을 언급하며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신조어를 바탕으로 조어 방식에 따라 신조어를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신조어의 조어방식중 합성이 63.9%로 신조어의 형성과정 중 가장 보편적이었고 단일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또한, 신조어로 차용되면서 의미가 달라진 경우와 특정 어휘의 일부가 접사화 된 경우, 두 단어를 결합시키되 각 단어의 일부분을 떼어내어 만든 신조어 등으로 각각 분류하여 신조어의 형성과정을 세밀히 추적하였다.

한편,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방안연구를 수행한 김환(2017)은 신조어의 기능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재미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검색 키워드로써 중요한 도구로 활용됨을 지적하였다. 김환(2017)은 신조어의 어휘적인 통계분석이나 신조어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 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많으나 신조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상에 대한 기록화 활동은 부진함을 언급하며 신조어를 어휘 형태적 특성, 의미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더 나아가 신조어 사용 실태에 대해 20대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의 45%가 신조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주로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68%)사용함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천승미(2018)역시 연합뉴스 코퍼스에서 신조어 200개를 출현빈도를 바탕으로 1위에서 100위까지의 신조어를 선정하여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영어 신조어에 관한 인식과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80%가 신조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65%는 평소 신조어를 자주 사용하며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의 신조어 사용 비율이 높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자주 사용하고 고학년 남학생의 경우 가장 다양한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영어 형태소가 포함된 신조어의 사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어 신조어의 사용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일상어로 접하고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에 사용된 영어어휘의 형태 및 의미의 학습이 영어교육에 반영될 때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역시 신조어의 구체적인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 Ⅲ.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영어방송(BEFM) 프로그램 「The 4pm duo」라는 코너에서 영어 학습의 한 형태로 제공하는 「인싸영어」코너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싸영어」는 매주 진행되는 「The 4pm duo」의 코너 중 월요일에 소개되는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상을 따라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신 영어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 신조어 분석 대상으로 「인싸영어」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대중에게 전파력과 파급력이 큰 공영 라디오 방송 매체이기에 무엇보다 공정성과 그 자체로 객관성을 이미 담보하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고 또한 라디오라는 방송매체가 현재 사회 문화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0. 11. 2일 부터 2021. 4. 19까지 총 6개월에 걸쳐 「Keep it Kcool」 인싸 영어 코너에서 제시한 영어신조어 25개를 발췌하고 분석하였다. 「Keep it Kcool」코너에서 제시한 신조어는 다음과 같다.

〈표 1〉 「Keep it Kcool」에서 제시된 신조어

	신조어	형태	의미	사용 용례
1	steez	style + ease	자연스럽고 좋은 스타일을 지칭할 때	you have lots of steez. you are looking steezy.
2	quaranteam	quaran+team	코로나 시대에 생긴 단어(코로나 시대에 함께 놀수 있는 조그만한 사람들의 모임)	this is my quaranteam.
3	maskne	mask+acne	(마스크 여드름)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오래 착용해서 생긴 피부 트러블을 나타냄.	i have maskne.
4	sleep on	sleep on : 1) 하루 이를 숙고하다 2) **트렌드를 무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을 때 ==> 의미 변화		why are you sleeping on BTS?
5	zumping	zoom+ dumping	헤어질 때 영상통화로 찰 때 -코로나 반영	I was zumped .
6	awe walk	awesome+walk	산책하면서 주변경치를 보면서 경탄하는 것. 코로나 영향	I was awe walking yesterday.
7	minimony	mini+ceremony	예비 결혼식 코로나 때문에 크게 결혼식 하기 힘들 때	We are going to have minimony coming this september.
8	<it's clipped>		절교하다.	
9	<fish or cut bait>		<빠른 결정을 요구> 고기 잡을래 아니면 미끼를 자를래	
10	straight fire:		awesome, amazing	
11	snubbing	snub + phone	<phubbing: 스마트폰에만 신경쓰고 상대방에겐 신경쓰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	

12	<looking snatched: = snatch		간지난다. 찢다	
13	low key		원래 의미: 소규모의 파티 바뀐의미: 뭔가를 하고 싶지만 부끄러워 말을 잘 못할 때	- i low key want to have the whole cake.
14	keep it 100=		정직하게 살아라	
15	a real one =		best friend, a true friend	
16	I am weak. =		너무 웃기다. =you are killing me.	
17	it hits different		다르게 들린다. (음악이) 느낌이 다르다.	
18	that ain't in		그건 좀 아니다.	
19	we move		괜찮아, 계속 나아가자	
20	<aha moment!>			
21	a hard pass		절대 안돼, 안할거라고	I'll take a hard pass
22	stan :		fan 보다 더 큰 의미	에미넴 노래에서 유래.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
23	i am <u>baby</u> .		순수하고 아기처럼 귀여움을 어필할 때. 2020 신조어가 됨.	
24	brah		bro 대신 최근 사용함.	
25	hate to see it.		(살짝) 가짜 동정심. 어떤 일이 잘 안될 때 동정심을 나타낼 때	

## 2. 분석틀

신조어 양상연구라는 본 논문의 목적에 따라 부산 영어 방송에서 제시한 신조어 「Keep it Kcool」의 분류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신조어 조어법을 따르기로 한다.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조어법은 객관성과 함께 이미 여러 선행 연구자들이 따르고 있어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신조어의 어휘 형태적 특성

국립국어원에서는 신조어의 유형을 품사, 조어법, 원어별로 분류하여 특성을 정리하고 있으며 조어법에 따른 특성으로는 생성, 차용, 합성, 혼성, 축약, 파생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조어법에 따른 신조어 분류(출처: 국립국어원)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생성	차용	합성	혼성	축약	접두파생	접미파생

생성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뜻하며, 차용은 외국에서 온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합성이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을 말하고, 혼성은 두 단어의 결합중 일부만이 단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또, 축약은 기존에 사용하던 단어나 문장을 이르는 다양한 층위의 단위를 줄여서 만들어진 형태를 뜻하며 파생은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를 의미한다.

## 2) 영어라디오 방송에 나타난 신조어의 분류

부산 영어라디오 방송에 나타난 신조어를 분류하기 위해 2021. 4. 19까지 총 6개월에 걸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단어로 된 신조어와 문장으로 제시된 신조어를 일차 분류하였고 이후 이중에서 단어로만 형성된 신조어를 따로 분석하였다.

〈표 3〉 문장으로 제시된 신조어

신조어	의미	사용용례
<it's clipped>	절교하다	친구사이를 끊어낼때
keep it 100	진실 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고 할 때
I am weak.	너무 웃기다	상대방이 너무 재미있는 말을 할때
it hits different	다르게 들린다	
that ain't in	그건 좀 아니다	
we move	괜찮아.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힘든 일을 위로할때
<b>i am baby.</b>	난 귀엽잖아	귀여움을 어필할때
hate to see it.	안됐네	가짜 동정심을 나타낼 때



&lt;표 4&gt; 단어로 제시된 신조어

	신조어	형태	의미	사용 용례
	steez	style + ease	자연스럽고 좋은 스타일을 지칭할 때	you have lots of steez. you are looking steezy.
	quaranteam	quaran+team	코로나 시대에 생긴 단어(코로나 시대에 함께 놀수 있는 조그만한 사람의 모임)	this is my quaranteam.
	maskne	mask+acne	(마스크 여드름)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오래 착용해서 생긴 피부트러블을 나타냄.	i have maskne.
	sleep on	sleep on : 1) 하루 이틀 숙고하다	2) ** 트렌드를 무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을 때 ==> 의미 변화	why are you sleeping on BTS?
	zumping	zoom+ dumping	헤어질 때 영상통화로 찰 때 ==>-코로나 반영	I was zumped .
	awe walk	awesome+walk	산책하면서 주변경치를 보면서 경탄하는 것==>. 코로나 영향	I was awe walking yesterday.
	minimony	mini+ceremony	예비 결혼식 코로나 때문에 크게 결혼식 하기 힘들 때 ==>코로나 반영	We are going to have minimony coming this september.
	<fish or cut bait>		<빠른 결정을 요구> 고기 잡을래 아니면 미끼를 자를래	
	straight fire:		owesome, amazing	
	phubbing	snub + phone	<phubbing:스마트폰에만 신경쓰고 상대방에겐 신경쓰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	
	<looking snatched: = snatch		간지난다. 찼다	
	low key	원래 의미: 소규모의 파티	바편의미: 뭔가를 하고 싶지만 부끄러워 말을 잘 못할 때	- i low key want to have the whole cake.
	a real one =		best friend, a true friend	
	<aha moment!>		순간적인 깨달음이 올 때	

	a hard pass		절대 안돼, 안할거라고	I'll take a hard pass
	stan :		fan 보다 더 큰 의미	에미넴 노래에서 유래.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
	brah		bro 대신 최근 사용함.	

영어라디오 방송에서 소개한 신조어 25개를 위의 보기처럼 문장과 단어로 분류하였고 문장의 경우 한 단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와 맥락상 다르게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단어로 구성된 신조어 17개는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 분류하였다.

### 3) 영어 라디오 방송에 나타난 신조어 형성 방법- 합성어과 혼성 그리고 생성

복합 또는 합성(compounding)이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두 개 이상의 어근과 어근의 결합 또는 단어, 즉 두 개이상의 자유 형태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것으로 복합어라고도 한다. 복합어는 영어의 단어를 증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계속해서 새로이 생겨나는 단어의 과반수 이상이 복합어이다(주정연, 2009 ; 유정아, 2006).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영어 라디오 방송에 나타난 신조어 형성 방법 중 합성어중 합성의 형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합성의 예

① **straight fire**: 직선을 뜻하는 straight 와 불을 뜻하는 fire를 결합한 아주 멋진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② **sleep on** : 잠을 자다라는 직역적 의미외에 하루 이틀 정도 숙고하다는 본래의 의미에서 트렌드를 무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의미 변화를 겪었다.

③ **fish or cut bait** : 생선의 뜻하는 fish와 미끼를 뜻하는 bait의 합성어로 빠른 결정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④ **a real one** : 진정한 벗, 진실한 사랑이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원래의 뜻에서 의미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⑤ **aha moment**: aha라는 감탄사와 순간이라는 moment의 합성어로 의미 변화없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⑥ **a hard pass**: 단호한 거절을 나타내는 합성어이다.

⑦ **looking snatched** : 보다 라는 의미의 looking 와 붙잡다 라는 의미의 snatch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정말 멋지게 보인다, 간지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합성어이다.

### -혼성의 예

혼성(blending)은 두 단어 일부분을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어원이 다른 두 낱말이 혼합 축약하여 한 낱말이 되는 것을 말한다. 혼성어는 기존 단어의 일부만을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에 두 단어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복합어와는 다르다. 즉, 혼성어는 단어 각각의 부분을 잘라내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데 반하여, 합성어는 단어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문수지, 2017). 혼성어는 주로 앞단어의 첫 부분과 뒷단어의 마지막 부분을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이때 사용된 두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모두 결합되어 있으며 표현을 간결하고 경제적으로 만드는 조어법 중의 하나이다.

① **steez** : 영어 단어인 style 과 ease 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의 신조어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단어의 뜻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며 합성이 되었다고 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조어법상의 특징은 앞단어와 뒷 단어의 어휘를 각각 2글자 3글자 등으로 균등하게 섞었음을 알 수 있다.

② **quaranteam** : 격리를 뜻하는 quarantine과 team이라는 두 단어를 합성하여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이루어진 소규모의 가족, 친구들의 폐쇄 공동체를 의미하며 사회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③ **maskne** : mask와 여드름을 의미하는 acne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했을 때 생기는 피부질환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역시 코로나 시대상을 반영한다. 조어법상의 특징은 앞 단어는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뒤의 단어는 특정 음절만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④ **zumping** : 온라인 매체인 zoom과 버리다, 차다의 의미인 dump를 합성하여 대면이 어려워진 코로나 시대의 연인간의 헤어짐을 나타내는 신조어가 형성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조어법상의 특징은 maskne과는 달리 zoom의 앞 첫 글자와 dump의 뒤 세글자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⑤ **awe walk**: 멋진이라는 의미의 awesome과 걷기라는 의미의 walk을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로 앞단어의 첫 세글자와 뒤 단어 모두를 합한 조어법으로 두

단어를 단순 결합하였기에 의미의 변화 역시 없으며 주변정치를 보며 감탄한다는 코로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⑥ **minimony** : 작다 라는 의미의 mini와 의식을 뜻하는 ceremony를 결합하여 비대면 코로나 시대의 조출한 결혼식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로 첫 단어의 앞글자와 두 번째 단어의 뒷부분을 결합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⑦ **phubbing** : 무시하다는 의미의 snub 과 폰을 의미하는 phone을 결합하여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에게는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기술만능의 사회적 현상을 보여준다. 조어법 역시 앞단어와 뒤단어를 결합한 형태이다.

#### -생성의 예

① **stan** : fan 보다 더 큰 의미로 사용되며 극적인 광팬을 의미한다. 미국 랩 가수인 에미넴 노래(2000)에서 유래하였고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었다.

② **brah** : 남성 친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로 bro와 동의어이다.

#### 4) 영어 라디오 방송에 나타난 신조어 의미변화

원래의 단어가 갖고 있던 의미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 분석 결과 주로 새로운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단어 의미가 새롭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영어 라디오 방송에서 의미변화가 나타난 단어들이다.

① **sleep on** : 기존의 의미는 하루 이틀 어떤 문제에 대해 숙고한다는 의미였다면 변화된 의미에서는 트렌드를 무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을 때를 지칭한다. 전세계적인 아티스트로 거듭난 한국의 아이돌 스타인 BTS에 대해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를 때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why are you sleep on BTS? 즉 년 BTS에 대해 아는게 없니?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② **low key**: 원래의 의미는 소규모의 파티를 의미했지만 뭔가를 하고 싶지만 부끄러워 말을 잘 못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의미변화를 겪었다. 예를 들어 <I low key want to have the whole cake: 조금 부끄럽지만 저 케이크 정말 먹고 싶어>라고 사용할 수 있다.

## IV. 분석 결과 및 결론

2020. 11. 2일 부터 2021. 4. 19까지 총 6개월에 걸쳐 「Keep it Kcool」인싸 영

어 코너에서 제시한 영어신조어 25개를 발췌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신조어 분류방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 문장으로 된 신조어는 기존의 신조어 분류 방식과의 차이 때문에 분류에서 제외하고 단어로만 구성된 신조어를 합성, 혼성, 생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단어로만 이루어진 신조어 총 16개중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의 경우가 7개(43.75%)를 차지하였으며 합성어 중 두 단어의 일부만을 결합하여 만드는 조어법인 혼성의 경우 역시 7개(43.75%)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2개(12.5%)는 기존에 없던 생성어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합성의 경우는 두 단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의미변화가 거의 없으며 형태의 변화 역시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혼성의 경우에는 앞 단어의 첫 부분과 뒷 단어의 뒤 부분을 결합한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조어 형성의 조어법의 특성과 함께 우리사회의 변화상을 나타내는 의미변화 역시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2020년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을 불러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문화적 변화를 나타내는 신조어가 많았던 것도 영어라디오 방송에서 나타난 신조어의 특징이었다. 격리된 채 소수의 공동체 구성원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인 *quaranteam*, 외출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해서 생긴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maskne*, 비대면 시대 연인들의 새로운 이별방식인 *zumping*, 결혼식이나 모임 등을 최소한으로 간소하게 진행한다는 *minimony*, 야외출입이 거의 금지되었기에 새삼스레 산책을 하면서 주위 경관에 감탄하게 된다는 *awe walk* 등은 모두 코로나 시대를 반영하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약 6개월에 걸친 분석자료 중 코로나와 관련된 신조어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언중들의 관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코로나가 변모시킨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phubbing**> 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기술발달과 인간소외라는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어로는 열성팬, 혹은 광팬을 뜻하는 <*stan*> 역시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참고문헌

- 김미라. 2003. *영어 외래어 연구-형태·음운·의미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환. 2017.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 정보과학 전문대학원 석사논문.
- 문수지. 2017. *외래어 혼성어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류정아. 2006. *영어 외래어의 형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해미. 2020. 코로나 시대의 신조어, 일본사회. *비교문화연구*. 60, 275-300.
- 주성연. 2009. *영어 외래어에 관한 연구-최근의 신조어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승미. 2018. 영어 신조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활용에 관한 연구. 『언어학 연구』 23(2).
- 홍지영. 2008. *신조어의 형성 양상과 교수 학습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Lee, J. O. 2010. Lexicalization Patterns of Neologisms in Korean under the influence of English.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3(3), 167-180.
- Kathpalia, S. S. 2018. Neologisms: Word creation processes in Hindi-English code-mixed words. 『English World-Wide』 39(1), 34-59.

**Abstract**

## **A Study on Newly Coined Words in Broadcasting Media**

**Shin Sunran**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at the newly coined words are on the radio broadcasting and what they reflect on our society. From November 2, 2020 to April 19, 2021, 25 new English words presented in the Insider English section of the Busan English Broadcasting were extract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new word classification method presen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7 (43.75%) were synthesized with a combination of two words out of a total of 16 new words consisting of only words, 7 (43.75%) were also mixed, and the remaining 2 (12.5%) were composed of existing words. In addi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re were many new words representing social and cultural changes caused by the coronavirus that occurred in 2020 and brought about a global trend was also a characteristic of the new words that appeared in English radio broadcasts including quaranteam, maskne, zumping, minimony, awe walk. In addition, the new term "pubbing", which refers to the phenomenon of not paying attention to others due to the use of smartphones, shows one asp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human isolation and "stan", which means enthusiastic fans or big fans in Korean, is also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social phenomenon of excessive obsession with celebrities.

**Key Words**

coined words, radio broadcasting, social and cultural changes, social phenomenon





# A Contrastive Study of Semantic Features in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Le Thi Ngoc Thy

## I. Introduction

Language is always an important and powerful medium of communication. It is said that language is the fastest and most effective way to express one's thoughts, feelings, etc. According to Ethnologue (2021, 24th edition), English is the world's most spoken language with nearly 370 million first-language speakers and nearly 980 million second-language speakers. Therefore, English definitely plays a significant part in daily life, not only for native speakers but also for billions of learners all around the world.

Idiomatic expression is a common and productive way of language comprehension. An idiom, which is a combination of figurative terms, frequently provides a comparison to help us perform abstract concepts through tangible objects in order to comprehend them. Idioms make sentences glossy and metaphorical therefore they make the speech more interesting and varied in meaning. However, in general, we can not understand the idioms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ir components which makes English learners suffer a lot. Because language is arbitrary, it undergoes major structural and semantic changes, which are referred to as language variants. Many native English speakers begin to use these variants, e.i., idioms, proverbs, and other figurative languages more to distinguish their speech from that of other languages. But, in the case of non-English native speakers, it is very hard to use the idioms appropriately

even if they have enough knowledge of the basic meaning. For that reason,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idiomatic expressions, and how to use them in order to obtain English proficiency.

Tran The Phi claimed that there are 109 over 503 Vietnamese idioms and 139 over 431 English idioms that express anger in *Ấn dụ ý niệm cảm xúc trong thành ngữ tiếng Việt (so sánh với thành ngữ tiếng Anh)* (2016). Hien T. Tran also collected 297 idiomatic expressions expressing anger of rage from six Vietnamese dictionaries in *Conceptual Structures of Vietnamese Emotions*. As well, many other studies also show the frequency of emotion idiomatic expressions in general, and anger idiomatic expressions in specific.

Anger is an emotion characterized by antagonism toward someone or something you feel has deliberately done you wrong. Anger helps you express aggressive feelings, or motivates you to find solutions to problems. (Encyclopedia of Psychology).

When compared to good emotions like happiness, excitement, and optimism, anger has a bad image. Perhaps the lack of regard for rage stems from societal, cultural, and religious factors, as well as the evident manifestations of its frequently disastrous effects, such as hostility and violence. Indeed, many people feel that we would be better off without anger as an emotion. However, an increasing number of social and evolutionary psychologists, brain scientists, and mental health specialists believe anger has desirable properties that can benefit the human condition. For the above reasons, I will only do research on anger idiomatic expressions in this study.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semantic features of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In order to help Vietnamese learners to be aware of the differences between idioms and other English units. Also, understanding English idioms expressing anger would encourage Vietnamese learners to spot idioms in all listening,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skills.

And to achieve the aims mentioned above, the article will answer three research questions:

1. What are the semantic features of English idioms expressing anger?
2. What are the semantic features of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3.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emantic features of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 II. Methodology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he semantic features of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and the statistical forms of these features were analyzed and described using the quantitative approach.

### *Data collecting*

Regarding the dictionary checking techniques with such keywords as *anger*, *angry* in English or *giận dữ*, *tức giận*, *giận dữ* in Vietnamese and other equivalents lexicon on Google search, a total of 235 English and 173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were collected using Sketch Engine to withdraw the data easier on the data analysis stage. In addition, various example expressions of those features are selected mostly from Google books.

Next, those idioms were defined into their semantic features with certain meaning categories by some data mining techniques such as clustering and classification techniques. As well, other techniques like reading comprehension, meaning comparison, and note-taking were employed to select the desired material of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for categorizing data.

### *Data analysis*

After finishing the data collecting stage, all the selective idioms expressing anger were described in terms of semantic features by descriptive methods. Then, the author tracked the frequency and distribution of those features in each language by the data profiling technique. Also, the author

employed the comparative method to indic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both languages’ semantic features. Lastly, examples were illustrated to effectively point out the above mentioned features.

III. Results and Discussions

Anger

Anger idioms in English and Vietnamese are constructed utilizing comparable and closely related imagery based on semantic elements like metaphor, metonymy, simile, symmetry.

TABLE 1. Frequency of Semantic features in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Semantic Features	English		Vietnamese	
	Quantity	Rate (%)	Quantity	Rate (%)
<i>Metaphor/ Metonymy</i>	295	95.5	358	80.6
<i>Simile</i>	14	4.5	34	7.7
<i>Symmetry</i>	0	0.0	52	11.7
<b>Total</b>	<b>309</b>	<b>100</b>	<b>444</b>	<b>100</b>

Table 1 shows consistent results that *Metaphor* and *Metonymy* are mostly used in idioms expressing anger with over 95% in English and nearly 81% in Vietnames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the frequency of *Simile* and *Symmetry* in idioms expressing the anger of both languages. In English idioms expressing anger, *Simile* accounts for the second rate 14/309 (4.5%). On the other hand, none of the English idioms expressing anger in the collection of idioms showed *Symmetry* since this feature is rarely used. Contrastingly, in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Symmetry* is placed second with 11.7%, and *Simile* is following with 7.7%.

To sum up, *Metaphor* and *Metonymy* account for the highest rate among 407 idioms selected and are mostly used to present semantic features of idioms expressing anger in English and Vietnamese. However, *Simile* and

*Symmetry* show contrastive results in both languages.

## IV. Metaphor and Metonymy

*Metaphor* has long been seen as the most significant kind of figurative language use, with scholars focusing on its most complex manifestations in literary and poetic language (John I. Saeed 2008:358). Furthermore, *Metaphor* and *Metonymy* have many similarities. They are both conceptual processes; both may be conventionalized; both are used to generate new lexical resources in language; and both rely on real-world information or cognitive frameworks (John I. Saeed 2008:365).

*Metaphor* and *Metonymy* play a crucial role in a lot of languages and they are frequently used in various idioms of English and Vietnamese. The analysis once again emphasizes the frequency of *Metaphor* and *Metonymy* appears in semantic features of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that express anger. Here are some expressions of the above features.

*You drive me wild, you drive me up the wall sometimes.*

(Jamestown Story, *Right Kind of Crazy*)

*Men are still inventing ways to drive women over the edge.*

(Miguel Arteta, *American Horror Story*, season 1 episode 8)

*I considered the dragon to represent Roberta herself and its inability to breathe fire an expression of repressed hostility...*

(Richard A. Gardner, *Psychotherapy with Children of Divorce*, 1976)

*Không phải tôi sợ tính nóng như Trương Phi, ...*

Literal meaning: It's not that I'm afraid of a hot temper like **Truong Phi**, ...

Figurative meaning: It's not that I'm afraid of **being angry**, ...

(Nguyễn Đức Thọ, *Ốc mượn hồn*)

*...hay gắt như mắm tôm, học trò không mấy ai thích cô cá ...*

Literal meaning: she is **as harsh as shrimp paste**, not many students like her...

Figurative meaning: she **got angry easily**, not many students like her...

(Bích Thuận, *Người con gái Hà Nội*)

*Bấy giờ mới **nổi Tam Bành** mụ lên.*

Literal meaning: Only then did **Tam Bành rise up**...

Figurative meaning: Only then did she **get angry**...

(Nguyễn Du, *Truyện Kiều*)

In addition,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parts of the body are most commonly used to metaphorically and metonymically express anger in 69/295 (23.5%) English idioms and 107/358 (29.9%) Vietnamese idioms listed in the idioms collection.

TABLE 2. Frequency of Body parts in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Part of the body	English		Vietnamese			Part of the body	English		Vietnamese	
		Quantity	Rate (%)	Quantity	Rate (%)			Quantity	Rate (%)	Quantity	Rate (%)
1	Arm	2	3.2	0	0.0	18	Gum (lợi)	0	0.0	2	1.8
2	Ass	2	3.2	0	0.0	19	Hair (tóc)	3	4.8	1	0.9
3	Back	2	3.2	0	0.0	20	Head (đầu)	5	7.9	3	2.7
4	Blood (máu/ tiết)	9	14.3	14	12.8	21	Lip (môi)	2	3.2	1	0.9
5	Bone (xương)	1	1.6	0	0.0	22	Lung (gan)	0	0.0	15	13.6
6	Bowel/gut (ruột)	1	1.6	11	10.1	23	Mouth (miệng)	2	3.2	2	1.8
7	Cheek (má)	0	0.0	2	1.8	24	Nail	1	1.6	0	0.0
8	Chest (ngực)	0	0.0	2	1.8	25	Nape (gáy)	0	0.0	1	0.9
9	Ear (tai)	3	4.8	3	2.8	26	Neck	3	4.8	0	0.0
10	Eye (mắt)	0	0.0	15	13.8	27	Nerve	2	3.2	0	0.0
11	Eyebrow (mày)	0	0.0	7	6.4	28	Nose (mũi)	2	3.2	0	0.0
12	Face (mặt)	2	3.2	21	19.3	29	Rip (sườn)	0	0.0	1	0.9
13	Feet	1	1.6	0	0.0	30	Shoulder (vai)	1	1.6	0	0.0
14	Finger	3	4.8	0	0.0	31	Skin	1	1.6	0	0.0
15	Forehead (trán)	0	0.0	1	0.9	32	Teeth (răng)	7	11.1	2	1.8
16	Gull (mặt)	0	0.0	2	1.8	33	Toes	1	1.6	0	0.0
17	Gullet/throat (cổ họng)	2	3.2	2	1.8	34	Tongue (lưỡi)	5	7.9	1	0.9

According to table 2, there are 63 idioms expressing anger with the metaphoric and metonymic features of 25 parts of the body in English. *Blood* accounts for the highest rate with 8 idioms, following is *Teeth* with 7 idioms, *Tongue* and *Head* are consistently listed with 5 idioms. Next, other parts of the body like *Finger*, *Neck*, *Ear*, *Hair*, *Arm*, *Ass*, *Face*, *Lip*, etc. are listed with a total of 38 idioms in table 2. Here are some examples of English idioms expressing anger using parts of the body in *Metaphor* and *Metonymy*.

*When she opens her jaws to **bite his head off** the male sticks his elbows in her mouth and holds it open with his little spurs.*

(Howard Rheingold, *Excursions to the Fair Side of the Mind: A Book of Memes*, 1989:88)

*So how was he, The toothsome? Did he **get on your nerves**?*

(Peter Farrelly, *Green Book*, 2018)

*...My shoulders get tense . A sharp edge can be heard in my voice . People literally give me **a pain in the neck** . Where do you experience anger?..*

(Richard D. *Your Spiritual and Emotional Power*, 1984)

*He will **lose his head**, whichever party wins. "But he kept it on his shoulders nevertheless, while heads not half so deeply implicated as his fell like wheat - ears in harvest...*

(*The Gentlement's Magazine, and Historicall Review*, 1968)

*Or a dry wheel grate on the axletree,*

*And that would **set my teeth nothing an edge**...*

(Shake Spears, *Henry IV, Part 1*)

Table 2 also demonstrates 21 parts of the body are metaphorically and metonymically used in 109 Vietnamese idioms to express anger. Contrast to English, in Vietnamese, *Face (mặt)* is placed first with 21 idioms, *Eye (mắt, con người)* and *Lung (gan)* have the same rate (13.6%) placed second higher position with 15 idioms each. Next, *Blood (máu, tiết)* ranked third with 14

idioms. Then, *Bowel* (*ruột, lòng*) 11 items, *Eyebrow* (*chân mày*) 7 idioms are ordered. Lastly, other parts of the body like *Ear* (*lỗ tai*), *Head* (*đầu*), *Cheek* (*mang, má*), *Chest* (*ngực*), *Gum* (*lợi*), etc. are orderly listed with a total of 27 idioms showed in table 2. Here are some expressions of anger in Vietnamese idioms using parts of the body.

... *Thị thấy lòng sôi lên sùng sục, thị giậm chân bành bạch kêu trời. Thị đánh con lớn, chửi con nhỏ, quăng cái chổi, đá cái thúng, và cầu nhàu trống không...*

Literal meaning: **Her bowel is boiling**, she **stamped her feet** and cried out to heaven. Thi beat the big one, cursed the little one, threw the broom, kicked the basket, and grumbled empty...

Figurative meaning: She is **angry**, and cried out to heaven. Thi beat the big one, cursed the little one, threw the broom, kicked the basket, and grumbled empty...

(Nam Cao, *Giăng sáng*)

*Xót cảnh quê hương, lòng đòi đứt đoạn  
Thương nhà thương nước, dạ quặn hờn căm  
Nghĩa hận thù **cháy ruột bầm gan***

Literal meaning:

Commiseration over the homeland, even their souls want to break apart

Love the house, love the country, feel angry and angry

Meaning of hatred **burns the intestines and livers**

Figurative meaning:

Commiseration over the homeland, even their souls want to break apart

Love the house, love the country, feel angry and angry

Meaning of hatred **got them more angry**

(Mai Bình, *Rực lửa Diên Hồng*)

*Cha Liêm liền đến gặp thẳng cha Lý, và hai linh mục đã **đỏ mặt tím tai** cãi cò ỏn ả với nhau và chẳng còn chút vui vẻ gì...*

Literal meaning: Father Liem immediately went to see Father Ly, and the two priests were already **red-faced and purple-eared**, arguing loudly with each other and no longer having any fun...



Figurative meaning: Father Liem immediately went to see Father Ly, and the two priests were already **very angry**, arguing loudly with each other and no longer having any fun...

(Thanh Hải Mai, *Tháp chuông ráng đỏ*, 2002)

V. Simile

*Simile is an expression comparing one thing with another, always including as and like.*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In English, the primary grammatical structures used are *(as) + Adjective + as + Noun* and *like + Noun*. A total of 14 idiomatic expressions with these structures were found in this study.

<i>(as) + Adjective + as + Noun</i>	<i>like + Noun</i>
1. <b>as</b> angry <b>as</b> a bear 2. <b>as</b> angry <b>as</b> a bull 3. <b>as</b> black <b>as</b> thunder 4. <b>as</b> mad <b>as</b> a hatter 5. <b>as</b> mad <b>as</b> a hornet 6. <b>as</b> mad <b>as</b> hops 7. <b>as</b> red <b>as</b> a beetroot 8. <b>as</b> red <b>as</b> a turkey-cock 9. <b>as</b> mad <b>as</b> a wet hen 10. <b>as</b> mad <b>as</b> hell	1. <b>like</b> a bear with a sore head 2. <b>like</b> a ton of bricks 3. look <b>like</b> thunder 4. <b>like</b> a red rag to a bull

Here are some examples of this feature.

*I see his face turn **red as a turkey cock’s** wattle and Patsy pukes his rung out all over the place...*

(Tochukwu Emmanuel Okafor, *Colour Lessons*)

*Feel this alone is sufficient to make Council magnificent success being just **like a red rag to a bull** – only it is cows this time. Wire long wire to papers, only omit **red rag to bull** part. Sure editor would not approve such levity.*

(Iris Vaughan, *These Were My Yesterdays*, 1966:104)

In Vietnamese Literature textbook 6 (p.24), *Simile* is defined as the comparison of one object with another similar one to illustrate the expression more evocatively, frequently including the word “như”. Table 1 also shows the huge difference between the frequency of using *Simile* in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to express anger. With a total of 34 idioms found in the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semantic feature *Simile* is used more frequently in Vietnamese than in English.

And, *Simile* is only used with the structure **như + Noun**. Here are some idioms including the above feature: *gắt như mắm tôm, giấy lên như đĩa phải vôi, hung hăng như con bọ xít, găm như hổ đói, mặt nặng như đá đeo, etc.* In addition, some common expressions of the feature are given below.

*Hắn đen như cột nhà cháy. Từ trên đó, hắn cất tiếng mắng chửi Giông không ngớt...*

Literal meaning: He was **as black as a burning pillar**. From there, he cursed at Giong incessantly...

Figurative meaning: He was **angry**. From there, he cursed at Giong incessantly...

(*Sử thi Ba Na, Kho tàng sử thi Tây Nguyên tập 15, 2005*)

*Quên đã có lúc mình hô hào tình thương lòng nhân ái, nhân cách, tính tự trọng. Hắn bèn quắc mắt, hung hăng như con bọ xít.*

Literal meaning: Forgot there was a time when he exhorted love, compassion, personality, and self-respect. He then scowled, **as aggressive as a bug**.

Figurative meaning: Forgot there was a time when he exhorted love, compassion, personality, and self-respect. He then scowled **angrily**.

(Nhã Ca, *Đời ca hát*, 1970:115)

*...cái đời tuyệt vô hi vọng , lắm khi giấc cô miên muốn cho thấy mộng , mà mộng kia cũng chẳng tìm mình , những là mòn mỏi ngày xanh , gan ruột càng như thiêu như đốt.*

Literal meaning:...life is absolutely hopeless, sometimes she wants to show her dream, but the other dream doesn't find her, but the days are tiring, **the guts are burning like torrid**.

Figurative meaning: ...life is absolutely hopeless, sometimes she wants to show her dream, but the other dream doesn't find her, but the days are tiring, she is **getting angry**.

(Trúc Khê Ngô Văn Triện)

...bị ai xéo vào chân **kêu như trời đánh** ...

Literal meaning: Someone crossed her legs so she **yelled like heaven hit her**...

Figurative meaning: Someone crossed her legs so she **yelled angrily**...

(Nguyen Ngoc Tan, Thi Nguyen, Trảng sáng: tập truyện)

*Ánh mắt trên khuôn **mặt đỏ như gấc chín** ấy lại tìm cách lẩn trốn. Cậu qua quay mặt đi tách tôi ra một đoạn, miệng lí nhí...*

Literal meaning: The eyes on the **red face like a ripe sweet gourd** find a way to hide. He turned his face away to separate me for a while, mumbling...

Figurative meaning: The eyes on the **angry face** find a way to hide. He turned his face away to separate me for a while, mumbling...

(Nhiều tác giả, Độ ta không độ nàng)

## VI. Symmetry

*Symmetry* is the use of lexicals, images, and parallels in the sentence to effectively illustrate the expression: emphasize the ideas, evocatively and lively describe the sceneries, express thoughts and feelings...

Table 1 demonstrates that in English idioms expressing anger, *Symmetry* is quite rarely used since no idioms were found in the collection of idioms. Contrastively, *Symmetry* is used abundantly with 52 idioms in Vietnamese. For examples,

**mèo/chó** (cat/dog) and **chửi/quèo** (yell/kick), **chửi/mắng** (yell/scold)

*...đã thúng đụng nia, **chửi mèo quèo chó**. Mà khôn khố, khôn nạn nữa, là không hề ai nói thẳng điều gì với mình hết...*

Literal meaning:... kick the basket to touch the nia, **yell at the cats and and kick the dogs**.

Figurative meaning: ...kick the basket to touch the nia, **yell angrily**.

(Văn Siêu Lê, *Nếp sống tình cảm của người Việt Nam*, NXB Cà Mau, 1993)

*Năm nào chậm mang lễ vật mừng Tết như cặp vịt , cặp rượu thì đã nghe chủ đất **chửi chó mắng mèo**...*

Literal meaning: Every year, if they bring Tet gifts such as a pair of ducks and a pair of wine late, they have to hear the landlord **yell at the cats and scold the dogs**...

Figurative meaning: Every year, if they bring Tet gifts such as a pair of ducks and a pair of wine late, they have to hear the landlord **yell angrily** ...

(Nguyễn Hùng, *Công tử Bạc Liêu*)

- **gan/máu (tiết)** (liver/blood) and **bầm/sôi** (bruised/boiled), **tím/bầm** (purple/bruised), **ngứa/cấm** (itch/grudge)

*Đi đến đâu cũng thấy tiếng kêu than hờn oán của đồng bào làm **bầm gan sôi máu**...*

Literal meaning: Wherever you go, you can see the lamentation of the compatriots **making their liver bruised and blood boiled**...

Figurative meaning: Wherever you go, you can see the lamentation of the compatriots **being angry**...

(Quốc Việt Hoàng, *Chặng đường nóng bỏng: hồi ký*, 1985:260)

*Nhắc tên! Máu bỗng trào sôi,*

***Gan ruột tím bầm** căm giận.*

Literal meaning:

Mention the name! Blood boils,

**Liver and bowel bruised.**

Figurative meaning:

Mention the name! Blood boils,

**Getting angry.**

(Hoàng Trung Thông, *Đồng bằng, quê hương chiến đấu*, 1955)

*Gian thần buông thả lòng tham*

*Thiên hạ **tím ruột bầm gan** căm hờn*

Literal meaning:

God let go of greed

People **bruised their bowel and liver** angrily

Figurative meaning:

God let go of greed

People **are getting** angrily

(Lê Thánh Tông, *Cổ tâm bách vịnh*, Viện nghiên cứu Hán Nôm, 2000)

- **ruột/gan** and **đốt/cháy, tím/bầm** (bowel/liver and burn/torrid, purple/bruised)

*34 tiếng đồng hồ chờ đợi **cháy ruột , cháy gan**...*

Literal meaning: 34 hours of waiting impatiently, **burned bowel, burned liver**...

Figurative meaning: 34 hours of waiting impatiently, **angrily**...

(*Lịch sử Đảng bộ và nhân dân xã Lập Lễ*)

1. *mình chỉ biết cho mình, đành để cho nó **đốt cháy ruột gan**, róc rĩa da thịt...*

2. Literal meaning: there are so many sufferings, I only know for myself, so I have to let it **burn my intestines and livers**, poke my skin, not let me die...

3. Figurative meaning: there are so many sufferings, I only know for myself, so I have to let it **make me angry**, poke my skin, not let me die...

(*Một đời day vắn, viết vắn: toàn tập, Tập 1*)

*Như thành phố đêm nay ầm ầm xốc tới*

*Sau bao năm **tím ruột bầm gan***

Literal meaning:

Like the city roaring tonight

After many years of **purple intestines and bruised liver**

Figurative meaning:

Like the city roaring tonight

After many years of **being angry**

(Trùng Dương Lưu, *Tuyển tập thơ Lưu Trùng Dương*)

- **mặt/mày** (face/eyebrows) and **nặng/nhe** (heavy/light), **sưng/sía** (swell/stumble), **sa/nặng** (fall/heavy)

*Vì thế , nên những ngày chủ mới rời cái cửa cái đục đi học lái máy kéo,*

*thím mày cũng **mặt nặng mày nhẹ** mãi đấy chứ..*

Literal meaning: Therefore, in the days when the new owner left the hacksaw to learn to drive a tractor, your aunt kept a **heavy face and light eyebrows**...

Figurative meaning: Therefore, in the days when the new owner left the hacksaw to learn to drive a tractor, your aunt kept an **angry face** ...

(Quang Thuý Khuất, *Trong cơn gió lốc*)

*lại sợ các bố ấy **mặt sưng mày sía** ra rồi bao nhiêu cái từ tế nhân nghĩa trước là vút toi hết cả...*

Literal meaning: I'm afraid they will have **swollen faces and stumble eyebrows**, and then how much kindness and benevolence will be thrown away first.

Figurative meaning: I'm afraid they will **get angry**, and then how much kindness and benevolence will be thrown away first.

(*Văn học Việt Nam thế kỷ XX - Tập 3*, Số phát hành 3, 2007)

*...chỉ lo mụ vợ **sưng mặt sưng mày** rìa rồi ồn ào , chứ nhà báo không "thử" cho biết mùi đời thì làm sao viết cho sinh động được!*

Literal meaning: ...just worried about the wife's **swollen face, stumble eyebrows**, noisy, but journalists don't "try" to tell the smell of life, how can they write vividly!

Figurative meaning: ...just worried about the wife's **angry face**, noisy, but journalists don't "try" to tell the smell of life, how can they write vividly!

(Nguyễn Khắc Phê, *Thập giá giữa rừng sâu: tiểu thuyết*, 2002:123)

## VII. Conclusions

As mentioned above, the study mainly focuses on describing and analyzing the basic semantic features of the idiomatic anger expressions in English and Vietnamese such as Metaphor, Metonymy, Symmetry and Simile. A total of 408 idioms (235 English and 173 Vietnamese) were collected from various reliable online sources to build a collection of idioms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easier. Hopefully the study could help Vietnamese learners to be aware of the semantic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s well as gaining a deeper understanding in idiomatic expressions of both languages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practice in their learning process.

To summarize, the study has illustrated that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could semantically express anger through Metaphor, Metonymy and Symmetry. Both languages also share the same highest frequency of parts of the body in the conducted collection of idioms. As well, the symmetric features of these idioms demonstrate the similar theori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semantic features. Although sharing the highest rate in expressing anger through parts of the body metaphorically and metonymically, there is huge contrast between both languages' idioms. First is the quantity, in Vietnamese, 110 idioms were listed which almost double 63 English idioms expressing the above features. Second is the frequencies in each part of the body also demonstrate the differences in both languages. While in English, *Blood* ranked first with just only 9 idioms (14.3%), at the same time, in Vietnamese, *Face (mặt)* accounts for first rate with 21 idioms (20%). Additionally, *Eye (mắt)* and *Lung (gan)* are both ranked second with 15 in Vietnamese idioms; these two images do not exist in any of the English idioms listed in the collection of idioms. Lastly is the Symmetry in the semantic features of both languages. None of the collected English idioms in the collection of idioms includes this feature. However, it appears quite much in Vietnamese with 11.7%, ranked second.

## VIII. Limitation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this paper, however, because of the limited research abilities, the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from the author, obviously, there are unavoidable imperfections and defective points in this study. However, hopefully the above findings will be useful in the future research.

In the next study, the author will continue to collect more data to enrich the idioms collection then re-do the analysis again for the accuracy of the contrast between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idioms in terms of semantic features. On the other hand, the author will do a contrastive study of structural features between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in the next research. And hopefully a comparison of the structural and semantic features of both languages' idioms expressing anger can be conducted.



## Reference

### In English

-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eed. (2015). *Semantics* (3rd ed.). John Wiley & Sons.
- Spears, R. A. (1987). *NTC's American idioms dictionary*.
- Chen, P. (2010). A cognitive study of “Anger” metaphors in English and Chinese idioms. *Asian Social Science*, 6(8). doi:10.5539/ass.v6n8p73
- Ed. Paul Heacock. (2003). *Cambridge Dictionary of American idioms*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 Vietnamese

- Tran Ngoc Dung. (2018). *Vietnamese Idioms* (3rd ed.). California: Tủ sách Tinh hoa Việt Nam.
- Nguyen Dinh Hung. (2007). *Thành ngữ Tục ngữ Ca dao Việt - Anh Thông dụng*. NXB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Nguyen Thi Thanh Huong. (2017). Về cách biểu đạt cảm xúc thông qua hình ảnh trong thành ngữ tiếng Anh và tiếng Việt. *Ngôn ngữ số 7 năm 2017*, 27-45.
- Tran The Phi. (2016). *Án dụ ý niệm cảm xúc trong thành ngữ tiếng Việt (so sánh với thành ngữ tiếng Anh)* (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Đại học Quốc gia thành phố Hồ Chí Minh, Hồ Chí Minh, Việt Nam).

**Abstract**

## **A Contrastive Study of Semantic Features in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Le Thi Ngoc Thy**

Idioms have always significantly played a vital role in all-natural languages, including English and Vietnamese. Moreover, idioms do not only enhance the language but also help communication to be more lively and successful in the shortest and most effective way. However, learners face numerous difficulties as a result of the uncommon idiomatic expressions from both languages. For that reas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llustrate a contrastive analysis of semantic features in English and Vietnamese idioms expressing anger. The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awareness of these features to learners and also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idioms, anger, semantic, English, Vietnamese



## 2020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1명)	2021년 8월 27일	이숙자	경어법 번역전략과 목표독자 맥락의 영향 연구 - 영한번역본의 인물성격과 인물관계를 중심으로	배만호
문학석사 (11명)	2021년 8월 27일	김서영	새로운 영국성을 위한 역사 다시쓰기 — 힐러리 맨틀의 『울프 홀』을 중심으로	배만호
	2021년 8월 27일	김채현	데이비드 매밋의 극에서 신자유주의적 게임의 논리 — 『글렌게리 글렌 로스』와 『도박의 집』을 중심으로	정병언
	2021년 8월 27일	김정은	증언의 서사를 통한 역사 개대기 — 제스민 워드의 『파헤쳐진 자들의 노래』와 콜슨 화이트헤드의 『니켈 보이즈』	이선진
	2021년 8월 27일	서지현	에드거 앨런 포의 고딕소설을 통해 체험하는 이원적 감정과 숭고	이제성
	2021년 8월 27일	김다정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유의어 동사Say, Tell과 Speak, Talk구분 사용 능력 연구	전지현
	2021년 8월 27일	김성희	발화자에 대한 시각, 청각 정보가 L1/L2 간 어휘 경쟁에 미치는 영향	김정운
	2021년 8월 27일	김가희	영어 형용사 crazy, mad, insane 의 결합관계에 대한 연구	박기성
	2021년 8월 27일	양사우	Transcendence and Rebirth of Edna: Kate Chopin's The Awakening	이제성
	2021년 8월 27일	윤장실	대안적 코즈모폴리타니즘과 세계문학 —옹구기의 『십자가 위의 악마』를 중심으로	김용규
	2021년 8월 27일	이미정	어휘경쟁 요소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모음 조음에 미치는 효과	김정운
	2021년 8월 27일	채상령	The Resolvable Distinction of Culture in David H. Hwang's Chinglish	정병언
문학사 (22명)	2021년 8월 27일	22명	김주은, 김혜연, 손수민, 윤재혁 김준성, 손영우, 차유나, 김효민 박나경, 오현정, 유지혜, 구소영 김다영, 김안나, 박지성, 박지원 서혜승, 손서영, 유정화, 이진주 이현주, 이현진	

## 2021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6명)	2022년 2월 25일	안정한	정서지능과 외국어 불안감 및 언어 학습전략 간 상관성 연구: 직업기술 전문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상도
	2022년 2월 25일	장인권	Acoustic Cue-weighting Strategies for English Vowel Tenseness and Experience-based Talker Adaptation	김정윤, 이상도
	2022년 2월 25일	페이 리화	A Comparative Study of Non-canonical Word Orders between English and Chinese	박기성
	2022년 2월 25일	이선현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이론 연구-젠더 수행성에서 프레카리티로	김용규
	2022년 2월 25일	조윤실	문화 차원 이론에 기반한 한영 다큐멘터리 번역 연구	박기성
	2022년 2월 25일	정인호	체계기능언어학 기반 한영 문학번역 문제 연구	장경철
문학석사 (5명)	2022년 2월 25일	이민수	영한 번역 그림책의 가화성 연구	이상도
	2022년 2월 25일	박채빈	영어 작문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한 수업 효과: 자신감과 오류 수정을 중심으로	전지현
	2022년 2월 25일	정다운	영화 속 감정 화면해설의 객관성과 운율요소 변이에 따른 인물 감정에 대한 인식 차이	김정윤
	2022년 2월 25일	이유림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에 나타난 절대 타자의 그림자	이재성
	2022년 2월 25일	손보경	토마스 하디의 『더버빌 가의 테스』 : 해체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윤리성	이재성

문학사 (34명)	2022년 2월 25일	34명	이도영, 서창완, 최주영, 곽동현 김재현, 김정아, 서준석, 송수빈 정육현, 최여경, 김민지, 김은오 김지원, 우남경, 이민하, 이정은 정재모, 한유진, 구예림, 김지원 문지현, 백승화, 송수빈, 이다영 이새라, 임수민, 장수빈, 김건리 김미형, 리허룽, 이채미, 이희철 김영복, 박민지	
--------------	-----------------	-----	--	--

## 『효원영어영문학』 원고 기고 및 작성 요령

### • 원고 기고

1. 마 감 일 : 매년 1월 10일
2. 내 용 : 영어학 및 영문학에 관한 논문, 번역, 또는 서평
3. 분 량 : 분량은 한글 A4 15-20매, 영어 5000-6000 단어로 한다.
4. 제출방법 : 워드프로그램 (HWP, MS Word)으로 작성 한 파일 제출
5. 제출자격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취득자, 박사과정 및 수료자, 박사학위 취득자, 시간강사, 교수
6. 제 출 처 :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효원어문학』편집위원(학과사무실 전화 051-510-1510)

### • 원고 작성법

1.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문에 한자와 영어를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로 처리한다. 단 논문 제목은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외국어 고유명사 및 책이름은 한글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영문 표기를 제시한다. 책이름이나 잡지 이름은 겹낫표(『 』), 논문이나 단편은 낫표(「 」)로 묶는다. 외국어의 경우는 번역하되, 처음 사용할 때 괄호 속에 외국어 표기를 병행한다. 단, 영어학 논문의 경우에는 『언어』(Language)의 최신판 양식에 준한다.
4.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외국어 인용문은 번역하되, 운문의 경우 원문을 번역문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단 영어학 논문에서 영어 구절이나 문장을 분석하는 경우, 해당 구절이나 문장은 번역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의 규정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의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제 7판과 『언어』(Language)의 최신판을 따르되, 국내 서적이거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 (1) 인용문헌(Works Cited)으로 처리하는 경우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자. 지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 (2) 각주(footnote)로 처리하는 경우(가급적 피하기 바람)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자 (지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 (3) 온라인 자료, 표, 그림 등 기타의 경우는 한국영어영문학회의 『논문작성 요령』(2016)을 따른다.
6. 인용문헌은 논문의 끝에 반드시 첨부하되, 영어로 작성한 논문은 ‘인용문헌’이라는 용어 대신에 ‘Works Cited’로 표기하며, 국내 문헌과 외국 문헌을 함께 인용 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모든 문헌정보를 영어로 표기하여 전체 인용문헌의 저자의 성을 ABC순으로 한다.
7. 한국어 논문과 영어 논문은 모두 150 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을 논문 앞에 붙인다.
8. 주제어(Key words)는 논문 요약문(Abstract) 바로 하단에 5개를 영어로 표기한다.



## 효원영어영문학

제40호

---

2022년 2월 19일 인쇄

2022년 2월 22일 발행

**발 행**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인 쇄** 만수출판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14-7

Tel : (051) 513-4042, 2662

E-mail : mansu4042@naver.com

---

(비매품)